

호남문화연구

제53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년 6월

<목 차>

일반논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방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의 분석을 중심으로 ... 류재한 1

‘고분객(孤憤客)’의 신악(神岳), 무등산

-이은상의 『무등산 유기』 고찰 박찬모 33

조선시대 전라도 司馬案 연구

-강진 사마안 사례- 윤희면 67

호남좌도농악의 호호굿 가락에 관한 음악적 연구

..... 이용식 ... 115

일제강점기 광주읍 ‘궁민(窮民)’ 연구

-천정(泉町) 궁민가옥 철거사건을 중심으로- 정경운 ... 137

스토리텔링을 위한 소재원의 음양론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조인철 ... 171

지석묘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 표인주 ... 205

휘 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방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의 분석을 중심으로*

류 재 한**

- | | |
|--------------------------------|-------------------|
| I. 들어가기 |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
|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준비 현황 | 구축방안 |
| I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분석 | V. 나오기 |

* 이 논문은 2013년 5월 31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아시아문화학회 춘계 학술대회(<아시아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방안>)에서 발표된 글이다. 이 논문의 초고는 2013년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아시아문화전당의 나아갈 길: 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되었고, 이후 수정과 함께 동년 5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2차 정책토론회(<문화전당 운영과 콘텐츠 그리고 광주의 미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와 운영조직’이라는 주제로 발표되었음을 밝혀둔다.

** 전남대학교 교수, 아시아문화학회 회장.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5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의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이 2013년 4월 2일 공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은 융·복합 지식 창출의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콘텐츠 종합계획은 구체적인 콘텐츠 확보의 밑그림과 방향제시에 그치고 있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 문제점은 콘텐츠의 ‘구체성 부재’와 ‘가시성 부재’, 그리고 콘텐츠의 ‘난해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성’의 부재는 콘텐츠 종합계획이 담고 있는 콘텐츠가 세부 콘텐츠를 담은 그릇과 방향으로 제시되었을 뿐, 이 그릇에 담길 구체적인 콘텐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데에서 유래한다. 콘텐츠의 난해함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당의 콘텐츠가 지식 특히 융·복합의 지식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가시성’의 부재는 전당의 콘텐츠가 ‘결과로서의 콘텐츠’가 아니라 지식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분석을 토대로 지금의 종합계획의 수정과 보완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콘텐츠의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에 대한 선행 연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I. 들어가기

21세기에는 독자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나 국가가 세계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의 도시는 문화예술로 도시를 재생하고 문화콘텐츠로 도시의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다. 도시의 성장 동력이 문화콘텐츠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도시는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이 반영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다른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시는 원형성과 활용성의 잠재력을 갖춘 문화원형이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원천소스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도시의 명운을 걸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도시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 것이다.

가까이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대규모의 복합 문화예술기관을 채울 콘텐츠를 놓고 광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 도시의 거대한 문화 인프라를 말하지 않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문화콘텐츠의 확보를 놓고 ‘별이는 문화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싱가포르의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Renaissance City Project)를 들여다 보기로 하자.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복합문화시설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Theatres on the bay)를 짓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이곳은 동남아로 특화된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공연하는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싱가포르 아트뮤지엄과 싱가포르 아트 갤러리와 같은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홍콩 역시 마찬가지이다. 홍콩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의 문화 허브’를 내걸고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이하 WKCD)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006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속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규모면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문화프로젝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다.” 여기에는 M+미술관과 시추오페라극장, 다목적 전시장(1만5000석), 클래식 전용홀, 등의 문화 인프라와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¹⁾ 하드웨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이 “아시아 속의 세계”에 어울리는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²⁾

유럽의 문화수도 역시 질 좋은 콘텐츠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 1) 광주일보의 박진현 문화선임기자가 2013년 3월 25일 같은 신문에 실은 <홍·상·광, 20년 문화전쟁 불 붙었다>를 참조할 것.
- 2) 2013년 4월 2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발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 비교 경쟁 우위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광주의 문화 프로젝트를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후 제시되는 그림이나 도표는 모두 이 종합계획(혹은 이후 수정·보완된 종합계획)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사업명	핵심시설	특징	거주 인구 (명)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 (명)	건립예산 (원)	1인당 소득 (달러)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싱가포르, 2000-2012)	에스플라네이드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SAM) 싱가포르 아트 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문화예술의 핵심이 되는 것이 목표임 • 2000년 이후 문화 프로젝트 본격화 • 화교 경제권이나 문화적 배경은 영국 	531만 (2012)	1,400만 (2011)	1조 2,000억 (최근 5년간)	43,000 (2011)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 조성사업 (홍콩, 2006-2031)	M+미술관 시추극장(16개 중 대표극장)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속의 세계 지향 • 스위스 업체가 중국 현대미술 작가 350명의 컬렉션(1,463점 1,900억 상당) 기증 • 컨템포러리아트 강화하는 추세 (홍콩 아트페어, 바젤아트페어, Asian Art Archive) 	700만 (2005)	4,200만 (2011)	21조	34,000 (20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광주, 2003-202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평화·교류의 상징적 가치 • 광주비엔날레 	141만 (2012)	1만 (2005)	6,972억	21,000 (2012)

경주하고 있다.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된 도시들은 자신들만의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타 도시들과 교류를 한다. 그리고 그 교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공유하며 연대감과 일체감을 확인한다. 특히 복합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들은 이러한 ‘문화 전쟁’을 벌이는 데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자신들만의 문화콘텐츠를 한 공간 안에서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의龐피두센터(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 Pompidou)와 런던 바비칸센터(Barbican Centre for Art and Conferences)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파리와 런던 모두 복합문화시설과 콘텐츠로 세계의 문화도시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예산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이 도시들의 문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핵심 문화시설을 채울 콘텐츠의 성패에 달려있다.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창조자들의 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당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시아 문화와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의 창조 그리고 그 실천이 집적되어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에서 지식은 교차되고, 융·복합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러한 창조과정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는 토론과 지식의 교환 장소로 기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4월 2일 발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의 분석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독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문화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수정과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콘텐츠의 ‘창조적인’ 구축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준비 현황

광주에서는 지역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전당의 콘텐츠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다. 1년 전부터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과 더불어 전당의 콘텐츠 계획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2013년 4월에 이르러서야 콘텐츠 종합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일찍이 콘텐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전당의 하드웨어 공사에만 집중해온 터라 전당을 채울 콘텐츠 준비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또한 지금의 인력과 예산(그것도 전당의 하드웨어 공사에 치중)으로는 콘텐츠 준비의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출판된 전당 관련 각종 홍보물에 따르자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당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구축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전당 5개원 운영체계 기본방향 설정 (계획단계: 2006~2007년)
- 전당 운영체계 및 콘텐츠·프로그램 연구 (준지단계: 2008~2011년)
- 본격적인 개관 콘텐츠, 프로그램 창·제작 (개관실행단계: 2012~2014년)
- 개관축제 개최 및 정상 운영 (정상가동단계: 2015년)

여기서 전당 운영체계 및 콘텐츠·프로그램 연구가 2011년까지 마무리되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당의 콘텐츠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와 계획안의 확정이가 2011년에 끝마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2013년인 올해에는 개관실행단계로서 본

격적인 개관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창·제작이 한창 이루어지고, 2015년에는 개관하여 정상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정상운영”이라는 말은 전면개관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조성위원들이 참석한 2013년 4월 1일 회의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문화전당콘텐츠 종합계획 보고를 통해 문화전당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년에 걸쳐 단계별로 개관할 예정임을 밝힌다. 전면개관의 시점으로 제시되었던 2015년이 프리오픈 즉 부분개관의 시기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단계별 개관이냐 전면개관이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개관의 시기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전당의 콘텐츠의 준비상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연구와 그 결과로서의 창·제작의 시기 지연이 2015년의 부분개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당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구축 단계별 일정에 따르자면 지금까지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연구가 완결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개관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창·제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콘텐츠예산 확보의 어려움 역시 단계별 개관 쪽으로 기우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콘텐츠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2500억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링(ceiling)으로 배정된 예산은 71억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처의 실링에 따라 할당되는 낮은 예산은 콘텐츠의 창·제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콘텐츠 역시 단계별 개관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융·복합 지식의 콘텐츠는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앞서간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만큼 경쟁우위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러한 융·복합 지식의 콘텐츠를 전시하는 복합문화시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으며 세계무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은 결국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의 전시가 검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향유자들과 만나기 전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말이 된다. 결국 전당의 단계적 개관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 분석

1. 시기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과 콘텐츠 변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을 분석함에 있어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시기에 따라 전당의 역할이 변했다는 것과 그에 따라 전당의 콘텐츠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2013년 4월 2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준비한 <지식의 야생정원>으로서의 전당은 2011년의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으로서의 전당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전당의 역할 변화는 그에 따른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1.1 2011년의 “문화발전소”로서의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

2011년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시절)은 “전국, 아시아 전체의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문화발전소”(전당의 비전)이다.³⁾ 이 시기의 전당은 아시아 문화자원의 발굴과

가공을 통해 발산되는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한 곳에서 만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시기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으로서의 전당의 콘텐츠는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창·제작되는 콘텐츠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전당의 콘텐츠가 “아시아문화 공동체”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의 핵심 자원이 되는 소재의 확보는 “아시아문화 공동 발전을 위한 아시아예술커뮤니티”의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시아문화 공동체” 실현은 아시아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는 예술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전통음악의 커뮤니티로, 중앙아시아는 설화의 커뮤니티로, 서아시아는 영상의 커뮤니티로, 남아시아는 무용의 커뮤니티로, 동북아시아는 전통연희의 커뮤니티로 구축하여 콘텐츠의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다.⁴⁾

따라서 이 시기의 전당은 5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예술커뮤니티의 아시아 문화예술자원을 공급받아 가공된 ‘예시’들을 보여준다. ‘예시’에 불과하더라도, 이 시기의 예상된 콘텐츠는 전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물리적인 컬렉션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이유는 5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예술커뮤니티의 문화예술자원의 가공의 ‘예시’들이 ‘가시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

3) 2012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보완 연구」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발전소”로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 창조와 소통·교류의 핵심 창구”이자 “7대 문화권을 잇는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전당의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4) 2011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병국 장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할 것.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시성’은 전당이 아시아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창·제작된 ‘결과’(즉 “예술적 실현”)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보여준다는 점을 말한다.

이처럼 전당이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공동’으로 다루는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으로 기능하는 것은 전당 콘텐츠의 ‘가시성’ 확보, 즉 ‘결과’로서의 콘텐츠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관람객은 두 가지의 형태의 모습이 모두 가능하다. 먼저 “행위자”이자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전당의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관람객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향유자로서 능동적인 참여 없이 콘텐츠의 소비에만 참여하는 평범한 관람객도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콘텐츠는 폭 넓은 모객층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의 콘텐츠는 대중성과 집객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2013년의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창조자들의 집”으로서의 〈지식의 야생정원〉

반면에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발표한 현재의 콘텐츠 종합계획 속의 전당은 “창조·민주·인권·평화·소통”의 가치를 구현하는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창조자들의 집”(전당의 비전)이다. 그리고 전당은 “지식의 야생정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3년 4월 2일에 개최되었던 아시아문화전당 국제컨퍼런스의 발표 자료집에 따르면 “지식의 야생정원”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아시아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창조자들이 융·복합 “지식”을 매개로 “새로운” 지식의 “창조”에 공동 가담하고 소통

비전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창조자들의 집
가치	창조 · 민주 · 인권 · 평화 · 소통의 정신

목표	아시아의 동반성장	창의적 집단지성의 형성	문화도시 조성의 거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문화교류 및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 ● 아시아 각국의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 개방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위한 온라인 포털 및 방송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를 위한 예술적 지식 생산과 체험 확장 (전시, 공연, 축제, 포럼 등) ● 예술 · 인문 · 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배가랩 운영 ● 아시아 문화자원과 창조적 예술활동에 기반한 디지털 아카이브/도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디자인 및 미디어 창작물의 제작 · 유통 지원 ● 관용과 배려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전당 관람객 개발 ·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림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 및 목표

하는 “과정”의 공간이며 그 과정을 전시하는 공간이 된다. 2013년 5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2차 정책토론회>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이영철 원장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구축 설계의 기본개념 및 현안논점’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원장은 문화창조자들을 “자기분야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자, “테크놀로지, 오락, 디자인, 과학, 인문학, 예술, 비정부단체들, 교육, 사업 분야 등 세상(세계)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면의 혁신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창조자들이란 일반 문화향유자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당의 콘텐츠와 전당의 중심 고객층은 새로운 지식창출에 능동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생산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콘텐츠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창조자들의 집”이 기존의 복합문화시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영철 원장의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구축 설계의 기본개념 및 현안논점’의 제시는 이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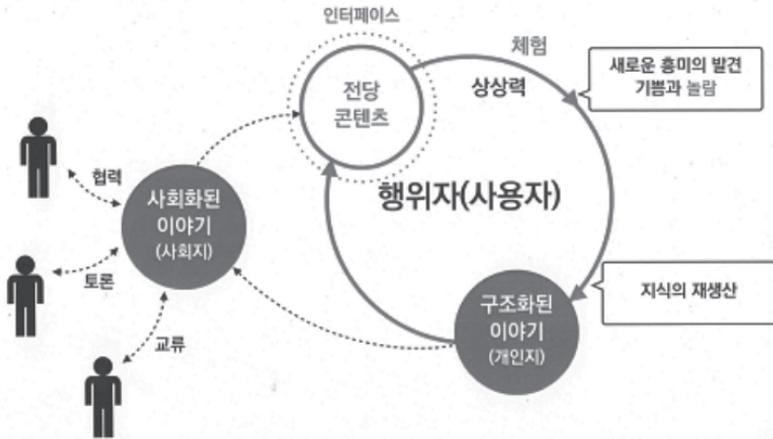
새로운 방향의 모색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는 “문화를 사용자 중심의 소비가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생산(지식, 예술, 행복,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당의 콘텐츠는 일반항유자가 소비하는 결과의 콘텐츠가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생산(지식, 예술, 행복, 가치)의 과정의 콘텐츠이다. 결국 사용자는 문화창조자들로서 새로운 지식생산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방향 선회의 첫 번째 이유를 2013년 1월에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발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위한 콘텐츠 구성 및 운영 로드맵 2013-2015」에서 찾을 수 있다. 전당 콘텐츠 개발 마스터플랜은 “그간의 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아시아라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범위를 자원화하고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 전략과 실현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

두 번째 방향 선회의 배경으로 유형의 콘텐츠 즉 방대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프랑스 파리의蓬피두센터나 다른 복합문화시설처럼 방대한 전시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대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지 못한 점은 콘텐츠 구성전략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건평 173,540m²(52,495평) 지하 4층, 지상 4층의 대규모 건축을 채울 수 있는 소장품 부재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 대안으로 ‘지식 창출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방향선회의 배경으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들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위한 콘텐츠 구성 및 운영 로드맵 2013-2015」은 “‘창의적 지식생산’으로 예술 생산(창작) 방식의 모델 변화”

5) 아시아문화개발원, 2013년 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위한 콘텐츠 구성 및 운영 로드맵 2013-2015」, 1쪽.



〈그림 2〉 체험·지식과 전당콘텐츠의 관계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경변화의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무형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및 과학·기술·인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응용하는 추세”의 확산과 “새로운 ‘박물관학(critical museology)’의 수용과 지식의 생산”이 이러한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 이 배경에 따르자면, 콘텐츠는 “‘사회 내 예술적 실현’에서 ‘예술적 사고(artistic thinking)’에 기반 한 창의적 지식형성”으로 동시대예술(컨템포러리아트)을 지향”하게 된다. 또한 과거의 복합문화시설이 “지식의 전시 혹은 문명과시 중심의 박물관”의 형태를 취했다면, 새로운 복합문화시설은 “새로운 지식의 생산·유통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⁶⁾

이 경우 “‘사회 내 예술적 실현’에서 ‘예술적 사고(artistic thinking)’에 기반 한 창의적 지식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지식은 ‘결과’로서의 ‘콘텐츠’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콘텐츠’ 즉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의 콘텐츠이다. 왜냐하면 “지식의 야생정원”인 전당에

6) 같은 보고서, 2쪽.

서 사용자 즉 행위자는 서로 다른 지식 즉 “사회화된 이야기(사회지)”와 “구조화된 이야기(개인지)”가 서로 만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도록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자는 새로운 흥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한다.⁷⁾

전당의 콘텐츠 종합계획이 밝히고 있는 콘텐츠 체험의 순환 체계에 따르자면, 사용자는 자신의 “구조화된 이야기(개인지)”와 “사회화된 이야기(사회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융·복합 지식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과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체험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화된 이야기” 즉 “사회지”는 아래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협력이나 토론, 교류를 통해 축적되는 사회의 지식을 가리킨다.

전당 안에서 참여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자신의 개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참여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만큼 공동 창·제작이 가능하며, 참여자들은 서로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콘텐츠 체험의 순환 체계는 지금의 시대가 융·복합 지식의 창출의 시대로 그 지식을 실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시대가 왔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담는 복합문화시설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2011년의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과 2013년의 <지식의 야생정원>으로서의 전당은 역할과 콘텐츠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그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1년의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으로서의 전당은 ‘아시아 문화예술의 발전소’로서, 그 콘텐츠는 아시아의 문화예술(특히 5개 권역의 예술커뮤니티의 문화예술)을 소재로 가공된 콘텐츠이다. 구체

7) 아시아문화전당 국제 컨퍼런스 발표 자료집, 2013, 『지식의 야생정원-새로운 사회를 위한 아시아문화의 가능성』, 10쪽.

적으로 말해서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의 콘텐츠는 동남아시아의 전통음악, 중앙아시아의 설화, 서아시아의 영상, 남아시아의 무용, 동북아시아의 전통연회를 소재로 창·제작된 ‘결과의 콘텐츠’이다. 이런 점에서 2011년의<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으로서의 전당의 콘텐츠는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고, 구체성과 대중성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13년의 <지식의 야생정원>으로서의 전당은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창조자들의 집”으로, 그 콘텐츠는 융·복합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이다. 다시 말해서 이 콘텐츠는 사용자의 “개인지”와 “사회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융·복합 지식의 콘텐츠이다. 사용자에게는 이 융·복합 지식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과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새로운 지식창출의 집현전”으로서 기능하는 곳이며 일반 향유자를 위한 소비의 공간이 아니다. 결국 전당은 자신의 개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 즉 지식의 생산자를 위한 공간이 된다.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의 문제점

2.1 콘텐츠의 구체성 부재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창조자들의 집”인 전당의 콘텐츠 종합계획은 “아시아의 동반성장”과 “창의적 집단지성의 형성”, “문화도시 조성의 거점”이라는 3대 목표 별 3대 과제 총 9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제별로 제안하고 있는 세부사업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 이다.

과제	세부 사업
1. 아시아 문화교류 및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	• 아시아문화협의회 설립 (검토중)
2. 아시아 각국의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아시아도시파빌리온 상설관 • ACA(아시아문화아카데미) 사업
3. 개방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위한 온라인 포털 및 방송시스템 운영	• 인터넷 기반 방송국 운영 • 아시아문화포털 운영
4. 사용자를 위한 예술적 지식 생산과 체험 확장 (전시, 공연, 축제, 포럼 등)	• 포스트휴먼 상설관 • 개막공연 (신화/설화 주제)
5. 예술 · 인문 · 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메가랩 운영	• 아시아연구랩 등 10여개 랩 운영
6. 아시아 문화자원과 창조적 예술활동에 기반한 디지털 아카이브/도서관 운영	• 디지털아카이브 기반 도서관 구축
7. 생활디자인 및 미디어 창작물의 제작 · 유통 지원	• 디자인 아카데미 •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8. 관용과 배려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오늘의 민주주의
9. 전당 관람객 개발 ·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어반인(Urban Inn) 프로젝트 • 월드뮤직 페스티벌

〈그림 3〉 과제별 세부사업

추진과제 2	아시아 각국의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전략사업	→ 〈아시아 도시 파빌리온〉 상설관 공동 제작

- 전시 방향 : 유라시아 3개 간선과 5개 지선에 걸쳐진 도시들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
아시아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인류 문명의 이해
- 추진 방법 : 공공기관과 민간기구 등의 참여와 협력
- 예상 도시 : 유라시아 지역 10~15개 도시 (개관 이후 점차 확대)

〈그림 4〉 아시아 도시 파빌리온

이 세부사업들은 콘텐츠라기보다는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이며 ‘방향’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를 담을 그릇과 방향만 제시되었을 뿐, 이 그릇에 담길 구체적인 콘텐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추진과제 2: 아시아 각국의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의 세부사업인 “아시아 도시 파빌리온 상설관”은 전시방향과 추진방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예상도시를 기획한 “방향”이자 그 내용을 담을 “그릇”일 뿐이다.

<추진과제 4: 사용자를 위한 예술적 지식 생산과 체험 확장>의

세부사업인 “포스트휴먼 상설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시방법과 추진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생명관과 포스트휴먼 관련 “개인지”와 “사회지”가 만나 어떻게 구체적인 콘텐츠로 재탄생하는가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추진과제 4	사용자를 위한 예술적 지식 생산과 체험 확장
전략사업	→ <동아시아의 생명관과 포스트휴먼> 연구 및 전시콘텐츠 개발

- 전시 방향 : 과거 아시아의 생명관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교차
자연, 인간, 기계의 조화와 신인본주의 회복
- 추진 방법 : 국내외 유관 기관 협력 (서울대 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 아르스엘렉트로니카 센터)

<그림 5> 동아시아의 생명관과 포스트휴먼

그래서 지금의 콘텐츠 종합계획이 아무리 지식의 융·복합의 과정의 콘텐츠를 그리고 있어도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⁸⁾

2.2 콘텐츠의 난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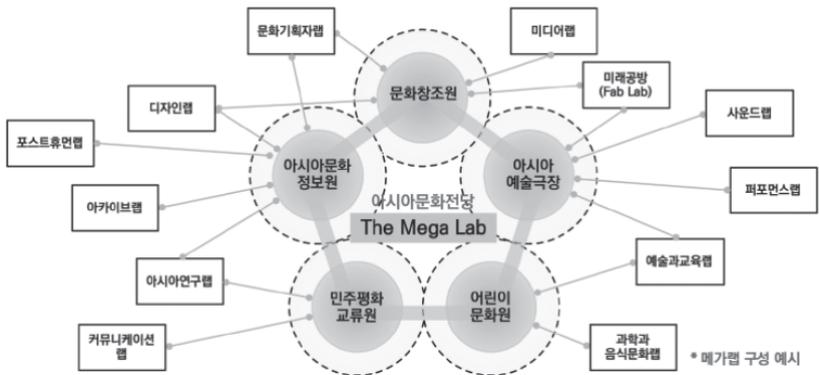
또한 콘텐츠가 난해하다는 평가는 전당의 콘텐츠가 지식 특히 융·복합의 지식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당의 콘텐츠가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나는 ‘결과로서의 콘텐츠’가 아니라 지식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콘텐츠’, 즉 ‘인터페이스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렵고 난해해 보이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더불어 융·복합 지식의 콘텐츠가 ‘과정의 콘텐츠’로서 질문을 유도하고 생산하는 콘

8) 2013년 4월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 지건길)에서 열린 문화전당콘텐츠 종합계획 보고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발표한 콘텐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고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역시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보고한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성 내용과 방향 등이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텐츠이지 해답을 ‘착하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점 역시 어렵고 난해하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콘텐츠는 융·복합 지식의 창출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만 단점이 상존하고 있다. 그 단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먼저, ‘지식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자신 앞에 던져지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 앞에서 혼란스러워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피로증후군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식의 야생정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즉 ‘새롭게’(?) 창출된 지식의 콘텐츠가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지식피로증후군을 유발시킨다면 어찌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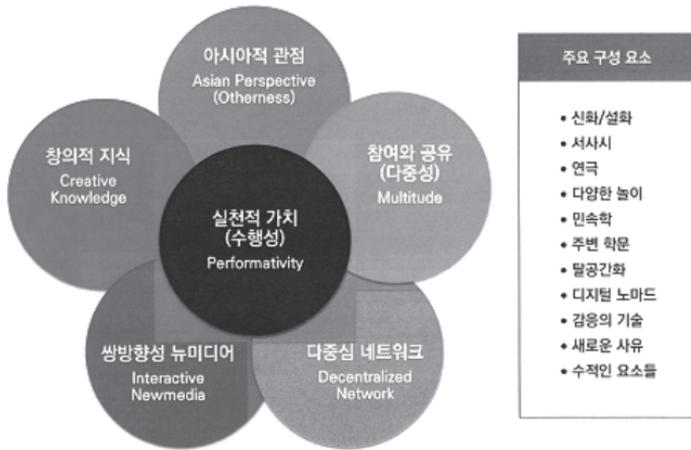
<그림 6> 메가랩(The Mega Lab)

또한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 즉 서로 다른 지식들이 만나 창출된 새로운 지식은 질문을 생산하는 지식이지 답을 제시해 주는 지식은 아니다. 이 경우 전당은 질문을 유도하고 만들어내는 메가랩(Mega Lab)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9)

9) 2013년 4월 1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발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이처럼 5개원을 감싸고 있으며 5개원을 연동하게 해주는 “지식 랩”과 “기술 랩” 그리고 전당의 메가랩이 만들어 내는 창조적 지식은 콘텐츠 생산의 기반이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즐기고자 하는 일반 향유자들에게 접근성, 구체적으로 말해서 심리적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콘텐츠 종합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전당 콘텐츠의 주제어들 중 “실천적 가치”(Performativity)와 “창의적 지식”(Creative Knowledge), “참여와 공유”(Multitude)는 참여자 즉 행위자가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그림 7〉 전당 콘텐츠의 주제어

“창의적 지식”을 생산해내는 “수행성”을 지녀야 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관람자는 능동적인 참여자이자 행위자로서 직접 참여하여 구조화된 자신의 지식과 사회의 지식을 융·복합하는 과정을 자신의 상상력과 체험을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관객객들은 겁

종합계획」에서 발췌한 내용임. 여기서 랩(Lab)은 “전당의 창조적 지식 및 콘텐츠 생산의 기반”이며, 이 랩은 “지식 랩”(“예술·인문학·과학 연구 중심)과 “기술 랩”(“창·제작 중심”)으로 구성된다.

을 내고 참여를 꺼릴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다루는 복합문화기관의 선례가 없다는 사실은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전당의 콘텐츠의 현실성의 부재를 가중시키고,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평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 방안

1. 운영인력 확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의 내용과 방향이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구체성 확보를 위한 수정과 보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수정과 보완은 대중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콘텐츠 구축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콘텐츠의 내용과 방향의 수정·보완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운영인력의 확보이다. 세부사업들이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므로 그 ‘그릇’에 담길 콘텐츠를 다루고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자와 같은 운영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운영인력이 지금 제시된 ‘그릇’ 속에 담을 구체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채운다는 의미이다. 프로그램 기획자와 같은 운영인력이 ‘그릇’ 속에 담을 구체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채운다는 말은 그 ‘그릇’ 속에 구체적인 콘텐츠를 배분하고 ‘정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콘텐츠’가 영어 단어 콘텐츠(content)의 복수형으로, 그 뜻은 ‘내용’과 ‘목차’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콘텐츠가 ‘내용’을 가리키지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의 ‘목차’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내용’(즉 콘텐츠)을 배분하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콘텐츠 즉 ‘목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 ‘정리’되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각각의 콘텐츠라는 구슬을 꿰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획자의 기획의도와 방향성이 콘텐츠와 그 콘텐츠를 담는 그릇의 ‘목차’ 구실을 한다는 의미이다.

2. 대중성 확보 : 지식과 감성의 만남

또한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정과 보완은 지금의 종합계획이 키워드로 다루고 있는 “지식”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식의 창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지식피로증후군의 유발 가능성과 일반 향유자들의 심리적 회피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당을 채울 문화콘텐츠는 ‘창조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창조와 실천, 그리고 차이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당의 콘텐츠는 관람자의 수동적 관람이 아니라 능동적·창의적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능동적·창의적 관람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시나 공연 그리고 교육의 기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람객이 바로 지금의 콘텐츠 종합계획이 요구하는 콘텐츠의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여자이자 행위자의 능동적이

고 창의적 관람을 유도하는 도구 개발은 필요하다. 지식의 야생정원이 전당에서 능동적 관람자 즉 참여자는 지식을 가지고 실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며, 그 지식과 가치를 공유하기도 하고 차이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지식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 관람을 유도하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용자만으로 전당이 채워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전당의 관람객이 이와 같은 지식의 보헤미안을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향유자들은 어렵고 난해한 전당의 콘텐츠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전당의 콘텐츠 종합계획에 따르자면, 전당은 지식 보헤미안의 성격이 강한 “문화 창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당의 콘텐츠는 융·복합 지식의 콘텐츠 외에도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콘텐츠도 필요하다. 대중성을 갖춘 ‘질 좋은’ 콘텐츠 즉 일반 향유자 지향형 콘텐츠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당의 지식 콘텐츠의 생산기지인 랩 시스템 중심을 일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전당의 융·복합 지식을 생산해내는 연구소 성격의 랩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랩 중심은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랩 중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 향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감성”과 만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¹⁰⁾ “21세기에는 문화의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세계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광주광역시가 주관)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분과의 문순태 위원장(소설가)이 4월 12일의 회의에서 전당 콘

인의 감성을 지배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은 역으로 세계인의 감성을 지배하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도시나 국가가 21세기의 문화의 주도권을 잡는 도시나 국가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¹¹⁾

예를 들어 지금의 융·복합 지식이 감성의 공명(共鳴)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로 거듭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본다. 이 경우 전당은 ‘새로운 지식 창출의 집현전’도 아니고 유물과 작품 중심의 박물관도 아니다. 관람객의 감성이 지적인 사실과 만나 공명하는 공간이 된다.

‘지식과 감성의 만남’으로 기획된 민주인권평화기념관(가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민주평화교류원에 들어설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은 5.18의 현장인 구 전남도청에 들어서는데 만큼 그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과 세계인에게 전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해주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당시의 쟁점은 “광주와 광주시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5.18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전파가 이 기념관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묻어나야 하는 것인가?”였다. 그리고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콘텐츠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1980년 5월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재현하는 ‘지식적인 방식’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포괄하는 역사적 기억의 문화예술적 승화”(즉 감성)의 방식을 선택하였던 사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¹²⁾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적 승화' 즉 감성적 접근의 방식은 내적으로 세대와 지역에 따른 시각의 폭을 최소화 시키고 외적으로 더 많은

콘텐츠의 구체성 미흡과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식과 감성의 만남을 제안한다.

11) 류재한, 2012, 『문화 그리고 도시』, 도서출판 이안, 3~4쪽.

12) 류재한, 2012,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기능』, 『문화 그리고 도시』, 도서출판 이안, 225쪽.

세계인이 소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감성적 접근의 콘텐츠는 5.18의 가치의 현재화와 세계화 즉 보편화를 담보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예로 미국의 홀로코스트기념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의 전시방식을 들 수 있다. 이 기념관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지적”으로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전시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기념관의 '다니엘 스토리'와 신발을 이용한 작품의 전시는 유대인 학살의 비극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줌과 동시에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¹³⁾

이는 역사적 지식과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감성의 만남이 보편성을 지닌 가치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식”과 “감성”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전시는 관람객에게 대중성과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커다란 장점일 수 있다.

3. ‘누가 채울 것인가’: ‘광주’와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그동안 준비해서 발표한 콘텐츠 종합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제기의 핵심은 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요약된다. ‘누가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는 것은 기획과 운영의 주체와 전략 부재의 문제를 노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개관만을 의식한 콘텐츠

13)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내·외 유사사례 모음집』, 130~131쪽.

의 개발에만 무게를 두고 차후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는 치밀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기획 프로그램의 준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누가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우리가 콘텐츠를 다 채운다’라는 중심논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즉 문화패권주의의 덫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말 자체가 문화 패권주의적 함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우수 문화도시들이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콘텐츠를 다 채우겠다고 한다면 더욱더 문화패권주의적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광주중심’ 그리고 ‘한국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중심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예술기관은 탈중심주의와 탈장르로 특징지어지는 기관들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탈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아시아 각국의 다양성과 혼합성을 반영하는 기관이다.

이처럼 탈중심적 복합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차별성을 공존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다는, 이를테면 이전의 중심논리를 해체하고 새로운 인식의 틀을 짚는 맥락을 갖는다.”¹⁴⁾

따라서 이러한 탈중심주의적 복합문화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3대 목표 중의 하나인 “아시아동반성장”을 고려해 “아시아”가 콘텐츠를 ‘함께’ 채워야 한다.

14) 박신의, 2005, 『풍피두센터, 복합문화공간의 새로운 지평』, 『도시+문화+인간』(제2회 아시아문화심포지움), 400쪽.

다시 말해서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거나 활용하여 콘텐츠화하고 전당에 전시하는 것을 아시아 각국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누가 채울 것인가’의 주체가 ‘우리’(광주 중심 혹은 한국 중심)가 아닌 ‘아시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동반성장이며 “문화원조”이기도 하다. “문화의 원형(original form+archetype)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원형성, 잠재성, 활용성)를 찾아내어 매체(on-off line)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¹⁵⁾의 능력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아시아 국가와 함께 그들의 문화원형과 문화요소를 콘텐츠화 해주는 것 자체가 동반성장이며 문화원조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당에서는 다문화의 통합성을 이루고 다양한 문화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에 시공을 초월한 아시아 각국 문화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복합문화예술기관의 정체성이자 기능인 것이다.

4. ‘어떻게 채울 것인가’: 교류

또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우리(광주중심과 한국중심)가 아닌 ‘아시아’가 함께 채워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여기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스펙트럼은 좁아진다. ‘어떻게’는 바로 ‘교류’를 통해서이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즉 문화자원과 콘텐츠의 교류를 통해서 전당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3

15) 심승구, 2005, 『한국 술문화의 원형과 콘텐츠화』, 인문콘텐츠학회 학술 심포지엄 발표자료집.(최연구, 2006,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출판사-살림지식총서 217, 58쪽에서 재인용).

대 정책목표 중의 으뜸인 아시아문화교류도시의 교류의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는 사람과 지역 그리고 장르를 횡단하는 교류를 소통의 원천으로 삼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께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의 전시방식은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루브르 박물관처럼 국가가 소장한 컬렉션을 국가의 일방주의와 중심주의에 따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소장한 민속품을 해당 국가가 가져와 “함께” 전시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께브랑리의 박물관은 자신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속품을 소장한 해당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획 의도와 전시방향에 맞는 전시품을 지원받아 전시한다. 바로 탈중심적인 협업으로 께브랑리 박물관은 콘텐츠를 채우고 있다.

이처럼 전당 내에서 소통을 위한 교류가 거듭되면서 창조가 반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는 상생하며 풍요로워지게 된다. 전당은 교류를 소통의 원천으로 삼아 국가 간 도시 간 경계를 가로질러 연결시킬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문화콘텐츠의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V. 나오기

본 연구의 목표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4월 2일 발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의 분석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독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문화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수정과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콘텐츠의 ‘창조적인’ 구축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

는 것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분석의 과정에서 시기(특히 2011년과 2013년)에 따라 전당의 역할과 콘텐츠가 변화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2011년의 <아시아 문화예술 공동의 집>으로서의 전당은 ‘아시아 문화예술의 발전소’로서, 그 콘텐츠는 아시아의 문화예술(특히 5개 권역의 예술커뮤니티의 문화예술)을 소재로 가공된 콘텐츠이다. 반면에 2013년의 <지식의 야생정원>으로서의 전당은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창조자들의 집”으로, 그 콘텐츠는 융·복합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이다.

종합계획의 분석 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의 문제점은 ‘콘텐츠의 구체성 부재’와 ‘콘텐츠의 난해성’으로 요약된다. 지금의 콘텐츠 종합계획은 콘텐츠라기보다는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이며 ‘방향’에 불과하다. 콘텐츠를 담을 그릇과 방향으로 제시되었을 뿐, 이 그릇에 담길 구체적인 콘텐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지금의 콘텐츠 종합계획은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콘텐츠의 난해함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당의 콘텐츠가 지식 특히 융·복합의 지식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전당의 콘텐츠가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나는 ‘결과로서의 콘텐츠’가 아니라 지식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렵고 난해해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방안은 지금의 종합계획의 수정과 보완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콘텐츠의 창조적인 구축방안의 핵심은 네 가지 과제(즉 운영인력 확보, 대중성 확보, ‘누가 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운영인력의 확보의 과정은 세부사업들이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므로 ‘그 ’그릇‘에 담길 콘텐츠를 다루고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자와 같은 운영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시된다.

두 번째 과제는 ‘대중성’의 확보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감성”과 만나게 하는 방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누가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문화패권주의의 덫을 피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우리가 콘텐츠를 다 채운다’라는 ‘광주중심’과 ‘한국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중심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해결이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어떻게’는 바로 ‘교류’를 통해서이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즉 문화자원과 콘텐츠의 교류를 통해서 전당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당 콘텐츠의 창조적인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질 좋은 콘텐츠가 관람객(문화창조자와 일반 향유자 모두)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를 기획함에 있어서 인문계와 예술계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예술경영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해야 한다. 기획 단계부터 문화향유 촉진 마케팅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아시아문화개발원, 2013년 4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내·외 유사사례 모
음집』
- 아시아문화개발원, 2013년 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위한 콘텐
츠 구성 및 운영 로드맵 2013-2015』.
- 김영기, 김종현, 류재한, 정근식, 『광주복합문화센터를 찾아서』, 전남대
학교 출판부, 2003.
- 류재한, 『문화 그리고 도시』, 도서출판 이안, 2012.
- 박신의, 2005, 『풍피두센터, 복합문화공간의 새로운 지평』, 『도시+문화+
인간』 (제2회 아시아문화심포지움).
- 아시아문화전당 국제 컨퍼런스 발표 자료집, 2013, 『지식의 야생정원-새
로운 사회를 위한 아시아문화의 가능성』.
- 최연구, 2006,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주)살림출판사-살림지식총서
217.

투고일: 2013. 05. 24 심사기간: 2013. 05. 27~2013. 06. 10 게재확정일: 2013. 06. 14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ntents of Asian Culture Complex focused on “the Comprehensive Contents Plans”

Ryu, Jae-H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Contents Plans” (hereinafter referred as CCP) published by IACD on April 2, 2013,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that could be found in the establishment of unique and universal culture contents of the Asian Culture Complex (hereinafter referred as ACC) by providing alternatives on how to correct and supplement culture contents in a creative way.

When we compared the analysis of CCP of ACC, focused on the period 2011 and 2013, we could find that the role of ACC and its contents has been changed based on the analysis of Comprehensive Contents Plans of ACC.

Until 2011, ACC as a shared space for Asian culture and arts has been designated as the power-generator of Asian culture and arts, focusing on the contents introduced from the Asian culture and arts divided by major five areas. While in 2013, the motto of ACC has been changed into “Savage Garden of Knowledge”, and its vision and value has been set up as in Space of cultural creatives, connecting the world to create contents through the creative collective intelligence.

The very problem of the ACC from the analysis of CCP can be

summarized into the lack of contents' concreteness and difficulties to understand it. The current version of CCP is just a container to hold contents and merely a direction with no concreteness. Thus it can be concluded there is no concrete CCP in this version.

A difficulty to understand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CCP includes the formation of creative collective intelligence.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contents plan based on the amendments and revisions of CCP.

The primary task in the course of amending and supplementing contents is to secure operating personnel. Since the sub-projects are just a matter of container to hold contents, so it is necessary to recruit project managers who can control and operate contents in the container.

The secondary task is to secure popularity. As an alternative to this task, the artistic sensitivity should be included based on the knowledge.

The third task is who will be the main agent to fill those contents. It will help us escape from culture hegemonies by deviating from Gwangju-localism and Korean-centered mind.

The last task is how we fill the contents. The methodology "how" can be achieved through exchange among Asian countries to fill the proper and creative contents in ACC. Since higher quality contents can attract audiences including culture creator and its enjoying person, we hav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preparing for creative contents construction.

Key words: Asian Culture Complex, Comprehensive Contents Plans, Savage Garden of Knowledge, concreteness, popularity, sensitivity

‘고분객(孤憤客)’의 신악(神岳), 무등산 -이은상의 「무등산 유기」 고찰

박 찬 모*

- I. 서언
II. 무등산행:
 조선일보사의 향토문화조사사업
- III. 무등산행 정조:
 ‘고분객의 비탄’과 비나리
- IV. 결어

【국문초록】

1938년 조선일보사 출판사 주간을 역임하고 있던 노산 이은상은 조선일보의 ‘지령(紙齡) 6000호 돌파’와 ‘혁신 5주년’을 기념하여 추진된 향토문화조사사업의 전남지역 조사 책임자로 무등산에 올랐다. 증심사로 입산하여 김덕령의 생가가 있는 충효리로 하산했던 4박 5일간의 무등산행 기록은 「무등산 유기(遊記)」라는 제하로 동년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다. 이은상의 무등산행은 중일전쟁 이후 강화된 일제의 언론탄압과 조선일보사의 편집·경영방법 전환 이후에, 그리고 그의 조선일보사 사직 전에 이뤄진 산행이라는 점에서 1930년대 후

*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HK교수

반 그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행문이다.

『무등산 유기』는 이은상의 개인적 산행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다른 산행 기행문들과 변별된다. 이 기행문에 산기적(山記的) 서술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향토문화조사사업을 포함한 조선일보사의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을 짐작케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등산행에서는 사색적 성찰과 통찰이 다소 결여되어 있으며 아울러 충효리 방문에서 잘 드러나듯 고분객(孤憤客)의 정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악화된 시국과 그에 따른 민족적·실존적 위기의식과 그에 따른 분노와 서글픔으로 윤패된 이은상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분객의 정조에도 불구하고 천제등과 입석대·광석대의 총석군 등에서 천신 사상의 유적을 통해 천신을 호출하고, 그 ‘임’을 향한 비나리를 통해 자신의 염원을 기원하고 있음은 경시할 수 없다. 그의 염원이 고분객의 정조를 극복할 만한 구제적(救濟的) 제의(祭儀)로 이어지는 못했지만 천신 사상의 편재성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무등산행을 국토순례적 산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무등산 유기』는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 악화된 객관적 정세 속에서도 천신 사상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지식인의 자의식과, 과거 역사에 의탁하여 현실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삼키고 있던 언론인과 시조시인으로서의 윤패된 심경이 잘 드러난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이은상, 국토기행문, 산악순례, 신약, 무등산, 천신 사상, 향토문화조사사업, 조선일보사

I. 서언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은 시조시인이자 언론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28년에 창간한 기독교계의 월간종합지인 『신생』의 편집장을 시작으로, 동아일보사 기자, 『신동아』와 『신가정』의 편집인, 조선일보사 출판부 주간을 지냈으며, 해방 이후에는 호남신문사 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은상은 1932년 시조시집인 『노산시조집(鷺山詩調集)』을 발간하였다. 그의 시조에 흥난파, 박태준, 김동진 등 젊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임으로써 ‘유명세’를 타게 되고,¹⁾ 문단 내부에서의 호평도 이어졌다. 이은상은 임화와 함께 조선 문단 내 “지보(至寶)의 쌍벽(雙璧)”²⁾으로 그의 시편은 “시조부흥운동의 결정체”³⁾로 일컬어졌던 것이다. 삼천부가 넘는 판매량을 돌파한 『조선사화집(朝鮮史話集)』(1931)의 “호기록”과 『노산시조집』의 3판 인쇄⁴⁾는 당시 그의 유명세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33세의 어린 나이에 조선일보사사에 편집고문으로 입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유명세 덕택이었다.⁵⁾

1)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2004, 『조선일보 사람들 -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스중앙, 429쪽.

2) 안재좌, 1933. 3, 『신구문인(新舊文人) 언파레트』, 『삼천리』 제5권 제3호, 79쪽.

3) 피천득, 1932. 5. 15, 『『노산시조집』을 읽고』, 『동아일보』.

4) 1935. 10, 『서적시장조사기(書籍市場調査記)』, 『삼천리』, 제7권 제9호, 137쪽.

5) 조선일보사 사장이었던 방응모는 젊은 이은상을 당대 최고의 문필가였던 이광수처럼 성장할 문인으로 평가하여 그에게 입사 제안을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앞의 책, 429쪽. 또한 김동환은 초병정(草兵丁)이란 필명으로 1933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신문전(新聞戰)의 결과를 두 신문사의 자본력(資力)과 인재, 그리고 장래 계획을 통해 예측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인재들을 “수상급내각(首相級內閣)이요 황금내각(黃金內

그렇지만 이은상이 해방 후 한국산악회의 회장을 오랜 기간 역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⁶⁾ 금강산을 네 차례나 오르고, 묘향산(1931), 설악산(1933), 한라산(1937), 무등산(1938), 지리산(1938) 등 한국의 주요 산악을 두루 올랐던 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산악회 활동은 쉽게 수궁할 수 있다.⁷⁾ 그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68년, 한국산악회는 정부수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국토애의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앙양하기 위해 20개 명산 순례 사업을 진행하였다.⁸⁾ 이는 지리산행에서 “조선의 문화, 조선의 정취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산악을 이해하고 또 연구함이 가장 긴급(緊重)한 일사(一事)”⁹⁾라고 했던 그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것으로서 산악 순례를 통해 민족문화를 이해하고 국토를 예찬하고자 했던 일의관지한 그의 입장이 투영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圈)”으로 칭하며 그 필진 중의 하나로 이은상을 꼽고 있다. 초병정(草兵丁), 1933. 10, 『대란전중(大亂戰中)의 동아일보 대 조선일보 신문전』, 『삼천리』, 제5권 제10호 참고.

6) (사) 한국산악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은상은 4·7·8·9·10·11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그 기간은 1967~1970년, 1973~1982년으로 총 12년에 달한다. (사)한국산악회 <http://cac.or.kr/> 참고.

7) 그의 금강산행은 『금강영(金剛影)』(『신생』 제3권 제9호, 1930. 9)과 『금강행』(『동아일보』, 1930. 9. 12~9. 19, 총 7회), 묘향산행은 『향산유기』(『동아일보』, 1931. 6. 11~8. 7, 총 35회), 설악산행은 『설악행각』(『동아일보』, 1933. 10. 15~12. 30, 총 37회), 한라산행은 『한라산 등반기』(『조선일보』, 1937. 7. 27~9. 23, 총 32회), 지리산행은 『지리산 탐험기』(『조선일보』, 1938. 7.30~9. 24, 총 34회)로 각각 연재되었다. 한편 그의 한라산행은 『한라산: 탐라기행』(조선일보출판사, 1937)으로 간행되었는데, 한라산행과 관련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하고자 한다.

8) 『정부수립 20주년 기념 20개 명산 순례』, 『매일경제』, 1983. 8. 6. 이때 선정된 명산은 다음과 같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계룡산, 모악산, 내장산, 무등산, 가야산, 팔공산, 운문산, 한라산, 월출산, 울릉도 성인봉이다.

9) 이은상 1938. 8. 4, 『지리산 탐험기』, 『조선일보』.

이은상은 해방 이후에 자신의 청춘 시절을 회고한 글에서, 아버지를 여읜 이후 생긴 “신경쇠약증”으로 인해 자신의 ‘방랑’이 시작되었으며, “외로운 방랑심”에 “젊은 시절의 울분”과 “조국에의 정열”이 덧붙여져 “국토순례”가 시작되었다고 쓴 적이 있다.¹⁰⁾ 그의 회고에 따르자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잃은 외로움과 그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민족적 울분과 정열에서 국토순례 혹은 산악순례가 시작된 것이며, 곧 부성성(父性性, 아버지=조국)의 상실과 그에 따른 회복의 의지가 순례로 이어졌던 것이다.¹¹⁾ 그렇지만 부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국토순례가 국권상실의 기간인 일제강점기 내내 “애착 동경 경앙”의 “순례심”¹²⁾으로 시종여의하게 지속 내지 허용될 수는 없었다. 미나미지로(南次郎) 총독의 취임과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서 내선일체론을 공식화하고 이에 맞추어 사상과 정보의 통제를 일층 강화하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신교화운동과 전시협력운동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¹³⁾ 곧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일본 국민

10) 이은상, 1971, 「청춘 20년기」, 『오늘도 답을 쌓고』, 미문출판사, 27쪽.

11) 박찬모는 이은상의 지리산행을 부성성을 회복하는 자기 구제(救濟)의 관념적 여로로 규정하고 있다. 박찬모, 「자기 구제의 ‘제장(祭場)’으로서의 대자연, 지리산 -이은상, 2009, 『지리산 탐험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참고. 국토기행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구인모, 2004, 「국토순례와 민족의 자기구성」, 『한국문학연구』 27호; 서영채, 2004,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24호; 복도훈, 2005, 「미와 정치: 국토순례의 목가적 서사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2호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은상에 대한 연구로는 노산문학회, 1976, 『노산문학연구』, 당현사; 노산문학회, 1982, 『노산의 문학과 인간』, 햇불사; 신용대, 1984, 「이은상 시조의 연구」, 개신어문연구 3집; 박상곤, 「이은상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복근, 1998, 「이은상 시조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12) 이은상, 1927. 9. 11, 「육당의 근업 백두산기를 넘고」, 『동아일보』.

13) 최유리, 1995, 「일제 말기(1938-45년)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이화

정신 함양 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일본과의 변별적 표지를 내세우는 행위는 ‘비국민적 태도’로서 쉽사리 용인될 수 없었던 것이다.¹⁴⁾

이은상은 1938년 7월 조선일보사에 돌연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¹⁵⁾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일보사는 이은상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필 서춘의 의견에 따라 ‘일본군, 중국군, 장개석 씨’하던 용어를 ‘아군, 황군, 지나 장개석’ 등으로 고치고,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논설을 게재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이같은 편집방침 전환에 대해 조선일보사 안팎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이 때문에 주필과 편집국장 사이가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지만 편집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¹⁶⁾ 이은상의 사직은 이렇듯 일제의 언론탄압과 함께 조선일보의 편집 및 경영 방침의 변화에 대한 실존적 응전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은상의 산행기행문 중 『무등산 유기(遊記)』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다. 즉 단군에 대한 귀명(歸命)을 희원하며 혈연적 민족애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¹⁷⁾ 최남선의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을 바탕으로 조선의 고신앙을 조선 민족의 본의로 삼던¹⁸⁾ 그가 중일전쟁의 발발과 조선일보의 편집방침의 전환 이후 어떤 자세로 산악순례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고.

14) 일제는 「조선일보사의 비국민적 행위에 관한 건」에서 시국기사 작성을 거부한 이은상의 태도를 ‘비국민적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앞의 책, 432쪽.

15)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앞의 책, 431~432쪽.

16) 장신, 2005,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2005년 봄호(통권 70호), 185~188.

17) 대표적으로 이은상의 묘향산행을 꼽을 수 있다. 이은상은 단군굴에서 ‘귀명가’를 통해 단군과 조우하고 귀명이라는 제의를 통해 ‘자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더불어 혈연 공동체의 결속을 희원한다. 이은상, 1931. 7. 25, 「향산유기」(제25신), 『동아일보』.

18) 이은상의 설악산행과 한라산행 등을 예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 상론하고자 한다.

에 임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곧 1930년대 후반 이은상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용한 기행문인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이은상의 『무등산 유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사상적·물리적 탄압과 민족적·실존적 위기에 처한 이은상의 내면 세계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무등산행의 탐승 경로와 일정, 그리고 산행 배경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무등산 유기』에 나타난 주된 정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3장에서는 이은상의 다른 산행 기행문과 『무등산 유기』를 비교함으로써 1930년대 전반과는 변별되는 그의 산행 태도 혹은 정조를 통해 무등산행에서 드러난 그의 내면 세계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II. 무등산행: 조선일보사의 향토문화조사사업

이은상이 광주읍을 떠나 “광주, 화순, 담양 삼도의 배경이 되어 있는 고래(古來)의 성산(聖山) 신악(神岳)” 무등산을 찾은 것은 1938년 3월 7일이다. 그는 무등산 초입에 있는 증심사(證心寺)에서 1박을 한 후, 3월 8일 “무등산 속은 귀신가터 안다는 어떤 노인 한 분”(3. 16)을 향도(嚮導)로 삼아 약사암-천제(天祭)등-중머리재-물통골-용추(龍湫)-서석대(瑞石臺)-입석대(立石臺)-장불재-지장암(地藏菴)-보조석굴(普照石窟)을 경유하여 광석대(廣石臺)와 규봉암(圭峰庵)에 이른다. 사흘째 되는 3월 9일에는 지공(指空)너덜-나옹굴(懶翁窟)-상봉(上峰) 입석-함품이재-주일동(鑄鈿洞)-원효폭(元曉瀑)을 거쳐 원효사(元曉寺)에 도착한다. 나흘째인 3월 10일에는 간밤에 내린 눈 때문에 산승(山僧)들이 그의 출발을 만류하지만 그는 원효사를 떠나 충효리(忠孝里) 김덕

령(金德齡)의 마을로 향하고, 충효리에서 하루를 머문다. 증심사에서 시작하여 충효리에서 끝나는 그의 4박 5일 간의 무등산행은 『무등산유기』라는 제하에 1938년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¹⁹⁾

그렇다면 그가 무등산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 본사 주최 조선향토문화조사사업의 제일보로 전남의 수도인 광주에 도착되기는 3월 6일이었습니다. 유지 수씨(數氏)를 역방(歷訪)한 결과, 부내(府內)의 유적조사는 뒤로 밀고 먼저 무등산을 답파기로 하였습니다. 칠일 오후. 산하(山下)의 증심사까지 자동차로 달려 산문에 이르니 때는 석양이었습니다. 각지의 문화를 조사하는 동안 오늘은 어디서 무얼하는가 하는 궁금이나 풀어드리기 위하여 틈틈이 적어 보낼 나의 졸렬(拙劣)한 행각단신(行脚短信)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노산(鷲山)

제1일

무등산은 광주부에서 동으로 십리 허(許)에 잇는 전남 육내(陸內)의 제일고산으로, 광주, 나주, 화순, 담양 사군(四郡)의 배경이 되어 잇는 고래(古來)의 성산(聖山) 신악(神岳)입니다.

증심사는 무등산 초입의 명찰로서,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입니다.(3. 15)

이은상은 조선향토문화조사사업을 위해 3월 6일 광주에 도착한 후 3월 7일 오후 산입에 도착하여 증심사에 머문다. 첫 번째 ‘행각단신’에서는 광주 부내의 유적조사를 뒤로 미루고 무등산을 찾게 된 것과, 조사 경과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음을 프롤로그 형식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 무등산의 위치와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

19) 이은상의 4박 5일간의 여정은 1924년 무등산을 찾았던 최남선의 반로(返路)에 해당된다. 최남선은 충효리-원효사(1박)-입석대-지공너덜-나옹토굴-지장암-광석대-규봉암-상봉(천왕봉)-장굴재(장불재)-물통-증심사(1박)-천제등-입석대-지공너덜-천제봉-규봉암-화순 장복리로 이동한다. 최남선이 지공너덜을 다시 오르는 까닭은 그곳의 신목인 향나무를 보기 위해서이다. 최남선, 1973, 『심춘순례』, 『육당 최남선 전집6』, 현암사.

모두 부분을 통해 그의 무등산행이 조선일보의 향토문화조사사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1938년 신년호 사고(社告)를 통해, ‘지령(紙齡) 6000호 돌파’와 ‘혁신 5주년’을 기념하여 ‘조선특산품전람회’와 ‘극동 시국지도 증정’, 그리고 ‘향토문화조사사업’이라는 ‘삼대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향토문화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2월 16일 조선호텔에서 편찬위원회를 열어 “전조선 십삼도 방방곡곡을 일일이 답사하여 산천(山川) 명승고적 민속 기타 각 방면의 문화자료를 수집”²⁰⁾하는 계획안을 설명하고, 편찬위원 명단과 조사요목을 고지한 후, 조사결과를 전 13권으로 발간할 것을 결정한다. 이를 토대로 3월 5일에는 사업위원과 더불어 제 1회 조사지역과 조사책임자를 발표하는데,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에는 이은상(조선일보 출판부 주간)이, 경기도는 문일평(조선일보 편집국 고문)이, 평안북도는 황의돈(조선출판부 촉탁)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¹⁾ 이은상이 『무등산 유기』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향토문화조사사업은 이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는 조선일보 창간 18주년이 되는 3월 5일 전라남도로 향했던 것이다.²²⁾

그런데 프롤로그 형식의 글을 제외하고 보자면,²³⁾ 그가 산의 위치를 글의 도입부로 삼아 ‘산기적(山記的) 서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20) 『본사주최 조선향토문화조사의 대사업』, 『조선일보』 1938. 2. 17.

21) 『본보지령 6000호 혁신오주년 기념 조선향토문화조사사업』, 『조선향토문화조사 사업착수의 제일보』, 『조선일보』, 1938. 3. 5.

22) 『조선향토문화조사 사업착수의 제일보』, 『조선일보』, 1938. 3. 6.

23) 1954년 영창서관에서 간행된 『노산문선』에는 『무등산 기행』이란 소제목으로 『무등산 유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곧장 “제1일”로 시작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장으로 “이른 봄, 3월 7일의 오후, 광주읍을 떠나, 산하의 증심사까지 자동차로 달려, 산문에 이르니, 때는 석양”이란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이은상, 1954, 『노산문선』, 영창서관, 124쪽. 본고에서는 신문 연재물과 단행본을 동시에 참고하고, 연재물을 인용할 경우 본문에 날짜를 병기하고 단행본의 경우에는 각주로 표기하고자 한다.

을 알 수 있다.²⁴⁾ 아울러 기행문 전체를 검토하더라도 산행의 개인적 목적과 의의 등을 서술하는 ‘신변적(身邊的) 서술’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나) … 나는 지금 이 밤차를 타고 태백산으로 갑니다. 북으로 태백산(太白山)을 차자 정례(頂禮)를 드리려 갑니다. 혹 어떤 이 있어서 태백산 근참(觀參)이 원일이나고 물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는 그를 위하여 대답하여 드리지요.

“태백(太白)님을 보인 후에 거기서 새나라를 세우려고 하라”고

“그리고 그 새나라의 국민이 되려는 것이라고”

태백어(太白語)로써 몸을 살리고 태백혼으로써 마음을 채운, 그리고 그박계는 아무것에도 영광(榮光)과 안락(安樂)을 늦기지 아니하는 태백국의 순결한 국민이 되려가는 내마음은 지금 기원(祈願)과 희망과 자존(自尊)과 우월(優越)의 정으로 가득하였습시다.²⁵⁾

(다) 그 모든 것보담도 설악은 우리 옛 선민(先民)의 오랜 존승을 입어온 신산(神山) 성역(聖域)이라 (….) 그 영적(靈跡)을 더듬고 그 활력을 얻어 ‘조선’ 민족정신을 재인식하자, ‘조선’ 민족신념을 재수립하자, ‘조선’ 민족문화를 재건설하자 하는 거기에 더 큰, 더 깊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²⁶⁾

(라) 오늘은 우리가 다른 아무것보담도 ‘하늘’의 묘문(妙門)을 들어서서 ‘하늘’의 공덕을 찬미하기로만 작정한다는 점에서 한라산으로 간다함이다. 동방의 오랜 민물(民物)이 ‘하늘’에 모태를 두고 은총과 의지 아래서 세세대대(世世代代)로 전통(傳通)되고 유포되어 온 것이며 하나로부터 백까지의 모든 자랑과 살아온 자취가 다만 ‘하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일체의 연원(淵源)이오 일체의 폐부(肺腑)요, 일체의 비약(秘鑰)이요,

24) 김대현은 유산기의 도입부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산의 위치부터 알리면서 오리게 된 동기를 알려주는 경우를 산기적 서술로, 개인사적인 말들부터 시작하여 산에 오르게 된 동기를 적는 것을 신변적 서술이라고 지칭한다. 김대현, 2001, 『20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6집, 한국언어문학회, 6쪽.

25) 이은상, 1931. 6. 11, 『향산유기』, 『동아일보』.

26) 이은상, 1933. 10. 15, 『설악행각』, 『동아일보』.

일체의 보고(寶庫)인 저 ‘하늘’의 크고 넓은 의도 앞에 나아가 난사의(難思議)한 채로 그 선명(宣命)의 한 끝머리를 듣고 보고 체감(體感)해 얻으려는 것일 다름이다.²⁷⁾

각각의 인용문은 묘향산과 설악산, 그리고 한라산을 오르기 전에 이은상이 자신의 산행 목적 혹은 의의를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나)에서는 ‘태백국의 순결한 국민’이 되고자 한다는 경건하면서도 들뜬 희열의 정조가, (다)에서는 ‘신산 성역’인 설악산의 영적을 더듬어 조선의 민족정신과 민족신념, 그리고 민족문화를 각인하고자 하는 고양된 의지가, (라)에서는 ‘하늘산’에서 그 선명을 체감하고자 하는 민족적 소명 의식이 표명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를 읽고 그의 글에서 “순례심을 취하고자 함은 필자의 숨길 수 업는 마음”이라며 “애착 동경 경앙 이와 갓흔 마음은 순례자의 반듯이 가져야 할 귀한 마음”²⁸⁾이라고 언급했던 감상평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무등산 유기』에는 이와 같은 ‘순례심’ 혹은 산행의 개인적 목적 등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우선은 향토문화 조사사업의 목적과 의의가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충분히 홍보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업의 취지와 의의를 별도로 부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문화의 재수립’을 주창하던 그가 “조선문화 정리, 문화수립에 대한 우리의 적층(赤衷)을 발현코저하”²⁹⁾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점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3회 연재부터 ‘행각단신’이란 제명이 ‘향토문화를 찾아서’로 교체되고, 유적조사를 미

27) 이은상, 1937, 『한라산: 탐라기행』, 조선일보출판사, 146~147쪽.

28) 이은상, 앞의 글, 「육당의 근업 백두산기를 넘고」.

29) 『향토문화조사의 의의』, 『조선일보』, 1938. 3. 6.

루고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졸렬한 행각단신”을 기록한다는 그의 언급을 고려하자면, 그의 무등산행이 향토문화조사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산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업의 의의를 재론하지 않는 까닭에 대한 해명은 되지만 산행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그 사업의 의의와 목적, 혹은 그 효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삼대 계획을 면밀히 보자면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극동 시국지도 증정’이라는 사업의 적절성 여부다. ‘지나사변’ 후 절박해져 가는 시국과 그것의 ‘장기전’에 대비하여 이 시국을 “일폭료연히 할 만한 지도의 상비”가 필요한 만큼 지도 제작을 통해 “용이히 극동 시국을 해부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며, 그 지도가 “독자제위의 책상머리를 장식(裝飾)키에 가장 뜻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³⁰⁾ 이러한 지도 제작과 배포는 전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비판보다 전쟁 과정 혹은 추이에 초점을 맞추려는 조선일보사의 논조와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상하이함락이나 난징함락 등 전쟁에 큰 기복이 있을 때마다 신문부수가 증가했다는 점³¹⁾은 동아시아 지도의 제작·배포를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중정신운동』이라는 사설을 통해 견인불발(堅忍不拔), 진충보국(盡忠報國), 상하일심(上下一心), 거국일치(擧國一致)의 국민정신을 갖출 것 등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던 형편이었던 만큼,³²⁾ ‘극동 시국지도’라는 시각적 표상이 제국의 심상지리를 공고히 하고 전시동원체제를 정당화하는 데에 일조

30) 『금일로 본지 지령 육천호』, 『조선일보』, 1938. 1. 25.

31) 장신, 앞의 글, 188쪽.

32) 조규태, 2009, 「1930년대 한글신문의 조선문화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1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42~247쪽 참고.

하리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아울러 ‘조선특산품전람회’ 또한 “계림팔도의 력사있는 특산품”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에 공헌코저”³³⁾한다는 목적의 타당성과 그 흥행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다. 1938년 4월 25일에 열린 개회식에 일장기와 ‘기미가요’, 그리고 황국신민서사가 등장하고 있는 점은 이 행사가 식민지 당국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개최되었음을 짐작케 해준다.³⁴⁾ 아울러 전람회 기간에는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향토연예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부민관에서는 팔도 여류명창대회, 고전무용대회, 판소리 대회 등의 구악가무대회(舊樂歌舞大會)가, 조선일보 북편 가설무대에서는 산대도감, 봉산탈춤, 꼭두각시 놀음, 농악 등의 민속예술대회가 열렸다.³⁵⁾ 조선향토연예대회를 통해 “민속문화의 진가를 일반에게 이해”³⁶⁾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향토오락 진흥운동의 결과 ‘향토연예대회’가 ‘향토’를 떠나 ‘대회화’되고 ‘무대화’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탈춤과 같은 민속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무대화시키는 행위가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박람회와 더불어 시행되었다는 점을 참조하자면³⁸⁾ 조선특산품전람회와 조선

33) 『금일로 본지지령 육천호』, 위의 글.

34) 손우승, 2007, 『일제강점기 풍물의 존재양상과 성격』, 『실천민속학 연구』 제9집, 실천민속학회, 320쪽.

35) 『특산품전람 향토연예대회 조선일보 주최』, 『동아일보』, 1948. 4. 26.

36) 『향토문화의 보존 향토 연예 대회의 의의』, 『조선일보』, 1948. 4. 27.

37) 김난주·송재용, 2011,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 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 양상』, 『비교민속학』 제44집, 비교민속학회, 415~416쪽. 손우승은 걸궁패의 공연 사진을 분석하여 공연자들이 전라도 걸궁패가 아니라 서울의 남사당패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 무렵부터 풍물이 전승맥락에서 이탈하여 존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손우승, 앞의 글, 321~322쪽.

38) 이상현은 ‘무대화된 민속’을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과 관련지어 해명하고 있다. 이상현, 2008, 『일제강점기 ‘무대화된 민속’의 등장 배경과 특징』.

향토연예대회를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과 별도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총독부가 이미 1920년대부터 조선문화를 지배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조선 관습, 문화, 사회 실태 등에 대한 문화정책적 조사를 본격화하며 향토성과 토속성을 강조하였으며,³⁹⁾ 30년대에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제정하여 조선의 고적에 대한 조사와 발굴, 보관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자면⁴⁰⁾ 향토문화조사사업의 의의를 “일제의 조선문화 말살 정책에 대항하는 민족적 사명감의 발로”⁴¹⁾라고 일의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신문 구독자수는 광고수주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대다수 독자들은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기사를 좋아하고, 이에 따라 1930년대 들어서는 신문의 핵심 상품이 저항이라기보다 일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조선’ 또는 ‘민족’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는 점,⁴²⁾ 아울러 신체제의 문화운동이 문학, 연극, 예술, 오락 등의 분야에서 표출되는 ‘조선의 정조’를 활용하여 조선민중의 일상생활이 신체제하에서 전체주의적으로 유지될 것을 도모하였다는 점⁴³⁾을 유념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향토문화조사사업이 조선인 독자의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전체주의적 동원의 기제로 활용될 소지도 많았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조선일보의 삼대 계획 모두가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과 직간접적으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598쪽.

39) 이지원, 「1920~30년대 일제의 조선문화 지배정책」, 『역사교육』 제75집, 역사교육연구회, 2000 참고.

40) 이지원, 1993, 「1930년대 민족주의계열의 고적보존운동」, 『동방학지』 Vol77-7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754쪽.

41) 「민족혼 일깨운 ‘향토문화 조사사업」, 『조선일보』, 2010. 2. 1.

42) 장신, 앞의 글, 174쪽.

43) 이지원, 2008, 「『삼천리』를 통해 본 친일의 논리와 정서」, 『역사와 현실』 제69집, 한국역사연구회, 158쪽.

로 연동된 사업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해방 후 이은상이 향토문화조사사업을 통해 발굴한 자료가 폐간과 동시에 분실되어 버린 것을 안타까워했던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⁴⁴⁾ 그러나 일제의 언론탄압, 조선일보의 편집·경영방침의 전환, 조선일보의 삼대 계획 등 일련의 시국변화와 조선일보사의 친일적 행보를 참조점으로, 향토문화조사사업이 개시된 지 4 개월여 만에 사업위원·편집위원·조사책임자였던 이은상이 돌연 사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보자면 그가 이 사업의 의의와 효용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이은상이 다른 산행과 달리 「무등산 유기」에서 산행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있으며, 무등산행에 나타난 그의 정조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Ⅲ. 무등산행 정조: ‘고분객의 비민’과 비나리

이은상이 무등산행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증심사이다. 편의상 사찰 혹은 암자 등지를 방문했을 때의 그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증심사에서 그는 부도와 탑비, 그리고 불상(금동 석가여래입상·금동보살입상·철제 비로자나불상)을 살펴본 후 증심사에 국보 세 점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찰 노릇’을 할 만하다고 소감을 밝힌다. 약사암에서는 철제약사여래를 통해 창건 내력을 유추하고 도분(塗粉)된 불상을 보고 민망함을 표한다. 그리고 지장암에서는 보잘 것 없는 경내 모습에 실망한다. 보조국사(普照國師)의 수신처로 알

44)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앞의 책, 430쪽.

려진 보조석굴에서는 “지저분한 내외 살림”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면서도 성승(聖僧)의 유적이 “복주는 자리”(3. 19)가 되었다며 느껴온 감회를 토로한다. 규봉암에서는 의상(義湘)과 순응(順應)이 창건했다는 견해를 옹호하고, 보조·진각(眞覺)·나옹이 주석(駐錫)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규봉암의 역사적 가치를 고평한다. 지공너덜에서는 지공(指空)이라는 명칭이 지공의 문하에서 법문(聞法)했던 나옹 선사 때문에 빛어진 와전(訛傳)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원효사에서는 사찰의 규모와 불상, 그리고 영자전(影子殿)의 여러 탕화를 주시하다 원효의 탕화에 경의를 바친다. 이렇듯 이은상은 각 사찰의 연혁과 여러 대덕 고승, 그리고 불교 예술(불상·탑비·탱화 등) 등을 고증적이고, 심미적인 시선으로 살펴보며 그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나는 등화(燈火) 앞에 단좌(端坐)하여 내 심중을 그윽히 살핍니다.

빠른 광음(光陰)에 나는 무엇을 행하였노? 나를 위하여서는 무슨 일을 하였으며 남을 위하여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고? 없다!없다! 읊습니다 나는 다만 진(塵)에 합하여 치(痴)를 이룬 것뿐입니다. 삼도(三途)의 고륜(苦輪)을 벗을 길이 업고 사생(四生)의 업해(業海)를 면할 길이 업습니다 고래로 공문(空門)에 들어 도를 얻은 이 얼마가 되리오마는 고취(苦趣) 속에서 장륜(長輪)하는 중생의 가련함이 여기와서야 늦기게 됩니다.⁴⁵⁾

(바) 과연 지금 들려오는 이 심산유곡의 물 소리 - 귀로 듣지않고 마음으로 들을수 있는 이 지극히 맑은 물 소리는 내게도 - 이 노둔(魯鈍)한 내 귀, 내 마음에도, 팔만(八萬) 성경(聖經)의 오묘(奧妙)한 진리를 설(說)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생각하매, 석가의 설법, 기독교(基督)의 교리가 어느 것이나 다 이 자연의 진리(말하자면 이 흐르는 물 소리)를 주석(註釋)한것, 번역한 것, 연의(演義)한 것,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온통 이것 하나의 부연(敷衍) 재록(再錄)뿐임을 알겠습니다.

45) 이은상, 1931. 6. 21, 『향산유기』, 『동아일보』.

아니 다시 더 생각해보면, 이 물소리와 같은 자연만으로도 족우족(足又足)한 것인데, 인간의 중언부언(重言復言)인 철학이며 종교며 예술이며 무엇무엇이 필경 소용없는 사족(蛇足)이라고도 하겠습니까.⁴⁶⁾

(사-1) 어느덧 산사에 밤이 깊었습니다. 노송 수죽(脩竹) 둘러 아래 밤 시내 울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중심의 경을 어루만짐은 진실로 복된 시간이라 하겠습니까.

...(중략)...눈감고 마음머리를/ 손끄트로 만지노라.(3. 15. 중심사)

(사-2) 밤 예불 소리와 함께 밝아오는 달빛이 오늘밤 나그네로 하여금 잠못들게 하나 봅니다.

...(중략)...인생의 타는번뇌를 식혀볼까 하노라.(3. 20. 규봉암)

(사-3) 산과 나무와 내와 집과 언덕과 구렁과 먼데와 가까운데가 온통 눈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여기 고하를 말할 것이며, 선악을 가릴 것이며, 유무를 판단할 것입니까. 다만 원용세계의 불사의 속에 제 몸과 마음이 잠겨있을 따름입니다.

...(중략)...있는지 없는지조차 아올 듯이 몰라라.(3. 26. 원효사)⁴⁷⁾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普賢寺)에서 하룻밤을 의탁하던 그는, 이숙한 밤 사중(寺中)의 고승들을 떠올리며 나와 남을 위한 행위도 없이 세상의 어리석음만을 쌓았으며, 그 때문에 삼도(地獄·餓鬼·畜生)의 운회와 사생(胎生·卵生·濕生·火生)의 업을 면하지 못하고 고뇌하는 자신의 삶을 자각한다. 그리고 설악산 봉정암(鳳頂庵)에서는 심산유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종교적 가르침이 자연의 진리를 풀어쓴 것에 불과하고 철학·예술·문학 또한 그것의 덧붙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보현사에서는 불교적 사색을 통해 자신은 물론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봉정암에서는 인문학의 본질적인 의미를 자연에서 찾는 통찰적 사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행문이 “기행문의 행세(行勢)”를 하려면 “인생에 대한 관조와 사관(史眼)과 시상(詩想)이

46) 이은상, 1938. 11. 28, 「설악행각」, 『동아일보』.

47) 이은상, 앞의 책, 『노산문선』, 149쪽.

한데 어울리고, 그것을 자가(自家)의 확호(確乎)한 인생관과 사회관 내지 생활관 우에 세워진 ‘타파스’(열)와 늦김으로 휩싸서 고가(高價)의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⁴⁸⁾이라는 그의 관점이 산사(山寺)에서의 사색적 성찰과 통찰의 모습을 묘출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사-1)~(사-3)에서는 (마)나 (바)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색적 성찰과 통찰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자연에 대한 완상과 그 느낌을 불교적 의장을 입혀서 서술한 것일 뿐 인용문에서 삶의 반성과 혜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그가 언표하고 있는 어휘로 대신하자면, 그것은 ‘고분객(孤憤客)의 비민(悲愍)’, 이것과 맞닿아 있다.

(아) 용추로부터 다시 올라와, ‘중사재’의 초원을 우상(右上)하기 약 오리에 자산(茲山) 명물의 하나인 서석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해금강을 바다의 서석산이라 하고 서석산을 육지의 해금강이라 하면 저 이름난 해금강을 보신 이는 짐작할 것입니다. 돌을 이미 그저 돌이라 부르지 안코 서석이라고 부른 것은 예찬이 뜻을 벌써 거기에 표한 것입니다마는 …(중략)… ‘서(瑞)’의 추상적인 것이 막연하여 인식이 불급(不及)하는 이를 위하여 구트나 ‘수정병풍(水晶屏風)’이라는 구상적인 표현법을 쓴대도 조کت 습니다.

수십장(數十丈), 수백간의 서석군 사이사이로 진달래나무가 봄오기를 기다려 고개키대로 내어밀고 있습니다. 제 철이 들면 서석병풍이 꽃그림으로 찰 것이니, 언제나 오를 수 잇는 광주 사람의 절로 바든 복이 결코 엷지 아니한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꼬춘 피지 아니해서도, 날가튼 고분객(孤憤客)을 위하야는 잔설 창태의 경(景)만도 비민(悲愍)의 은혜로운 위로가 됨을 깨닫습니다. …(중략)… 자연의 경도 이러한 때는 한 개의 신격적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무론(母論) 이 시간 이 사람의 마음 소치입니다. 웨 이제 여기 와 고분의 정이 이닥지도 복바치는지 나도 이를 모르겠습니다.(3. 18.)

48) 이은상, 1927. 9. 9, 앞의 글, 「육당의 근업 백두산기를 넘고」.

그는 서석대를 해금강(海金剛)과 비교하고 그것을 수정병풍(水晶屏風)으로 구상화한다. 그리고 서석군(瑞石群) 사이로 진달래가 움트는 것을 보며 광주 사람의 복을 부러워하며, 비록 잔설과 창태(蒼苔)가 덮인 서석이지만 그것이 고분객의 ‘비민’을 달래주는 위로가 된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분의 정”이 복받쳐 오르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부연한다. 이러한 ‘고분객의 비민’ 혹은 ‘고분객의 정’이 어디에서 연원하는 지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무등산 유기』로 한정해서 보자면 그 실마리는 충효리 방문에서 나타난다.

충효리는 무등산 ‘답과’의 마지막 여정지였다. 그는 원효사 산승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충효리를 찾고시픈 마음을 누를 길이 업”서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걸어 석양이 질 무렵 충효리에 도착한다. 그에게 충효리는 가동을 붙들고 김덕령 종손(宗孫)의 집을 묻는 것조차 “눈물이 압서 목을 메이는 마슬”이었다. 그는 무고(誣告)로 옥사한 김덕령의 일생을 회고하며 “통분(痛憤)한 심회”를 참지 못한다. 그 때문에 ‘김장군’의 ‘무의의(無意義)한 운명’과 “고상한 인격”을 “이조(李朝) 정치”에 비추어보고는, “무수한 김덕령이 갑업시 격긴 일”(3. 27)을 한탄한다.

(자) 나라를 근심하야 가슴을 태우다가 집을 박차고 민중 아페 나설 때 만민이 다 바라는바 잇서고 자기 또한 구든 신념과 빛나는 기백으로 젊은 가슴이 찾던 것이나 조선사회는 장군의 아페 또는 조선 자체의 아페 영원한 한을 주엇슬 뿐입니다.

이것이 과거 역사의 능사(能事)요 특장(特長)이었스니 여기 이 언덕 우에 불고 잇는 바람이 장군의 호흡과 함께 내 코에 미치매 겸(兼)하야 이대도록 맵고 사늘합니다. …(중략)… 물 하나 사이에 두고 김씨 정씨의 문중이 세거하는 곳이라 사이에 열린 옥전(沃田)들도 응당 그네들것이라 하고 물어보매 옛날엔 김씨것 아니면 정씨네(송강 정철 문중-인용자)것이더니 지금은 다 남의 것이 되었다 합니다.

때마침 가마귀떼들이 맞가에 나르기로 ‘舊時王謝堂上燕 飛入尋常百姓家’

라는 고시가 기억됩니다.

옛날엔 김씨 정씨의 빗가에 놀던 가마귀떼가 오늘은 무명한 집 사람들의
논 우에 날아다닙니다. 이도 하나 무상한 일이라 할까요. 서글픈 생각만
가슴에 찹니다.(3. 29)

김덕령의 종가(宗家)에서 하룻밤을 묵은 그는 이튿날 석저촌(石底村) 뒤편 산등성이에 올라 취가정(醉歌亭)을 둘러본다. 그는 이곳에서 김덕령의 절명사(絶命詞)를 인용한 후 다시 한번 “조선사회”가 김덕령과 “조선 자체의 아페 영원한 한을 주었”으며, 이것이 “과거 역사의 능사요 특장”이었다며 조선의 역사를 개탄한다. 그리곤 불어오는 바람에 김덕령과 자신의 호흡을 병치(並置)시키면서, 그 바람이 “맷고 사늘”하다며 둘이 처한 환경이 다르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광산 김씨와 연일(延日) 정씨의 옥전일 것으로 추측했던 땅이 다 남의 것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때마침 까마귀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자, 이은상은 당나라 때 시인인 유우석(劉禹錫)의 『오의항(烏衣巷)』의 구절을 빌어 무상함과 서글픔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충효리 방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김덕령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선 역사에 대한 ‘통분’과 개탄, 그리고 그러한 역사에 대한 서글픔이다. 이러한 정조는 실상 이은상의 처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언덕 우에 붙고 있는 바람이 장군의 호흡과 함께 내 코에 미치매 겸(兼)하야 이대도록 맷고 사늘합니다”라고 한 대목은 중일전쟁 이후 다가온 자신의 민족적·실존적 위기의식을 김덕령의 ‘운명’ 혹은 ‘영원한 한’에 가탁하여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며, 까마귀떼가 무명한 집 사람들의 논 위에 날아다닌다는 표현 또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만시지탄의 서글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은상이 느낀 ‘고분객의 비민’ 혹은 ‘고분의 정’은 그릇된 역사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인식에서

파생되는 것이며, 이러한 타율적이고 비극적인 역사 인식과 현실 인식 속에 주체적 성찰이나 통찰이 허용되거나 개입할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전 산행과 변별되는, 무등산 산사에서 엿보이는 이은상의 소극적 감상은 민족적·실존적 위기의식, 그리고 그에 따른 분노와 서글픔에 의해 폐색(閉塞)된 그의 내면 의식에서 연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덕령의 운명과 결부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고분객의 정조가 「무등산 유기」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제 신앙’이라는 부정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차-1) 처음으로 이르는 곳을 하대, 조금 더 가서 중대, 조금 더 올라 상대라고 부르는 이 삼대는 다시 총칭하여 ‘천제사등’이라고 합니다.

사위가 다 송림인데 이 삼대의 유허(遺墟)만은 평활(平濶)한 일 호지(壺地)가 되었는데 지금은 차차 보히지 안흐나 수십년 전까지라도 여기서 기우의 제전을 베풀었고, 구복(求福)의 신도들이 엮디었다합니다.

천제 신앙 그 물건이야 오늘와서 유치한 시대의 우매한 관념이라고 박게 볼 것이 엇달지라도 그것이 조선인의 영통적(領統的) 맥락이 끈치지 아니한 것이라보면 다시금 감격한 일사(一事)가 아닐수 업습니다.(3. 16)

(차-2) 절터를 벗어나자 곳 암층의 험로(險路)가 되는데 여기서 왼편으로 바라다보는 몽툭넙적한 봉우리와 그 언저리를 ‘얼밭등’이라 부릅니다. 여기 천제사등의 명칭과 아울러 ‘올’이란 신성한 명명처가 잇슴이 조금도 꺾이치 안커니와 또한 인문사적으로 본 이 산의 옛 면모와 옛 가치도 한 번 더 분명히 하는 명호(名號)임을 알겠습니다.(3. 17)

(차-3) 태초로부터 이 산과 함께 생겨나 헬 수 업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꺾기고 깎기고 떨어지고 굴러서 저 아래 무수한 ‘너덜장’을 이뤄노흐며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알뜰한 자만이 여기 내로라 소슨 듯이 서있서 무등산에도 무등적 최고 지위를 자랑하는 이 총석(叢石)은 이대로 금강에 실어 다놓는대도 가장 빼어난 경관이 될 것을 밋거니와 그러코보매 사람이 이를 돌로만 보지 안코 신위(神位)로 여겨 여노픈 봉정 아페와 끌어업디러 제 소원을 빌고 제 원한(怨恨)을 하소연하야 이 장엄한 총석군(叢

石群)으로 하여금 조선 고신앙의 의지처 조선 고문화의 산육모(產育母) 노릇을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3. 24)

(차-1)에서 그는 하늘을 향해 기우(祈雨)와 구복(求福)을 희원하던 ‘천제 신앙’의 유허지(遺墟址)인 천제등을 둘러보며 그곳에서 “영통적 맥락”을 확인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다. (차-2)에서는 천제등을 지나 중재로 오르다 ‘얼밭등’이라고 부르는 곳을 바라보며 ‘을’이라는 어근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과거 무등산의 면모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차-3)에서는 상봉에 올라 그곳의 총석군이 신위(神位)가 되어 “조선 고신앙의 의지처”이자 “조선 고문화의 산육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록하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 그가 단순히 조선의 산천제(山川祭)와 민간신앙의 역사적·종교신앙적 자취를 더듬거나 “빠어난 경관”을 신위로 간주하는 “유치한 시대의 우매한 관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에게 있어, 영통적 맥락을 지닌 조선의 고신앙과 고문화는 ‘과거적인 것’ 모두도, ‘우매한 관념’도 아니다. (차-2)의 “을’이란 신성한 명명처”라는 언급이 이를 증거하는 것이다. 1937년 제주도 삼성사(三聖祠)에서 그는 ‘탐라 시조’인 양을나(良乙那)·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를 각각 ‘을니’·‘굴니’·‘불니’로 읽을 것을 제안한 후 “을’과 ‘굴’과 ‘불’이란 것은 조선고문화사상(朝鮮古文化史上)에 있어서 인명(人名), 지명(地名), 교명(敎命), 기타 제사(諸事)에 허다하게도 통용”되는 것으로 “신성(神聖), 광명, 통어(統禦)의 의(義)를 가지고 있음은 다시 번누(煩累)한 고증을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런 후 이들을 “원시주민들을 치리(治理)하는 군장(君長)”⁴⁹⁾으로 간주한다. 또한 해방 이후 전개된 그의 논의를 참고하자면, ‘알(을)’이란 ‘얼’과 같은 것이다. 그

49) 이은상, 『한라산: 탐라기행』, 앞의 책, 38쪽.

에 따르면 알이 물질적인 생명의 기본체라면 얼은 정신적인 원기·정기를 이르는 말로서 ‘알/얼’은 생명이나 민족의 근본요소를 일컫는 낱말이라는 것이다.⁵⁰⁾ 곧 그는 ‘을’을 ‘불’의 유의어로서 간주하여 이를 ‘천제’로, ‘을니’를 군신으로, ‘얼’을 민족의 근본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은상이 언급한 이 천제 신앙이, 최남선이 불함문화론을 통해 개진하고 있는 태양 숭배 사상 혹은 천신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남선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태백산의 ‘백(白)’에 주목하여 ‘백’이 ‘불(白, Pärk, 不咸)’의 대자(對字)로서 이것이 태양 숭배 사상 혹은 천신 사상과 관련된 광명·신(神)·천(天)·하느님·태양·신산(神山) 등을 의미하며, 백(=불)자가 들어간 산 이름과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예거하면서 조선 고문화의 태양 숭배 사상 혹은 천신 사상이 고조선과 신라 등을 거쳐 고래로부터 면면하게 전승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¹⁾ 조선의 민족성을 재확립하고자 했던 이은상이 설악산행에서 ‘불’의 유의어인 ‘술’을 통해,⁵²⁾ 그리고 하늘의 선명을 체감하려던 한라산행에서 헛늘산의 ‘불늪(백록담)’을 통해 천신 사상을 호출하였듯이,⁵³⁾ 그는 천제등의 제장(祭

50) 이은상, 앞의 책, 「‘얼’론」, 『오늘도 탐을 쌓고』, 403~414쪽 참고.

51) 최남선(정재승·이주현 역주), 2008,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참고.

52) 그는 『설악행각』에서 ‘설(雪)’은 고어의 ‘술’에 대한 음역자(音譯字)로서 “‘술’은 ‘생명’의 절대 긍정, 절대 유지”를 뜻하는 말이며, 이는 “‘생명, 생활, 호흡, 인간, 양미(糧米), 담(膽), 육(肉), 용기, 여명, 원천’ 등을 전부 포함한 일 어근(語根)”이면서 동시에 인도어의 ‘사리(舍利)’와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사리(舍利)’ ‘골(骨)’ ‘육신’ ‘미(米)’ 또한 “어계(語系)”가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술’자는 들어가는 설악은 ‘상악(霜岳, 서리 피)’과 더불어 ‘신산(神山) 성역’에 속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설악산에 천신 사상이 함축되어 있음을 논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최남선에 따르면, ‘불’과 ‘술’의 유의어이다. 최남선, 1973, 『백두산 근참기』, 『육당 최남선 전집6』, 현암사, 52쪽 참고.

53) 그는 『한라산: 탐라기행』에서 “백록이라는 것을 ‘불늪’의 역자로 보려”하며, “또 白字가 ‘불’의 대역자(對譯字)임도 새삼스러이 증고할 것이 없다.”

場)과 총석군의 신위, 그리고 ‘을’을 통해 무등산에 유존하는 천신 사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카) 엎드려 비나이다/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천재사등 눈사길 위에/ 마음 모아 비나이다
 내 뜻이 임의 뜻이웁거든/ 이뤄줍소사 비나이다(3. 16)

그가 무등산 신사의 유허지를 둘러본 후, “선조(祖先) 전래로 이곳을 영장으로 선택하여 수호(守護)를 빌고 소원을 하소하였든 자리”인 천제등에서 읊는 노래는 을=임=천제=천신을 향한 기원의 노래이며, 민족의 ‘수호’를 갈구하는 염원의 비나리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은상의 비나리가 고분객의 정조를 극복할 만한 구체적(救濟的) 제의로 승화되지 못한 비손에 그치고 있지만, 그의 무등산행이 과거 설악산행과 한라산행과 마찬가지로 어원학적·민속학적 방법론 시각을 빌어 조선고문화의 원형을 재차 확인하며 천신 사상을 환기하는 국토순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천신 사상과 관련한 이은상의 이 같은 논의와 1930년대 중후반 최남선의 행적과의 관련성이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최남선은 불함문화론을 통해 개진한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동원론(同源論)에서 더 나아가 일본의 신도(神道)가 ‘정신적 최고 문화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조선·만주·몽고 등 동일 문화권 민족들이 일본의 신도에 귀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문화권의

라고 언급한다. 아울러 그는 ‘백록담이란 것은 곧 그대로 ‘불뉴’이니 다시 이것을 한자로 말한다면 ‘광명지(光明池)’라고 할 것이다. ‘광명이세(光明理世)’의 본 면목이 여기 와서도 나타나고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근본 의(義)도 여기 와서 나타난 것’이라면 불과 ‘광명이세’,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접목시키고 있다. 이은상, 『한라산: 탐라기행』, 앞의 책, 191쪽.

‘정축지(停蓄地)’인 조선을 중심으로 동양학의 건립을 주창했던 1920년대와 달리 ‘동방 민족’ 안에서의 지도적 역할이 일본에 있다고 하면서 친일 협력의 길로 나아갔다.⁵⁴⁾ 그는 일본 동양사학자들의 단군 부정론을 논박하고 단군과 수시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를 동일 인물로 보려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선과 일본을 문화적 원천을 공유하는 동일문화권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론을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⁵⁵⁾ 곧 조선과 단군 중심의 문화주의적 역사학에 바탕을 두고 있던 불함문화론이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민족협력론’이나 ‘민족개량론’의 논거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최남선의 친일적 행보와 불함문화론의 논리적 귀착에 비추어 볼 때 193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조선의 고문화를 거론하고 있는 이은상의 논의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은 규봉암의 역사적 가치와 지공너덜의 ‘와전’, 상봉·중봉·하봉에 대한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최남선에게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천신 신앙과 관련해서 최남선이 수차례 설명하고 있는 ‘불’과 ‘드굴’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⁵⁶⁾ 또한 최남선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을’에 대해서 언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은상이 최남선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54) 류시현, 2009, 『최남선 연구: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229~247 참고.

55) 保坂祐二, 2000, 「최남선의 불함문화론과 일선동조론」, 『한일관계사연구』 제12권, 한일관계사학회, 182쪽.

56) 최남선은 입석대에서 ‘불’과 ‘술’, 그리고 ‘손’에 대해서, 상봉에서 ‘불’과 ‘드고리’, ‘드굴’에 대해서 언급하고, 새인봉을 바라보며 ‘술’과 ‘불’, ‘드굴’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드고리’와 ‘드굴’과 그리고 ‘드굴’은 모두 ‘불’과 마찬가지로 ‘천(天)’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남선, 『불함문화론』, 앞의 책, 67~69쪽. 그리고 ‘술’에 대해서는 각주 52번 참고.

차이는 어원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천신 신앙을 맥락화하는 방식이다.

(타-1) 산상(山上)에 높이 올랐을 때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은 모론(母論)입니다. 그러나 저 홍진만장(紅塵萬丈) 속에서 헤매고 싸우는 현실 지옥의 비참한 창생(蒼生)을 생각함과, 또한 그 우에 조선인으로서의 특수한 고민과 통양(痛痒)을 생각함과, 다시는 같은 이 없는 자기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생각함에는 거의 일치할 듯합니다.

여기서 자기만을 말한다 하면 그 사람을 일러 개인주의자라 말할 것인지, 여기서 일보 나아가 민족을 말한다 하면 그 사람을 일러 민족주의자라 말할 것인지, 아니 여기서 일보 더 나아가 창생을 말한다 하면, 그 사람을 일러 세계주의자라 말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미고승엄(彌高崇嚴)한 극처(極處)에 올라 저 운무층(雲霧層) 아래로 만학천봉(萬壑千峰)을 내려다보고 멀리 일망무제(一望無際)한 동해를 가슴에 안고 잇서 인간의 고뇌를 밖에서 들여다보는 듯이 생각할 때 한줄기 열루(熱漏)가 내 손등에 떨어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⁵⁷⁾

(타-2) 우리 선민(先民)이 여기 이 천왕봉상의 성지에 사우(祠宇)를 짓고, 개인과 국가의 행복을 기원하던 그것도 실상은 인생으로 하여금 천지대자연과 가티 영원하고 광명하고 즐거운 자(者)가 되게 해달라는 열망으로 인하여 출발된 것이었다. …(중략)…

그러므로 이 성모사(聖母祠)라는 것은 선민의 신앙상 통속인 것임이 모론(母論)인 채로 나는 오히려 그 학적인 해석과 관찰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본질 인생의 이상이 ‘인생도 하나의 자연이라’는 것임과 또 거기에 도달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 함에 잇슴을 생각하는 눈으로 여기에 전개되어 잇는 화장찰해(華藏刹海)의 대자연과 및 인생고민의 피촉(披囑)으로 유존한 이 성모사를 아울러 바라보는 것이다.⁵⁸⁾

설악산 청봉(靑峰)에서 그는, 모두가 산정에 오르면 현실의 비참한 창생(蒼生)과 개인·민족·세계의 “운명과 환경”을 되돌아 볼 것이기에 열루(熱漏)를 참을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57) 이은상, 1933. 12. 3, 『설악행각』, 『동아일보』.

58) 이은상, 1938. 9. 20, 『지리산 탐험기』, 『조선일보』.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서 장엄한 자연의 풍광과 성모사(聖母祠)를 바라보며 인생의 본질과 이상이 ‘천지대자연’처럼 “영원하고 광명하고 즐거운 자(者)”가 되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는 천왕봉 산정에서 굽어보이는 대자연을 천신(성모)에 의해 이룩된 ‘화장찰해의 대자연’이자 선민들의 ‘인생고민의 파축’이 구현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천신과 대자연, 그리고 인생을 일원적으로 결박하고 있는 것이다. 곧 그는 ‘청봉’과 ‘성모사’라는 천신 사상의 유존을 통해⁵⁹⁾ 숭엄한 대자연과 조우함으로써 인생의 참뜻을 되짚어보고 있는 것이다. 청봉과 천왕봉에서의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일찍이 “자연 오! 자연 아름답고 거룩한 자연이시어 당신은 사랑의 근본이시오 내 몸바칠 사랑하는 님이오이다.”라 했던 그의 자연 예찬과,⁶⁰⁾ 불교적·기독교적 교리가 ‘자연의 진리’를 주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모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본의로 보는 인용문(바)의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그는 천신 사상(조선고신앙·조선고문화·조선고신도)을 최남선처럼 문화적 동원 관계와 동양사의 관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창생의 염원과 회구를 천신 사상에서 적출하여 이를 유구하고 지고한 대자연과 유비함으로써 천신 사상의 의미를 묘

59) 이은상에 따르면, 청봉의 옛 명칭은 ‘봉정(鳳頂)’이며 봉의 우리말은 ‘부리’ 즉 ‘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불’의 근사음인 ‘푸르’라는 음으로 인해 ‘청’자로 한역되어, 청봉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은상, 『설악행각』, 『동아일보』, 1933. 12. 3. 또한 성모사에 대해서는 “조선의 여신숭배에 대한 유일한 유존”으로서 천왕봉, 반야봉, 노고봉(길상봉)하는 모든 명칭이 결국은 ‘성모’라는 이름의 이칭, 역칭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덧붙여 성모의 상이 ”조선 고유신앙상의 천모(天母), 천왕, 성모일 것 이자, 영내(城內) 무격(巫覡)의 근본 영장(根本靈場)이자 총본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지시킨다. 이은상, 1938. 9. 20, 『지리산 탐험기』, 『조선일보』.

60) 이은상, 1932. 7. 6, 『오! 자연이시어』, 『동아일보』.

파했던 것이다. 실상 수정병풍의 서석에서 고분의 정을 토로하는 그의 모습[인용문 (아)]은 “현실 지옥”의 창생과 다르지 않으며, 또한 총석군을 향해 엮드린 비손[인용문 (카)]은 “영원하고 광명하고 즐거운 자가 되게 해달라는 열망”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자면 무등산행에서 호명된 ‘천제 신앙’은 최남선의 경우처럼 일선동일문화론(日鮮同一文化論)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진리와 인생의 이상에 이르고자 하는 ‘선민(先民)’의 열망과 염원의 매개이자 형식인 것이며, 일종의 종교심리학에서 연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1938년 8월 초 그가 지리산행을 마치고 부산의 송도 해안과 광양 백운산 밑에서 칩거하며 “시(詩)와 함께 살았”⁶¹⁾던 까닭 또한 유사 이전의 대자연 속에서 민족의 원형질과 심성을 찾고자 했던, 천신 사상에 대한 이러한 낭만주의적 해석과 수용에서 연유했던 것이다.

IV. 결어

1938년 조선일보사 출판사 주간을 역임하고 있던 이은상은 조선일보의 ‘지령(紙齡) 6000호 돌파’와 ‘혁신 5주년’을 기념하여 추진된 향토문화조사사업의 전남지역 조사 책임자로 무등산에 올랐다. 증심사로 입산하여 김덕령의 생가가 있는 충효리로 하산했던 4박 5일간의 무등산행 기록은 「무등산 유기」라는 제하로 동년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다. 이은상의 무등산행은 중일전쟁 이후 강화된 일제의 언론탄압과 조선일보사의 편집·경영방법 전환 이후에, 그리고 그의 조선일

61) 이은상, 「청춘 20년기」, 앞의 글, 144쪽.

보사 사직 전에 이뤄진 산행이라는 점에서 1930년대 후반 그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행문이다.

『무등산 유기』는 이은상의 개인적 산행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다른 산행 기행문들과 변별된다. 이 기행문에 산기적 서술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향토문화조사사업을 포함한 조선일보사의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을 짐작케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등산행에서는 사색적 성찰과 통찰이 다소 아울러 충효리 방문에서 잘 드러나듯 고분객의 정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악화된 시국과 그에 따른 민족적·실존적 위기의식, 그리고 분노와 서글픔으로 윤패된 이은상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분객의 정조에도 불구하고 천제등과 입석대·광석대의 총석군 등에서 천신 사상의 유적을 통해 천신을 호출하고, 그 ‘임’을 향한 비나리를 통해 자신의 염원을 기원하고 있음은 경시할 수 없다. 그의 염원이 고분객의 정조를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제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천신 사상의 편재성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무등산행을 국토순례적 산행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무등산행 약 5개월 후, 이은상은 조선일보사의 지리산 탐험단의 일원이 되어 지리산에 올랐다. ‘지리영산(智異靈山)’에 오르기 전, 그는 구례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 “약함을 저기 가서 강함으로 바꾸리라. 암담을 저기 가서 광명으로 돌리리라”⁶²⁾라는 각오와 다짐을 드러냈다. 그리고 천왕봉에서 굽어보이는 대자연을 천신에 의해 이룩된, 선민들의 관념과 염원의 현현으로 간주하며 천신과 대자연, 그리고 인생을 일원적으로 결박함으로써 그 다짐을 지켜내게 된다. 그는 지리산을 자기 구제의 제장으로 삼아 ‘궁자(窮子)’의 정조에서 벗어나 ‘개

62) 이은상, 1938. 8. 3, 앞의 글, 「지리산 탐험기」.

선장군'으로 귀환하게 된다. 실상 무등산행에서 드러난 고분객의 정조는 궁자의 정조와 동일한 것으로 무등산행에 관류하던 정조가 지리산행을 통해서 극복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자면 이은상의 『무등산 유기』는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 악화된 객관적 정세 속에서도 천신 사상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지식인의 자의식과, 과거 역사에 의탁하여 현실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삼키고 있던 언론인과 시조시인으로서의 윤패된 심경이 잘 드러난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은상, 「향산유기」, 『동아일보』, 1931. 6. 11 - 8. 7
이은상, 「설악행각」, 『동아일보』, 1933. 10. 15 - 12. 20
이은상, 1937, 『한라산: 탐라기행』, 조선일보출판사
이은상, 『지리산 탐험기』, 조선일보, 1938. 7. 30 - 9. 24
이은상, 1954, 『노산문선』, 영창서관
이은상, 1971, 『오늘도 탐을 쌓고』, 미문출판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삼천리』, 『매일경제』 등

2. 단행본 및 논문

- 김대현, 2001, 「20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6집, 한국언어문학회.
박찬모, 2009, 「자기 구제의 ‘제장(祭場)’으로서의 대자연, 지리산 -이은상의 『지리산 탐험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이상현, 2008, 「일제강점기 ‘무대화된 민속’의 등장 배경과 특징」,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이지원, 2000, 「1920~30년대 일제의 조선문화 지배정책」, 『역사교육』 제75집, 역사교육연구회.
이지원, 1993, 「1930년대 민족주의계열의 고적보존운동」, 『동방학지』 Vol77-7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이지원, 2008, 「『삼천리』를 통해 본 친일의 논리와 정서」, 『역사와 현실』 제69집, 한국역사연구회.
장신, 2005,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2005년 봄호(통권 70호).

- 조규태, 2009, 「1930년대 한글신문의 조선문화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제61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保坂祐二, 2000, 「최남선의 불함문화론과 일선동조론」, 『한일관계사연구』 제12권, 한일관계사학회.
- 최유리, 1995, 「일제 말기(1938-45년)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시현, 2009, 『최남선 연구: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2004, 『조선일보 사람들 -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
스중앙
- 최남선(정재승·이주현 역주), 2008,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 최남선, 1973, 『육당 최남선 전집6』, 현암사.

투고일: 2013. 05. 24 심사기간: 2013. 05. 27~2013. 06. 10 게재확정일: 2013. 06. 14

Mt. Mudeung, a godly mountain of ‘Gobungaek(孤憤客)’

Park, Chan-Mo

Nosan Lee, Eun-sang who was then the editor in chief of Chosunilbo company in 1938 climbed Mt. Mudeung as a director of local cultural survey in Jeonnam area commemorating ‘No. 6000 of newspaper publication’ and ‘5th anniversary of Innovation’. He entered through Jeungsimsa Temple and exited through Chunghyo-ri where the birthplace of Kim Deok Ryeong. Such 5 days’ record of climbing Mt. Mudeung was posted in <Chosunilbo> in the same year. His climbing record is a significant article to glance at his inner world in last 1930s as it was carried out after the persecution on press after the Chinese-Japanese War and change of edition and management method and right before his resignation of Chosunilbo.

<Mudeungsan Yugi> is distinct in that it shows no personal purpose of climbing of Lee, Eun-sang. The fact that this article described the climbing only implied his negative perspective of series of businesses of Chosunilbo including a local cultural survey. The record apparently lacks in speculative reflection and insight and the sentiment of Gobungaek is widespread as shown in his visit to Chunghyo-ri. It demonstrates his sense of national

crisis and existential crisis in the hard times, and his inner world filled with anger and sorrow. Despite such sentiment, it must not be overlooked his activities like calling a heavenly god through tracing the idea of Heavenly God at Cheonjedeung, Ipseokdae and Chongseokgun at Gwangseokdae and his prayer toward his 'Lord.'. Although his desire could not overcome the sentiment of Gobungaek and it failed to make redemptive ritual but, his visit to Mt. Mudeung could be defined as a pilgrimage as he confirmed the omnipresence of the Heavenly God idea.

Key words: Lee, Eun-sang, the country pilgrimage, godly Mountain(神岳), Mt. Mudeung (mudeungsan), Heavenly god(Cheonshin) idea. local cultural survey.

조선시대 전라도 司馬案 연구

-강진 사마안 사례-*

윤 희 먼**

1. 머리말
2. 사마재 건립과 사마안 작성
3. 사마재의 복설 노력과 사마안의 重修
4. 사마안의 改修와 續修
5. 나머지말

【국문초록】

조선시대에 생원 진사들이 모여 공부하는 사마재가 있었다. 사마재에서는 생원 진사의 명단을 적은 사마안을 작성하였다. 전라도 강진에서는 여러 명의 생원 진사가 배출되자 1612년에 사마재가 건립되고 사마안이 작성되었다.

새로 생원 진사가 합격하면 기존의 회원들이 심사를 하여 새로운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심사 기준은 신분의 하자였으며 양반 신분이 아니라면 가입이 불가능하였다. 다른 고을의 생원 진사들도 부모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고향, 처가, 외가 등의 연고가 있으면 사마안 입록이 가능하였다.

강진사마재와 사마안은 새로운 생원 진사가 많이 합격하지 못하지 않는 때문지도 모르게 없어지고 말았다. 1727년에 생원 진사들이 사마재를 중건하려했으나 경제적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사마안을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후손들의 요청으로 예전 사마안에 누락되었다는 선조들을 추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사마안이 양반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강진사마안은 생원 진사가 합격하면 사마안에 계속 이름을 등재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그 결과 1745년, 1881년, 1900년에 각각 개수, 속수되면서 유지되어 왔다.

고종대에 이르러 생원 진사의 합격 정원이 늘어나 모두 18명의 생원 진사가 합격하였지만 13명만이 사마안에 입록되었다. 5명은 신분적 하자를 빌미로 사마안 입록이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까지도 신분의 완강함이 강진 사마안에서 작용하였던 것이다.

1935년에 편찬된 『조선후남지』에는 조선시대 작성된 강진사마안과 비교하여 24명의 새로운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24명 가운데 18명이 합격 여부가 불투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모두가 양반 후손임을 주장하려는 당시의 사회적 풍조를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주제어: 1612년, 사마재, 사마안, 양반 독점, 신분제 고수, 양반후손 자칭

1. 머리말

조선시대 각 고을에는 司馬所(司馬齋라고도 한다)라는 기구가 있었다. 사마재는 소과, 곧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양반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학교시설이었다. 원래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하면 서울에 있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면서 대과(문과)시험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에서 공부할 입장이 안되면 자기 고을로 내려와 공부를 계속하였다. 향교에서 교생들과 어울려 공부하기에는 사회적 격이 안 맞기에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 생원 진사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과거 준비를 하던 곳이 바로 사마소였다. 그리고 향교와 서원에서 유생 명단인 유생안(청금록)을 작성하는 것과 똑같이 사마소에 드나들었던 생원 진사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이 司馬案(司馬錄, 蓮案¹⁾)이었다.

본고는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사마소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²⁾ 사마안을 분석하려고 한 것이다. 사마소, 사마안이 처음 생겼다가 고을 형편에 따라 침체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또한 다시 중건되고 재작성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마소의 변화 속에 사마

1) 擘蓮, 採蓮이란 연꽃을 뽑거나 꺾었다는 뜻으로 소과에 합격함을 이르는 말이니 蓮案이란 소과합격자의 명단을 말한다. 折桂란 계수나무 가지를 꺾었다는 뜻으로 대과에 급제함을 이르는 말로 桂案이란 대과급제자의 명단을 말한다. 蓮桂案, 蓮桂錄이란 소과합격자와 대과급제자의 이름을 함께 실은 명단으로 조선후기에 여러 고을에서 작성하기도 하였다.

2) 윤희면, 1985, 「경주 사마소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 37·38합.

윤희면, 2006, 「19세기말 전라도 남원의 사마소 향전」, 『조선시대사학보』 39.

윤희면, 2009, 「1930년대 전라도 남원 司馬案 편찬에 비춰진 신분의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0.

안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마안에는 어떠한 신분의 생원 진사들이 수록되며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가 폐지된 이후 사마안의 추이를 덧붙여 보고자 한다. 일제시대에 간행되는 사마안과 지방지에는 조선시대와 비교하여 생원 진사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함께 헤아려보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룰 사마안은 전라도 康津 고을의 것이다. 강진에는 1612년(광해군 4)에 사마안이 처음 작성되고, 그 뒤에 重修되고, 改修되는 등 모두 6차례나 작성되고 있어 알맞은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³⁾ 현재 남아있는 전라도 지역의 사마안은 조선시대에 작성된 것으로는 강진, 고창, 곡성, 남평, 능주, 담양, 영암 등의 것이, 1900년대 이후에는 남원, 보성, 흥덕, 무장, 순창 등에서 간행된 것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이들 모두를 다루려고 했으나 지면 관계상 강진의 것만을 우선 다루게 되었다. 다른 지역의 사마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사마재 건립과 사마안 작성

사마재⁴⁾의 건립 시기는 생원 진사의 배출이라든가 성균관의 입학

3) 강진사마안은 『전남의 향교』(전남도청, 1988) 32~35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의 자료와 번역문이 『강진향교지』(1981) 30~52쪽에 실려 있다.

4) 고을에 따라서는 司馬所라 하기도 하고 司馬齋라 하기도 한다. 所라 하는 경우는 모임을 갖는 곳이라는 뜻으로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齋라 함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강진에서는 사마재라 불렀기에 여기서도 사마

여부 등 고을 형편에 따라 제각기 달리하였다. 전라도에서 사마재 기록이 가장 빨리 나오는 곳은 南原이다. 남원사마재의 폐단이 연산군 4년에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아⁵⁾ 사마의 배출 정도로 보면 성종대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건립연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곳은 谷城으로 1537년(중종 32)에 건립되고 사마안이 작성되었다.⁶⁾

강진에 사마재가 설립된 것은 1612년(광해 4)라고 한다. 사마재가 설립되려면 생원 진사에 합격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것도 생원 진사 한 두 명 정도로는 미흡하고 여러 명이 일시에, 또는 해를 이어 계속 배출되어야 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사마재의 건립이 고을마다 제각기 차이가 나기 마련이었다.

강진의 생원 진사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사마방목」에서 강진이 거주지인 인물로 처음 나타나는 사람은 金自潏으로 1489년(성종 11) 경자식년시에 생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방목에 의하면 본관은 未詳, 직역은 유학, 부친은 從仕郎(正 9품) 金濕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합격 당시의 거주지는 강진으로 되어 있지만 합격 후에 강진을 떠나 연고가 없어진 것이 아니까 짐작할 뿐이다.⁷⁾ 그 다음으로 방목에 나타나는 인물은 尹孝貞이다. 방목에는 1501년(연산군 7)에 생원시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주지는 江津이라 되어 있는데 康津의 오기라 하겠다. 윤효정 이후에 강진 고을과 관계가 있는 생원 진사 합격자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로 통일한다.

5) 『연산군일기』 31권, 4년 8월 계유(10일)

6) 『곡성사마안』, 사마재중수서.

7) 權相圭 교감, 『細村實記』(국립중앙도서관 우촌고 2511-62-25 콘텐츠뷰어 151/114쪽)

〈표 1〉 연산군, 중종대 강진 고을 생원 진사 배출

이름	본관	거주	직역	연대	전거	비고
尹孝貞	해남	강진	생원	1501 (연산 7)	사마안, 방목	해남으로 이주
林秀美	장흥		생원	1507 (중종 2)	사마안	사마방목 결락
吳麟	평해	강진	진사	1507 (중종 2)	사마안	사마방목 결락, 그러나 큰아들 오맹수 방목에 직역이 진사로 표기
吳彭壽	평해	강진	진사	1510 (중종 5)	사마안, 방목	오린의 長子
尹衢	해남	해남	생원, 진사 兩試	1513 (중종 5)	사마안, 방목	윤효정의 아들, 문과급제 (1516년)
金希練	경주	장흥	진사	1534 (중종 26)	사마안, 방목	문과급제 (1543년)

〈표 1〉에서 보듯 윤효정 이후에 근접한 연대에 생원 진사 배출은 모두 5명이었다. 그 이후 사마 배출은 20여년 지난 1534년에 진사를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한 김희련으로 이어지는데, 김희련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거주지가 장흥으로 되어 있다. 강진에 사마제가 설립되고 사마안을 작성할 만한 시기로는 중종 때가 가장 적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윤효정은 처가가 있는 해남으로 이주를 하였고, 윤구는 문과에 급제하여 서울로 올라가 벼슬살이를 하였으니 실제 남아 있는 생원 진사는 3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기에 『金陵司馬齋舊記』에

우리 고을에는 옛날에 사마제가 없었으니 생각하면 궁벽한 고을이기 때 문이다. 현이 설치되어 수백년이 되었지만 鄉人들은 활쏘기를 많이 하고 글 배우는 선비는 적어서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이 끊어졌다가 겨우 있으며 있다하더라도 그 수효가 많지 않으니 이것이 사마제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였다.⁸⁾

고 하였듯이 생원 진사의 수가 적어 사마제를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

8) 『금릉사마재구기』(1612년(광해 4) 3월 하순 貞海人 郭期壽 序)

이다.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귀향하였거나, 아예 상경을 하지 않은 생원 진사들의 모임장소로 활용된 것은 고을마다 하나씩 설립되어 있는 관학인 향교였다. 생원 진사들은 향교시설을 빌어 임시로 이용하였으며⁹⁾, 고을에 따라서는 향교 안에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⁰⁾ 생원 진사들이 향교를 빌려 모임장소로 사용하였으나, 양반만 아니라(額內校生, 또는 上額) 평민도(額外校生, 또는 中額, 下額) 입학이 가능한 교생과 생원 진사와는 자격과 위상의 차이가 있기에 점차 사마소, 사마재라는 이름을 지니고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모든 고을에서의 추세였다.¹¹⁾ 그렇더라도 사마재가 학교 기관의 성격을 가졌기에 대개는 향교 근처에 자리 잡는 것이 보통이었다.

강진에서 중종대 이후 생원 진사 합격자가 다수 배출되는 시기는 선조대이다. 「金陵司馬齋舊記」에

근자에 다행하게도 이판서 청련선생(李後白)이 계시어 문장으로써 이름이 알려져서 장차 과거합격자가 끊어지려 할 때 몸을 일으켜 양명하니 이것은 하늘이 궁벽한 우리 고을 선비들을 도와주심인가. 이때부터 후진들이 많이 나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바라보며 청련과 함께 한때에 살던 분으로는 崔君應斗, 趙君彭年과 林君自新이며, 또 (郭)期壽도 그 중 하나였다.

9) 「다만 모여 노니는 곳이 없어 항상 다른 건물(향교?)에서 임시로 있음과 명단을 기록하는 案이 없어 훗날 징험할 수 없음을 한탄하여 나는 때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찹찹해하였다」(노진, 『옥계선생문집』 권5 (함양)司馬齋題名序)

「본읍에는 목은 선생 이후부터 이미 연계소가 있었으나 다만 所만 있고 社는 없었다. 그래서 연계회의 모임을 반드시 향교에서 열었는데, 구차한 사정이 없지 않았다」(丹陽蓮桂所節目(경상도 영해, 1804년))

1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광산현 학교.

11) 「먼 곳에 있는 생원과 진사들이 형편상 성균관에 모이기 어려운즉 이로 인해 주군부현에 으레 사마재를 두어 거처하게 하고 과거공부 익히기를 한결같이 성균관과 같도록 하였다」(「진양연계안서」(1841년))

인재가 출생하기는 이때에 왕성하였으나 사마재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겨
 료가 없어서였다.

라고 하였듯이 이후백이 명종 원년(1546년)에 생원 진사에 모두 합격
 하고 문과에 급제한 뒤 문풍이 일어서였는지 선조 초년에는 다수의
 생원 진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후백은 경상도 함양 출신이지만 강진
 은 그의 외가(작천면 박산)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이후백은 명종 4년에 작성된 강진의 『留鄕座目』에도 “判書 이후백,
 靜洞”이라 이름을 올리고 있다.¹²⁾ 선조 3년에 최응두(생원 진사 兩
 試), 선조 12년에 광기수(진사, 문과), 선조 15년에 임자신(생원) 등이
 합격하여 사마재를 건립하기에 적합하였지만 광기수는 문과에 급제
 하여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였기에 이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
 다. 사마재를 설립하기에는 겨료가 없었다고 한 사정은 사람의 수가
 적고,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1727년에
 작성된 『사마재중수기』에

우리 고을 옛적의 蓮籍을 고찰하면 등재된 이름이 간혹 있으나 萬曆의
 일 이전에는 사마재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은 꼭 1, 2명만으로는 능
 히 창설하지 못하고 또 군수가 여기에 조력을 못했기 때문이다.¹³⁾

이라고 한 것이 이런 연유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1609년(광해군 1)에 이르러 3인이 같은 해에 함께 과거에 합격하였
 다. 이후백의 손자인 이복길(생원), 광기수의 아들인 광치요(생원), 그
 리고 김택선(생원)이었다. 조금 시간적 거리가 있지만 선조 31년에

12) 양광식, 『강진유향좌목』(강진군문화재연구소, 2011), 16쪽. 명종 4년의 『유
 향좌목』에 진사 오팽수, 司成 윤구, 생원 윤희, 承旨 윤복 등도 이름이 실
 려 있다.

13) 『(강진)사마재중수기』(1727년(영조 3) 仲夏 下旬 吳喜謙)

조팽년(진사, 문과), 선조 34년에 조의(생원) 등이 앞서서 합격하였다. 이때 이르러 강진에서는 사마재 건립에 몰두하였다. 광기수의 말대로 고을의 盛事이며 종전에 없었던 일이었기에 다른 고을에서 하는 것처럼 사마재를 설치하고 사마안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임진왜란의 여파가 남아 있고, 또 돈을 거두는 일, 관의 보조를 얻어내는 일들이 여의치 않아 몇년 동안 준비를 계속하였다.

생원 임자신은 교동에 있는 자기 논 10여마지기를 회사하여 사마재 건립과 운영에 보탬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내어 재정에 보태었다. 그리고 광해군 3년 6월에 강진군수로 도임한 鄭寅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사마재의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곡식을 내려주고, 사환을 담당할 書員, 監董, 주모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향교의 奴 한명을 고직으로 삼아 양곡을 담당케 하였다. 아울러 장정 10명을 사마재 保人으로 소속시켜 역을 면제해주는 대신 재물을 내게 하여 이를 춘추강신에 소용하는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¹⁴⁾ 이러한 조치는 다른 고을에서도 일반적으로 실행하던 일이었다.¹⁵⁾

1612년에, 다른 고을보다는 늦었지만 드디어 강진에 사마재가 향교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터를 잡아 건립되었다. 그리고 고을 생원 진사들의 이름을 적어 넣은 司馬案이 작성되었다. 이는 성균관에서 청금안을 작성하는 예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¹⁶⁾ 처음 사마안을 만들 때에 살아있는 생원 진사들만 기재한 것은 아니었다. 아주 예전에 죽은 생원 진사들도 모두 조사하여 사마안에 기재하였다. 이

14) 『금릉사마재구기』, 현재 강진군청 안에 있는 5개의 공적비 가운데 하나가 「行郡守鄭侯寅善政碑」이다.

15) 안정복, 「사마소약령」(『잡동산어』)

16) 「사마재의 隸業貢擧는 모두 館學(성균관)과 같이 하고, 또 소위 청금안이라는 것을 두어 역대의 蓮榜을 일일이 쓰니 역시 관학의 예이다.」(李佑贊, 『월포집』 권9 진양연계안서)

전의 인물들은 근거 자료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오래된 일이기엔 자료가 불충분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향교의 청금록과¹⁷⁾ 고을의 기록(읍지와 관아 문서)을 참고하고 傳聞과 家乘¹⁸⁾을 모으는 등 나름대로 조사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수록 순서는 나이순서가 아니라 급제 연도의 순서로 하였다.¹⁹⁾

1612년에 처음 작성된 강진 사마안(『강진사마안 A』라 편의상 부르거나 한다)은 1501년에 생원 합격한 윤효정부터 시작하여 급제 연대순으로 기재하여 1609년에 생원 합격한 김응원(거주지는 장흥이나 아버지가 <표 1>의 김희련)을 마지막으로 하여 일단 사마안 작성을 끝맺었다. 모두 21명의 생원 진사가 사마안에 입록되었다.

강진 사마안에는 강진 출신의 생원 진사만 입록된 것은 아니었다. 21명 가운데 거주지가 장흥인 사람이 2명, 해남인 사람이 4명이나 되었다. 다른 고을의 생원 진사들이 강진 사마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강진과 일정한 연고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 서울에는 경재소라는 것이 있었다. 지방 고을과 연관

17) 『우리 고을에 옛날에는 사마재가 있었으나 60년 전에 없어지고 사마록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오래되었다. 鄉長 여러분들이 고을 문헌에서 이름이 전해지지 않음을 한탄하여 지금 사마록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연대가 오래되고 기록도 부실하였다. 그래서 가까운 시대의 이는 사람(생원 진사)들은 써넣고, 고을의 예전 생원 진사로 사마재에 속해있던 사람들은 청금록에서 이름을 베껴 빠짐을 보충하였다.』(이준, 『蒼石先生續集』 권5 尙州司馬錄序)

18) 『내가 지금 임금 을축년(1805, 순조 5)에 과거에 합격하고 이 재각(사마재)에 들어와 이 기록을 상고해 보고는 개연히 보충하고 수집할 뜻이 생겼다. 그래서 마침내 널리 家乘 등에서 캐어내고 진주 읍지를 두루 열람하고 만력 연간 이전은 진실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 많다는 탄식을 하게 되었다.』(『진양청금록서』)

19) 『그 순서는 방목의 차례이고 나이의 순서는 아니다. 字號와 나이, 官階 등 특별함을 요점만 추려 기록해 넣었다.』(權思學 (1758~1832), 『竹材先生文集』 권1 (의령)司馬齋修案序)

이 있는 서울의 관료들이 구성한 것으로 참여하는 관원들의 고을 관여 범위는 품계에 따라 달리하였다. 현직 관원으로 2품 이상은 아버지의 내·외향, 할아버지의 외향, 증조부의 외향, 어머니의 내·외향, 처의 내·외향 등 8향(鄉)을, 6품 이상은 6향(8향에서 처의 내·외향 제외)을, 7품 이하는 4향(부모의 내·외향)을, 그리고 무직의 양반도 2향(부모의 내향)으로 하였다.²⁰⁾ 이러한 범위가 진사, 생원에게도 적용되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생원 진사라 함은 대체로 6품이나 7품과 같은 정도로 대우하였던 것 같다.²¹⁾ 그렇다면 사마재의 참여 범위를 6품으로 하면 6향을, 7품 이하로 하면 4향이 되는 셈이었다. 곧 아버지의 내외향(內外鄉), 어머니의 내외향(內外鄉)이 기본 범위였고, 여기에 지역과 시기와 집안의 품격(班格)에 따라 할아버지의 외향, 증조할아버지의 외향이 적용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결국 사마안에는 본향 출신자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다른 고을 출신자도 일정한 범위의 연고가 있으면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사마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본향, 외향, 처향으로, 또는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 고을을 떠난 사람, 처가살이하는 사람을 남김 없이 기록한다」²²⁾ 고 하였던 것이다.

강진 이외의 고을로 사마안에 이름 올린 성관을 살펴보면, 우선 해남 윤씨 윤효정은 강진 도암면 덕정동에 살다가 해남에서 부호로 알려진 戶長 鄭貴瑛 딸과 혼인을 하게 되어 해남으로 옮겨 살게 되었고, 연산군 원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윤효정 이후의 해

20) 『세종실록』 권69, 17년(1435) 을묘 9월 1일.

21) 『경국대전』 예전 喪葬을 보면 분묘지역에서는 경작과 가축의 방목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7품 이하 및 생원 진사, 유음자제는 6품과 동일하게 50步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생원 진사는 대체로 6품이나 7품 관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2) 「世居者, 離鄉者, 贅居者 錄之無遺」(「咸寧司馬錄序」(경상도 함창))

남 윤씨는 막대한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가문으로 행세하였다. 윤효정의 아들 윤구, 윤항, 윤복은 생원, 진사,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이들의 거주지가 해남이지만 강진사마안에 입록되어 있는 것은 강진이 아버지의 內鄕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윤복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하다가 강진 坡山鄉 寒泉洞에 寓居하기도 하였다.²³⁾ 그러기에 윤구의 아들인 尹毅重은 중종대 생원, 진사에 모두 합격하고 거주지가 해남으로 되어 있으나 강진 사마안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이다.

이후백은 경상도 함양 출신이나 외가가 강진(작천면 박산)이고, 또한 이곳에 別業을 마련하고 우거하기도 하였다.²⁴⁾ 이런 연고로 이후백의 손자인 李復吉은 거주지가 강진으로 되어 있고, 광해군대 생원에 합격하여 사마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뒤에 이후백의 후손인 연안 이씨들이 생원 진사에 합격하고 거주지가 서울, 新昌 등으로 되어 있지만 강진사마안에 계속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연유는 바로 이러한 先代의 연고 때문이었다.

사마안에 이름이 있는 김희련, 김응원 부자는 거주지가 장흥으로 되어 있다. 김희련은 중종대 진사, 문과를 합격하고 지방관을 역임하였으며, 『장흥군읍지』 인물조에 진사에 합격하고 문과 급제하여 校理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들 김응원은 광해군 원년에 생원 합격하였다. 모향이나 처향의 인연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관련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사마안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강진 고을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인물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곧 사마안에 이름을 올린 기존(先案) 사마

23) 『강진현읍지』 인물 우거

24) 『李後白 文章清白 冠于一世學者宗之 爲青蓮居士 寓居于草谷朴山別業(『강진현읍지』 인물 우거)

의 후에이거나 문벌이 있어야 했다. 양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地閥과 世德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안정복의 『司馬所約畧』에

청금록에 들어 있는 고을 유생 가운데 사마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모두 入錄하고 방목의 순서대로 써 넣는다. 閑散庶孽로 위치에 방해가 되는 자는 入錄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양반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배제한다고 하였다. 신분 규제는 고을의 형편, 양반 사족의 세력 정도, 서로 간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 달랐겠지만 대개는 양반 신분에 한하여 사마안 入錄이 허용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1612년에 작성된 강진사마안에 해남 출신의 생원 宋士琛이 들어 있어 주목된다. 송사침은 1543년(중종 38년) 계묘식년시에 생원 합격하였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그는 본관은 여산, 거주지는 해남, 직역은 貢生으로 되어 있다. 공생은 향리들의 자제로²⁵⁾ 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직역이었다. 따라서 송사침은 향리 집안 출신으로 양반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명종 때 을사사화로 1547년(명종 2)에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왔다가 양재역벽서사건으로 죄가 가중되어 진도로 유배온 盧守愼(1515~1590)이라는 인물과 교류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송사침이었다. 노수신은 유배지 진도에서 나와 전라도 일대를 여행하였는데 1556년에 만나 친교를 맺고 시와 술을 나눈 인물로 송사침이 나온다.²⁶⁾ 송사침을 훈도라 부르기도 하고 上畝(생원, 진사)라 부르기도 하는데, 훈도라 함은 향교의 교관으로 송사침은 생원시에 합격하고 아마도 강진이나 다른 고을의 향교 훈도를 지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25) 『광해군일기』 148권 12년 1월 신사(2일), 『효종실록』 2권 즉위년 12월 경자(16일) 등

26) 노수신(1515~90), 『蘇齋先生文集』 권4 시

짐작된다.²⁷⁾ 송사침이 향리의 후손이지만 免鄕하여 유학에 종사하였고, 생원시에 합격하여 향교 훈도를 지내는 등 일반 사족과 별 차이가 없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가 해남출신이지만 훈도를 지낸 경력과 연고가 있기에 1612년에 만든 사마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²⁸⁾

다른 고을보다 훨씬 늦게인 1612년에 사마재를 건립하고 사마안을 작성한 강진 사마들의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사마안 창설기를 쓴 곽기수도 뚜렷하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늘어나는 사마들이 모임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향교의 시설을 일부 빌려 사마들의 모임을 가져오던 것이 사마에 합격하고 향교의 유생들과 구분하고 싶어 하는 그들로서는 구차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다른 고을에도 사마재가 있는데 생원 진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강진 고을에만 유독 사마재가 없다는 비교의식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을 거치고 흐트러진 향촌 질서를 양반 중심으로 바로잡아 보려는 욕구도 생각할 수 있다.

사마재가 건립되는 1612년까지 생원 진사에 합격하였던 인물들을 성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면모를 보면 대를 이어 생원 진사에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

27) 노수신이 지나고 머문 지명으로 石橋院이 있는데 이는 강진현 서쪽 17리에 있는 원이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7 강진현 驛院). 그리고 강진현 감이 식량을 보내준 것도 그가 강진에서 유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만나 술을 마시고 시를 주고받은 송사침은 1556년 당시 강진향교의 훈도로 재임중이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28) 이는 약간 후대의 일이지만 선조대 기축옥사에서 죽음을 당한 정개청과 같은 경우라 하겠다. 정개청(1529(중종 24)~1590(선조 23))은 나주 향리 집안 출신으로 선대에 免鄕하여 아버지 鄭世雄은 鳳山訓導를 지냈고, 그 자신은 학문이 높다는 점이 평가되어 북부참봉, 동몽교관, 나주훈도, 곡성현감을 지냈다. 송사침도 집안 내력과 행적을 미루어 정개청과 비슷하게 향리 집안에서 벗어나 사족으로 대우받았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표 2> 강진사마안 등재 성관(1501~1612년)

	연산	중종	명종	선조	광해	
해남 윤	1	4(해남)				부-자(문과 2)
장흥 임		1		1		증손
평해 오		3				부-자
강진 최		1		1		족손?
안산 김		1				
도강 김		1				
연안 이			1		1	外家(문과)-증손
평산 조				1		(문과)
창령 조				1		
해미 곽				1	1	부(문과)-자(문과)
양산 김					1	
경주 김		1(장흥)			1(장흥)	부(문과)-자
해남 송		1(해남)				*공생

라 문과에 급제하였던 집안이 많았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반사족임을 과시하고 있던 이들 인물들과 집안 중심으로 향촌질서를 재확립해 나가려는 목적에서, 사마재를 다른 고을보다는 늦었지만 건립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침 경제소가 광해군의 즉위와 함께 혁파되어 유향소의 위상이 변화되고, 중앙과의 연계가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있기에 양반사족들의 결속은 더욱 요구되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추측을 한다면 점점 심해지는 당쟁으로 양반사족간의 분열 조짐이 나타나는 고을을 결속할 목적도 담겨있었을 것이다. 기축옥사로 동인이 피해를 보았고, 광해군 즉위로 대북정권이 들어섰지만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 대북과 소북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과 연결되고, 학맥으로 연결되는 양반사족들 사이에서도 의견대립이 나타나고 분열의 조짐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

다. 그러기에 사마재 건립에 앞장서고, 『금릉사마재구기』를 쓴 광기수는

세상의 도덕은 떨어졌다. 인심은 거짓투성이다. 무릇 文會가 있는 마당에는 필연적으로 의견대립의 폐단이 생겨서 한마당의 싸움터가 되니 그칠 줄 모르고 한없이 옳다고 여겨서는 그 시작은 잘했지만 반드시 종말을 잘 맺지 못할 것이니 힘쓸지이다.

고 하면서 당색의 분열을 우려하고 화합을 강조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3. 사마재의 복설노력과 사마안의重修

1612년 강진사마재가 세워지고 사마안이 작성된 이후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여 처음 사마안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1624년 식년시에 생원 합격한 광기수의 손자 郭聖龜와 1624년 증광시에 생원 합격한 이후백의 증손인 생원 李壽仁이었다. 그 뒤 급제한 생원 진사들은 강진사마안에 계속 입록되었다.

사마안에 입록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생원 진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향시인 소과 초시에 합격하여야 했다. 초시에 합격하면 다음해 서울에서 열리는 복시에 응시하여야 한다. 초장, 중장, 종장의 순서를 걸쳐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이미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정식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는 放榜의 날 합격자 200명은 난삼과 폭건 차림

29) 다음의 서술은 19세기 대구 출신의 진사인 서찬규(1825~1905)의 『臨齋日記』(한국국학진흥원, 2011년)에서 소과 합격한 1846년의 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이다.

으로 돈화문 밖에서 모여 함께 인정전으로 들어갔다. 생원은 동쪽에, 진사는 서쪽에 서서 뱀에 맞추어 절을 하고 장원한 사람이 御酒를 받고, 이어 합격증인 白牌를 받았다. 새 생원 진사들은 귀향을 서두르는데 고향에 들어서기 전에 해당 고을이나 주변 고을의 수령이 나와 신래침학으로 희롱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생원 진사들은 조상의 선영을 찾아 과거합격자가 올리는 제사(榮奠이라 한다)를 지내고, 수령을 방문하고, 향교에 가서 문묘에 있는 공자 위패에 절을 올리는 謁聖을 하였다. 이어 먼 조상의 선영들을 찾아다니며 영전을 계속하였다.

새 생원 진사는 사마재를 방문하여 기존의 생원 진사들에게 새로 합격하였음을 알렸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사마안에 등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마재에 참여하는 기존의 생원 진사들은 齋會를 열어 새로 합격한 생원 진사들의 이름을 사마안에 올리는 것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題名(付標, 入錄이라고도 한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새 생원 진사들이 모두 참가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향교와 서원은 유생이³⁰⁾, 향안은 鄉員이³¹⁾ 천거하고 圈點하듯이 사마재도 기성의 회원들이 새로운 사마 합격자를 천거하고 권점하는 과정을 거쳐 사마안 등재 여부를 결정하였다. 권점의 기준은 물론 고을과의 연고 여부와 신분의 하자였다. 따라서 양반 신분이 아닌 생원 진사의 사마재 출입과 사마안 입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마안 입록의 결정이 나면 이를 해당 생원 진사에게 통고하게 된다. 통고받은 새로운 생원 진사는 3월이나 9월에 있는 사마재 모임날에 사마재를 방문하여 사마안에 이름을 올려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 읍례를 하고, 新入禮錢을 납부하고³²⁾ 잔치를 벌이는 것이

30) 안정복, 『잡동산이』 사마소약령, 『玉山書院立議』(광해 10년 10월 7일) 등.

31) 밀양군, 『향헌』(『영남향약자료집성』, 1986, 441쪽)

관례였다. 잔치를 新參會³³⁾, 또는 文酒會³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생원 진사들은 사마재에 모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사마재의 활동에서 우선적인 것은 춘추로 벌어지는 講信이었다. 강신이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음주례를 하고 우의를 다지는 것을 말한다.³⁵⁾ 사마재에 드나드는 생원 진사들은 학교 시설에 드나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처지에 일종의 계를 맺은 것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사마안이란 일종의 契案이기도 한 셈이었다. 계를 맺은 취지답게 이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상부상조를 하였다. 사마재 규약에 「吉凶相顧³⁶⁾, 吉凶相保³⁷⁾」라 함이 이를 말하는데, 주로 상을 당했을 때 위로를 하고 부조를 하는 일이었다.³⁸⁾ 그리고 사마재는 소과합격자의 모임장소이기에 지위에 걸맞게 여러 향촌문제에 간여하여 향촌문제에 관여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수령의 정사에 대해 시비를 하며 향리들을 규제하였다. 그리하여 토호의 소굴이 되고 있다는 조정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³⁹⁾ 그 밖에도 고을에서 효자, 열녀 등 행의가 뛰어난 사람들을 추천하여 포상을 받도록 주변 고을의 향교, 서원에 통문을

32) 「1. 新榜 追立員이 당초 1량, 지금부터 3량」(『함창연계당완의』 추가 완의)

33) 全球(1724~1806), 『半巖集』 己酉臘月立春日設司馬所新參會(경상도 영주)

34) 「1. 무릇 추후에 과거에 합격하여 당연히 이 연계안에 들어가야 할 자는 대략 四館의 許參禮를 모방하여 술항아리를 갖추어 一場에서 文酒會를 열도록 하였다.」(『단양연계회시첩』(1688년))

35) 『증보문헌비고』 교빙고4 본조중국교빙 명종 22년, 『숙종실록』 권4, 원년 10월 26일(신해) 등.

36) 주) 30과 같음.

37) 노신, 『옥계선생문집』 권5 (함양)사마재제명록서 「춘추의 강신, 길흉의 相保는 온 고을 斯文의 아름다운 뜻이다.」

38) 「1. 계원이 사고를 만나면 5량을 부조하였으나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1량 종이 1속으로 한다. 게임이 각원에게 알려면 모두 護喪할 것.」(『함창연계당완의』 갑신 12월 12일 추가 完議)

39) 『연산군일기』 31권, 4년 8월 10일(계유), 『명종실록』 26권, 15년 2월 7일(계묘), 『인조실록』 14권 4년 8월 4일(계묘) 등.

보내고 수령에 품보하는 등 향촌질서의 확립, 유교 교화의 일 등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⁴⁰⁾

1612년에 설립된 강진 사마제는 언제부터인가 사마제 활동이 중단되고 사마안 작성이 중지되었다. 1687년(숙종 13) 생원시에 합격하고 1727년(영조 3년)에 사마제를 중수하는데 앞장선 생원 吳喜謙이 쓴 『사마제중수기』에 다음과 같이 써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사마에 합격하여 향교 제향에 참여하였더니 남들이 옛 밭과 옛 터전을 가리키며 사마제 중설을 권하는 고로 복설할 뜻을 품고 시험 삼아 살아있는 현재의 선배들에게 문의하고 또 전후의 수령에게 요청을 해보았으나 뜻이 다르고 말도 후일로 미룰 뿐이었다.⁴¹⁾

오희겸의 지적대로 언제이기도 모를 정도로 사마제가 없어져버렸고 재산도 흩어져버렸다는 것이었다. 사마제가 유지되려면 계속 생원 진사가 배출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드문 드문 나오는 합격자들로서는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1612년 이후 사마안에 이름을 올린 생원 진사는 인조대 7명, 효종대 3명, 현종대 5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할 강진 출신 생원 진사는 11명이었다. 이렇게 합격자가 적게 나오게 되자 사마제의 활동이 자주 중단되었다. 오희겸의 말대로 『선배들은 이미 죽고 후배들은 손이 미치지 못함에서 연유함』⁴²⁾이었다.

또한 사마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기반이 많이 확보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사마제의 재정이란 기부받은 적은 규모의 전답, 향교에서 데려온 노비, 수령의 배려로 확보한 사마제 保人 몇 명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런 재정 기반으로는 춘추강신, 거접, 시회, 賻儀

40) 안정복, 『잡동산이』 「사마소약령」

41) 오희겸, 『사마제중수기』(1727년)

42) 오희겸, 『사마제중수기』(1727년)

등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간간히 배출되어 새롭게 사마재에 들어오면서 내는 신입 생원 진사의 禮錢도 사마재 재정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사마재의 활동은 이어지지 못하고 점점 기능을 상실해 갔고, 사마재의 토지는 향교 토지로 편입되었으며 사마재 터는 일부는 관의 소유로 돌아가고 일부는 향리의 집터가 되고 말았다.⁴³⁾

사마재는 재임을 선임하고 규식을 만들어 운영하였지만 향교나 서원 등에 비교하며 보면 소규모의 기구밖에 될 수 없었고, 활동도 춘추강신, 친목, 학문, 상호부조에 국한되어 있어 향론을 주도하여 주도권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사마재는 생원 진사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생원 진사에 합격하지 못한 사족들에게는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었다. 따라서 사족 전체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다른 고을에서도 사마재는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복설되는 등 부침을 거듭하였던 것이다.⁴⁴⁾

사마소 중건에 뜻을 두고 오희겸은 사마안 복설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우리 고을 운수가 돌아와 한 번의 科試에 2, 3인이 함께 합격하며 일문에서 형제가 연속하여 합격하니 군내의 생원 진사된 자들을 계산해 보니 나와 합쳐서 10여명이 된다. 새로 만든 案 중에 이름을 모두 계산해 보니 만력 연대에 비하여 배나 왕성하다. 나는 이에 숙원을 가히 풀 수 있다고 기뻐하고 경내 사마들에게 回文을 두루 돌리니 의견은 사마재를 복설하는데 합치하였다.⁴⁵⁾

43) 『세간에 전해 오기를 사마재의 옛 전담은 경내에 많았으나 이제는 향교의 땅으로 편입이 되었으며 옛 터는 城의 동쪽에 있었으나 이제는 관의 소유가 되어 향리들의 집터가 되었다고 한다.』(『사마재중수기』)

44) 윤희면, 1985, 『경주 사마소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 37·38합.

45) 오희겸, 『사마재중수기』(1727년)

라고 하여 생원 진사 합격자가 다수 배출되어 사마재 복설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1687년 오희겸이 합격한 이후 사마안이 중수되는 1727년까지 강진 출신 사마들은 모두 14명이었다. 1687년에 생원 합격한 오희겸 이후 1713년에 2명, 1717년에 2명, 1719년에는 3명, 1727년에는 2명이 합격하는 등 예전과는 달리 왕성한 사마 배출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재의 복설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몇몇 생원 진사가 중심이 되어 고을에 回文을 돌려 동의를 얻어내고 본격적인 사마재 중건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강진에서 사마재가 복설되지는 못하였다. 이유는 재정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예전의 전답을 환수하는데 향교에 소속된 한, 두 필지는 환수가 가능하지만 토지대장이 不備하여 향리들의 집터가 된 토지들은 환수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사마들의 각출을 기대하였지만 사마들의 형편이 좋지 않아 각출을 이루어내기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수령들도 협조가 미미하였다. 이런 형편에 사마재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건물 대신 사마안을 중수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마재 대신 사마안을 중수하여 살아 있는 생원 진사 11명을 과거 순서에 따라 차례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사마재 중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희사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남겨놓기도 하였다.⁴⁶⁾

이렇게 강진에서는 1727년에 사마재를 복설하지는 못했지만 사마안을 重修하였다.(『사마안 B』) 조선후기에는 강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고을에서 사마재가 복설되었다.⁴⁷⁾ 그 이유는 조선후기 신분제 변

46) 오희겸, 『사마재중수기』(1727년)

47) 『조선호남지』(1935)에 의하면 1930년대까지 사마재가 있다고 되어 있는 곳은 전주, 광주, 남원, 나주, 김제, 익산, 여산, 만경, 정읍, 흥덕, 옥구, 용안, 영암, 고창, 무주, 장수, 능주, 무안, 제주 등 19개 고을이다. 그리고 전

동,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신분 우위를 나타내고 지배신분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양반들의 노력이라고 판단된다.⁴⁸⁾ 강진에서 사마안을 속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마안을 중수하고 생원 진사들은 향교나 사찰에서 接榜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져 강학을 하고 친목을 다졌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사마안에 자기 선조의 이름을 올려 가문의 위세를 높여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다.

갑자년(1744, 영조 21)가을에 2인이 함께 과시에 합격하니 이거린, 김덕준 두 분이였다. 다음해 겨울에 新舊의 생원 진사가 함께 정수사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니 세속에서 말하는 接榜이란 것이다. 이보다 앞서 吳上舍(眉壽)의 후손 오이건과 傍孫 오도겸이 한성에서 조사하여 그 선조 미수공이 진사로 써 있는 문적을 얻어가지고 돌아와 齋中의 침원들에게 두루 보이면서 사마안에 기입해 주라는 뜻을 전해오니 그 사적이 저렇게도 확실하고 재중의 뜻도 과연 이의가 없었다. 더구나 또 崔龍湖(克忠)는 기왕의 창설시 초안에 들어서 더욱 고증할 수 있으며 사우 건립 때의 행장록에도 나타나 있으니 만약에 끝까지 사마선생의 안에 누락된다면 우리 사마제의 불행을 어찌하리요.⁴⁹⁾

1613년에 곽기수 등이 사마재를 설립하고 「사마안 A」를 작성하였고, 1727년에 오희겸 등이 「사마안 B」를 중수하였는데 여기에 사마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다하여 이들의 이름을 사마안에 첨가하였다. 崔克忠과 吳眉壽 두 사람이였다. 최극충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본관은 탐진, 거주지는 강진으로 1540년(중종 35) 경자식년시에서 진사 2등 1위로 합격한바 있었다. 그런데 29세에 일찍 죽었으며, 효행이 높게 평가되어 나라로부터 정려를 받았

에 사마안이 있거나 사마재가 있었다고 하는 고을은 강진, 동북, 곡성, 해남, 순창, 보성, 무장, 용담, 태인, 옥과, 고부, 순천 등이다.

48) 윤희면, 「경주 사마소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 37·38합, 1985.

49) 李夢梯, 「사마안개수기」(1745년)

고, 이를 기리기 위해 錦湖祠에 모셔진 인물이기도 하다.⁵⁰⁾ 강진 사마들의 기억에 의하면 「사마안 A」를 작성할 때 처음 草案에 들어있었으나 기록 수집이 미비하고 후손이 끊겨서인지 正案(사마안 A)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사우를 세울 때 만든 행장에 사마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만큼 이름을 올려야 마땅하다는 의견으로 합의되었다.

반면에 오미수는 합격 여부를 확증할만한 文籍이 없어서 논란이 계속되었다. 1612년 처음 사마안이 작성될 때에도 논란이 된 듯하며, 1727년 오희겸이 사마안을 중수할 때에도 거론이 되었으나 이때에도 증거할 문서가 없어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1744년에 오미수의 후손이 서울에서 오미수가 진사로 써 있는 文籍을 얻어가지고 돌아와 사마재 접방에 모인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마안에 기입해 주라는 뜻을 전하였다는 것이다. 오미수가 사마에 급제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미수의 형인 오팽수는 중종 5년에 식년시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오팽수의 방목에 의하면 아버지 오린의 직역이 성균진사로 기재되어 있어 오린의 해당 방목은 결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사마에 합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표 1> 그러나 오미수의 이름은 현존하는 방목에서는 찾을 수 없다. 혹 결락된 사마방목에는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확실하지는 않아 보인다.

오미수가 사마안에 오르게 된 이유는 증손자인 吳信男(1575~1632년)의 행적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오신남은 1594년(선조 27)에 무과에 급제하여 1610년(광해군 8) 안흥량수군첨절제사로 재임할 때 모올도 해상에서 왜장 등 16명을 생포하여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그

50) 錦湖祠는 1686년(숙종 12)에 건립된 사우로 최보, 최극충, 김응정, 오신남을 모신 충렬 사우였다. 그리고 1792년(정조 16)에 이건하면서 德湖祠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리고 1619년(광해군 10)에 강홍립을 총사령관으로 편성한 조선군 원병으로 명나라의 후금 정벌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심하전투에서 후금의 포로가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강홍립과 함께 입국하여 화의를 주선하고, 1630년(인조 8)에는 춘추사로 심양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인조는 친필 어병(御屏)을 하사하는 등의 포상을 하였고, 강진의 사림들은 그를 기리고자 錦祠湖에 배향하기도 하였다.⁵¹⁾ 그리고 오신남의 출세에 힘입어 증조인 오미수는 1629년에 통훈대부통례원좌통례에 추증되었다.⁵²⁾ 이러한 오신남의 충절로 강진 고을에서 평해 오씨의 위상은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오미수의 사마안 등재가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⁵³⁾ 그리하여 「사마안 A」에다 최극충의 이름은 네번째에, 오미수는 형인 진사 오팽수 다음인 여섯번째에 추가하여 삽입 기재되었다.

최극충과 오미수를 후손들의 요청으로 사마안에 추가 기재한 뒤에 이러한 비슷한 요청들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마안 A」에 10번, 11번째 기재되어 있는 金敬忠과 金世寶가 있다. 金敬忠은 본관은 安山, 충청도 아산에서 태어나 중종 23년에 진사에 급제하고 함평 훈도를 지내다가 강진 도암면 대치로 낙남한 안산 김씨 입향조이다.⁵⁴⁾ 金世寶는 본관은 道康(강진), 강진 입향조인 金粹然의 아들로 중종때 시행한 현량과에 천거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조광조의 문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⁵⁵⁾, 「己卯錄」에는 「생원 金世寶

51) 오신남의 충절과 행적은 『강진군읍지』 인물조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52) 한국학자료센터(www.kosma.net) 한국학자료 DB 「1629년 吳眉壽 追贈教旨」

53) 1931년대에 편찬된 『만성대동보』에는 오미수의 직역을 진사로 기재해 놓고 있기도 하다.

54) 『강진향교지』(1981) 337쪽. 그의 아들 김덕운은 洗馬, 손자 김원은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교리를 지냈다고 한다(『조선후남지』 강진 문과 명종조) 그런데 문과방목에서는 김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55) 『강진향교지』(1981) 365쪽.

는 본관이 淸道로 居喪에는 죽을 마시었으며 또한 才藝가 있었다」⁵⁶⁾로 되어 있어 본관은 다르게 되어 있다. 이들이 뒤늦게 사마안에 이름이 기재되게 된 것은 후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마안(A) 28, 30번째에 기재되어 있는 朴弘善, 朴隸 등도 후손들의 요청에 의하여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박홍선은 다른 인물들과 달리 자, 호, 생년 표시도 없이 「天啓 甲子 進士」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천계 갑자는 1624년(인조 2)의 식년시를 말하는데 이해의 사마방목을 조사해 보면 박홍선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그 이후의 방목에도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가 진사에 합격하였다면 인조 이전의 일로 보인다.⁵⁷⁾

朴隸는 「사마안 A」 30번째에 丙寅增(廣試) 進士라 기재되어 있다. 연대는 불명인데 박예의 앞에는(29번째) 天啓甲子式(1624) 進士 登第라 기재된 馬繼卞이, 뒤에는(31번째) 辛卯式(1651년) 진사라 기재된 裴汝敏, 崇禎15년 壬午(1642) 생원이라 기재된 郭聖鳳(32번째)이다. 박예는 세종 22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사헌부 감찰을 지내다가 계유정란으로 낙남하여 강진 군동면 나천리로 입향한 함양 박씨 입향조라고 한다.⁵⁸⁾ 그가 순서에 맞지 않게 사마안에 기재된 것은 오미수 등과 같은 경우로 함양 박씨 후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⁵⁹⁾

56) 『대동야승』 기묘록 속집 별과시천거인

57) 朴弘善이 아닌 朴弘先이라는 이름이 인조 6년(1628)에 문과 급제하고 감찰을 지냈다는 기록으로 『문과방목』에 나온다. 본관은 함양, 거주는 미상이나 아버지 朴應元이 『사마방목』에 선조 38년(1605)에 생원에 합격하고, 거주지는 영암으로 되어있다. 본인 여부가 불투명하나 동일인이라면 아마도 강진과 연고가 있어 후손들의 요청으로 사마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58) 『강진향교지』(1981) 342쪽.

59) 박예의 후손들은 증손대에 이르러 박귀수, 박인수, 박기수 모두 무과에 급제하였다고 한다.(『강진향교지』)

이들의 이름은 『조선호남지』 강진군 무과항목에 박예의 아들인 朴庇根은

그 밖에 박예 다음에 기재된 裴汝閔(31번째)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본관은 김해, 1651년 효신묘식년시(효종 2년)에 급제하였는데, 연대순서도 맞지 않게, 그리고 연호도 없이 辛卯式이라는 간지만 써놓은 것 또한 후손들의 요청으로 뒤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사마안에 합격 여부도 불투명하고 순서도 맞지 않는 인물들이 추가로 기재된 것은 사마안이 양반 신분임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곧 조선후기 사마제의 복설, 사마안의 재작성이 양반신분의 보수화 노력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 하겠다.

4. 사마안의 改修와 續修

후손들의 요청으로 누락되었다고 판단된 생원 진사들을 이전 「사마안 A」에 첨부한 뒤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인상이 짙은 옛날 사마안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1745년(영조 21)에 사마안을 새로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마안을 새로 만드는데 앞장 선 李夢悌를 가장 처음에 등재하는 명부를 만들어 이전 사마안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改修라 할 수 있으니 이를 「사마안 C」라 이름하고자 한다.⁶⁰⁾

1711년(숙종 37) 식년시 진사에 합격한 이몽제는 합격연대로 보아 1727년에 오희겸에 의해 중수된 「사마안 B」에 등재되어야 마땅하였

무과 급제하여 직장을, 증손자인 朴慶宗은 무과 급제하여 방어사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 함양 박씨 집안은 무반계열의 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안 배경으로 사마안(A)에 추가 입력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60) 이몽제, 「사마안개수기」(1745년)

다. 이몽제 뿐만 아니라 『사마안 C』에 있는 1727년까지 합격한 8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사마안 B』에는 1687년부터 1729년까지 9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45년 사마안을 개수할 때 이몽제를 처음으로 하여 따로 『사마안 C』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1745년까지 강진사마안의 기재 인물을 성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612~1745년 강진사마안 등재 성관

	세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해남 윤		1	4						1	1	1	1
장흥 임			1		1							
평해 오			3					1	1	2		1
탐진 최			1		1							1
경주 김			1			1						
해남 송			1									
안산 김			1									
도장 김			1									
연안 이				1		1	1			1		
평산 조					1							
창령 조					1					1		
해미 곽					1	1	2	1	1			
양산 김						1						
원주 이							2		2	2		1
장흥 마							2					
김해 배								1				
진주 강							1					
光州 김										1		
신평 이										1		
청주 한										1		
영광 김												1
光州 이										2		2
김해 김										1		
함양 박	1						1					

<표 3>에 의하면 현종 때까지는 1612년에 사마재를 건립할 때 앞장섰던 성관들이 생원 진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조대를 경계로 원주 이씨, 장흥 마씨 등이 새로운 성관으로 추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원 진사의 성관이 숙종대에도 쭉 이어져오는 가운데 해미 곽, 연안 이 씨 등이 없어지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성관, 곧 光州 이, 영광 김씨 등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다시 말하자면 강진에서 18세기에 들어와 양반 성관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745년에 사마안을 개수할 때 주동이 되는 인물이 光州 이씨 이몽제 등이었다. 「사마안 A」 작성, 「사마안 B」 중수에 앞장 선 해미 곽씨, 평해 오씨 등이 퇴조하는 가운데 「사마안 C」는 18세기 이후 두각을 나타내는 광주 이씨 등이 주동이 되어 작성하는 썸이 되는 것이었다. 1745년의 사마안 개수에는 그러한 변화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구실은 사마안에 빠져있는 선배들을 추가로 기재하면서

그 순서같은 것은 前籍을 다시 고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이에 그 안을 改修하고 또 그 先後의 차례를 바르게 하여 한분은 4위에 한분은 6위에 끼워서 기록하니 이는 어찌 一代 사람들만이 귀를 기울여 들을 뿐이라. 아니 또한 선배들께서도 광채가 있을 것이다.⁶¹⁾

라고 하여 아예 이전의 사마안을 다시 정리한다고 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1727년에 사마안을 중수하였던 오희겸 등을 「사마안 B」로 따로 모은 이유는 아마도 이들은 이미 죽은 뒤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⁶²⁾ 곧 1745년 사마안 개수에는 강진 고을 양반들의 구성에 커다

61) 이몽제, 「사마안개수기」(1745년)

62) 오희겸이 「사마안 B」를 중수할 때 “생존자 11명을 과거 순서에 따라 기록의 차례를 정한 후에”라고 하여 11명의 이름을 올렸다고 하였으나 현재의 「사마안 B」에는 1687년의 오희겸부터 1729년의 김용구까지 9명만이 기재

란 변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살아 있는 생원 진사를 따로 떼어 정리한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렇게 1745년에 개수된 「사마안 C」에는 이몽제부터 시작하여 1744년까지 합격한 11명이 우선 기재되었고, 그 이후에 합격하는 생원 진사들을 새로 등재하면서 이어져 나갔다. 정확히 말하면 1711년 진사 합격한 이몽제부터 1874년에 생원 합격한 조영규까지 27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뒤 1881년에는 이전 사마안에 이름을 계속 이어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사마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옛적에는 사마재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임진왜란 이전의 舊案은 전쟁 중에 분실되고 그 뒤의 사마안은 上舍 寒碧堂 곽기수가 비로서 만들었으며(「사마안 A」), 상사 농암 오희겸이 두 번째로 만들었고(「사마안 B」), 상사 목재 이몽제가 이어서 다시 고쳤다.(「사마안 C」) 갑술년(1874년) 봄에 이르러 종이는 찢고 글자는 허물어져서 경진년(1880) 봄에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한 과거시험에 합격한 뒤에 선배들의 뒷면에 이름 쓸 곳이 없었다.⁶³⁾

라고 하였듯이 1745년에 새로이 개수된 「사마안 C」가 낡아 뒤에 이름 써 넣을 지면이 마땅치 않자 새로 사마안을 따로 만들어 오래 전한 목적에서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희겸의 6대손 吳鏡이 마침 향교 校任에 있기에 향교와 협의하여 사마안을 새로 만들고 합격한 생원 진사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사마안 D」) 「사마안 D」는 「사마안 C」를 지면 관계상 따로 작성한 것이기에 續修라 할 수 있으며, 1880년에 합격하고 사마안을 개수하는데 앞장 선 오석규, 윤주관을 시작으로 1891년에 생원 합격한 金應煥까지 모두 8명의 생원 진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⁶⁴⁾

되어 있다. 이는 「사마안 C」를 만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생원 진사를 「사마안 B」에서 떼어 옮겨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63) 「司馬案改修記並著老科入選記」(1881년)

『사마안 D』가 따로 마련되어 작성되어 오는 가운데, 1880년에 또 다른 사마안이 작성되어 2명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사마안 E』). 이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耆老科에 특별히 선발된 강진의 인물 尹樂浩, 金錫鉉 때문이었다. 윤낙호는 1880년의 기로과에, 김석현은 1892년의 기로과에 응시하여 진사가 되었다고 사마안에는 기록되어 있다. 현재 榜目으로 남아있는 기로과는 모두 문과로 9번의 시험에서 42명의 급제자가 배출되었다고 한다⁶⁵⁾. 1880년의 진사기로, 1892년의 진사기로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과연 이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기로진사도 진사임에는 틀림없기에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규시험 합격자는 아니었기에 사마안을 따로 작성하였던 것 같으며, 해당자인 윤낙호가

경진년(1880년) 2월에 대왕대비전하께서 병환에서 쾌차하시어 특별히 耆老科를 설치하고 급제 5명, 진사 11명, 첨지 14명을 뽑았다. 나도(윤낙호) 그 말석에 참여하여 기노진사로 이름을 쓰게 되었다. 나라의 은혜가 자못 정규시험 이외에 증설한 시험에 치중함이다. 뒤에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너그럽게 생각하면 다시없는 다행이겠다.⁶⁶⁾

고 하면서 양해를 구한 이유이기도 하였다.⁶⁷⁾

강진에서는 1900년에 사마안이 重修라는 이름으로 또 작성되었다. (『사마안 F』)

64) 1885년 증광시에 진사 합격하였다고 『사마안D』에 기재되어 있는 金學英(사마안 명단 82번)은 사마방목에는 이름이 없다. 그런데 1894년 진사 합격한 金象洙은 김학영의 아들인데, 방목에는 진사 金策錫의 아들로 나온다. 아마도 개명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6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 의하면 기로과는 9번의 시험에서 급제자 42명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1880년의 기로과 기록은 없다.

66) 『司馬案改修記並耆老科入選記』(1881년)

67) 1880년에 기노과 합격한 윤낙호는 본관은 해남, 윤복의 6대손이라고 한다. 그리고 1892년의 김석현은 『조선호남지』에는 본관이 光山이라 되어 있다.

나는 갑오년(1894) 봄에 중형 金象洙와 더불어 다행히도 나란히 선발되어서 대성전에 배알하고 선배들의 예식대로 이름을 썼다. 그러나 사마재와 그 名案이 오랜 세월에 벌레와 쥐의 침노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더럽혀져 탄식하여 마지않았다. 그 동안에 공사가 다난하여 개수할 겨를이 없었더니 6년이 넘는 경자년(1900)에 후한 희사는 되지 못하나 향부노와 함께 사마재를 중수하며 名案도 개수하니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므로 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양치 못하겠도다.⁶⁸⁾

곧 1894년 마지막 과거에 합격한 진사 金冕修가 쓴 중수기에 의하면 그는 관례대로 문묘에 알성하고 사마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의 사마안이 낡아 개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겨를이 없어 이루지 못하다가 고을의 선비들과 모의하여 사마안을 개수하고 사마재를 중수하였다고 한다. 이때 사마재 중수가 없어진 사마재를 다시 건립한 것인지, 아니면 향교를 빌어 모임을 가지다가 향교 시설 일부를 중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무튼 1900년에 새로 개수된 「사마안 F」는 이전의 「사마안 D」를 이어서 작성한 것이니 속수라 할 수 있는데, 김면수를 비롯하여 1894년 마지막 과거시험에 진사 급제한 6명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1612년 사마안이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여, 그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중수, 개수, 속수되는 강진 사마안에는 생원 진사에 합격하면 모두 사마안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 우선 「사마방목」이 거의 온전한 인조부터(영조 1회분만 누락) 고종까지 사마안 입록 실태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마방목에 거주지가 강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종대 이전까

68) 金冕洙, 「司馬案重修序」(1900년)

69) 『사마방목 CD』와 차이나는 것은 인조대 이수인은 생원 진사 양시 합격, 숙종대 이시창의 거주지가 未詳에서 강진으로 파악되었고(<http://people.aks.ac.kr>), 현종, 철종대는 唐津을 강진으로 고친 것이다. 그리고 고종대 14명에다 당진을 강진으로 고친 2명, 기노과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8명이

<표 4> 인조~고종대 강진 사마안 입록 실태⁶⁹⁾

왕별 자료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사마방목 (강진)	5 (6이나 1명이 兩試)	2	5	12	1	8	1	1	1	4	18	58명
강진사마안 (강진)	5	2	4	12	1	8	0	1	2	4	13	54명
강진사마안 (다른 고을)	1 (서울, 미상 2)	1 (영암)	1 (영암)	1 (신창)		1 (영암)		2 (서울, 장흥)	1 (춘천)		해남1, 장흥2, 영암1, 광양1, 홍양1, 서울1	17명

지는 거의 사마안에 기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종대 이전에 방목에는 이름이 있으나 사마안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하나는 현종대에 생원 합격한 成進昌과 정조대 진사 합격한 尹世東이다. 성진창은 본관은 창령으로 19세에 생원 합격하고, 8년 뒤인 1677년 알성시 문과에서 7명 가운데 3등으로 합격하고 있다. 사마방목에는 거주지가 강진으로 되어 있는데 문과방목에는 거주지가 未詳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가 사마안에 이름이 없는 것은 아마도 생원 합격한 뒤 서울 성균관에서 문과시험 준비를 계속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또한 문과방목에 성진창의 관력이 成均館權知로 되어 있는 점도 주목된다.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는 급제자들이 적체되어 권지로 임명된 뒤 보통 6, 7년을 기다려야 9품 실직에 임용되었다. 승문원, 교서관의 경우 4년, 성균관의 경우는 8년이 경과한 뒤에 6품 직인 참서관으로 승진되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는 관직수에 비해 너무 많은 급제자들이 쏟아져 나왔으므로, 평생을 권지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가 성균관권지에 머문 것은 아마도 일찍 죽었기 때문일 것이다.⁷⁰⁾

되었다.

정조대 진사 합격한 윤세동은 본관은 칠원, 48세에 합격하였다. 그의 성관인 칠원은 강진 고을에서는 생원, 진사, 문과 급제자가 없는 것이기에 아마도 그의 합격에도 불구하고 선대의 연고가 없다거나 집안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사마안 입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해남현읍지』 科宦에, 文行에 이름이 나오고⁷¹⁾, 단종때 순절한 閔伸 부자를 기리는 해남 眉山祠의 사액을 요청하는 순조 7년 4월 상소자 명단에 진사로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⁷²⁾ 따라서 윤세동은 사마방목에는 거주지가 강진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활동지는 해남이었으며 해남에서 학문이 깊은 유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종 이전의 강진 출신의 생원 진사들은 신분적 하자나 범죄 연루 등 커다란 이유가 없는 한 사마안에 등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고을 출신임에도 사마안에 입록된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조부터 철종까지 8명(2명은 미상으로 제외)이 강진 이외의 고을 출신으로 강진사마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연안 이씨 2명은 이후백의 후손으로, 해미 곽씨 2명은 사마재를 창건한 곽기수의 후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윤종대는 본관은 해남, 통덕랑 윤지익의 아들이자 윤두서의 高孫으로 『해남읍지』 科宦 진사에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선대의 연고로 사마안에 입록된 것이었다. 나머지 3명은 연고가 분명하지 않은데, 김인철은 護軍 김익현의 아들, 윤성규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충헌공 尹焯의 6대손⁷³⁾, 이유

70) 『문과방목』, 『만가보』에 의하면 성진창의 처부는 여흥 민씨 민안도로 문과에 급제하고 공조참의를, 처조는 閔黈으로 문과 급제하고 이조판서에 대제학을 역임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성진창은 상당한 양반 출신임을 짐작하게 하는데 『만가보』에는 후사없이 이름만 올라와 있다.

71) 『해남현읍지』 科宦, 文行 「尹世東 字顯甫 號沙屋 漆原人 監司調元后 進士 天姿聰慧 志氣違大 潛究經義 深得宗旨」

72) 『승정원일기』 1926책 순조 7년 4월 17일(기축).

회는 정조, 순조대 기록에는 성균관 유생으로 나오다가 기건을 모시는 전라도 장성 추산서원에 사액을 요청하는 순조 23년 9월 상소에는 전라도 유생 진사로 나오고 있다.⁷⁴⁾ 이처럼 다른 고을 출신이라는 8명은 모두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가문으로 보나 학행으로 보나 상당한 양반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그런데 고종대에 이르러는 상황이 바뀌고 있었다. 생원 진사는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각각 100명씩 선발하였는데 철종 9년부터 합격자의 수를 늘려나갔고, 고종대에는 더욱 수를 늘려나갔다.⁷⁵⁾ 생원 진사의 정원 증가와 비례하여 강진 고을에서도 고종대에 합격자가 격증하였다. 『사마방목』에 거주지가 강진으로 기재된 사마들은 모두 14명이었다. 그리고 거주지가 강진인데 방목에 唐津으로 잘못 기재된 2명(김응환, 김면수)과 기노과 출신 2명(윤낙호, 김석현)을 포함하면 모두 18명에 달하고 있는데 고종대에 사마안에 등재된 인물은 5명이 누락되어 13명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⁷⁶⁾

강진 출신임에도 사마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생원 진사 5명은 다음과 같다.

이기응, 이두응, 이재현은 본관은 전주, 인조의 3남인 麟坪大君의 후손이라고 한다. 전주 이씨 璿派에서 철종계와 인평대군파는 조선 말기부터 정통성에 많은 의심을 받아온 파라고 알려져 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이구는 인평대군의 후손으로 후사없이 사망한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하여 남연군의 작위를 받았다. 1847년에 대원군이 종친부 유사당상으로 재직할 때 전주 이씨 선파들의 신역면제를 관장하는 등 종친부의 권한을 확대하였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주

73) 『승정원일기』 1865책 순조3 3월 19일.

74) 『승정원일기』 2170책 순조 23년 9월 6일.

75)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집문당, 1998), 41쪽, 주85의 <표>.

76) 사마안의 金錫琪와 사마방목의 金鍾琪(고종 25년 진사)는 동일인이다.

〈표 5〉 고종대 사마안 미입록자 명단

이름	본관	합격 연대	비 고
李箕應	완산	1865년 진사	『조선후남지』 권2 해남에 보임
李斗應	전주	1867년 생원	『조선후남지』 권2 해남에 보임. 이기응과 6촌간.
李載憲	전주	1873년 진사	이두응 아들. 『조선후남지』 권2 해남에 보임.
李基鶴	廣州	1874년 생원	『조선후남지』 권2 장흥에 나옴, 본관은 완산으로 기재됨
朴敦秉	密陽	1885년 진사	경상도 固城 인물로 나옴

이씨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곧 나라에서 璿譜를 고칠 때 軍伍之類, 派系無傳之徒들이 성이 이씨이면 모두 선파라 하고 冒入하였다고 양반들은 간주하고 있었다. 결국 강진사마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기응, 이두응, 이재현 등은 인평대군의 후손으로 璿派라고 하지만 강진의 양반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하여 이들은 같은 堂內로 3명이나 생원 진사에 합격하였지만 결국 사마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던 것 같다.⁷⁷⁾

그리고 1874년에 25세의 나이로 생원 합격한 李基鶴은 사마방목에 본관이 廣州, 직역은 유학으로 나온다. 그가 사마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자료 부족으로 찾을 수 없으나 그가 장흥에 나오고 본관이 완산으로 나오는 등⁷⁸⁾ 유서 깊은 양반의 후예라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끝으로 朴敦秉은 사마방목에는 본관은 밀양, 거주지는 강진, 23세

77) 이들 3명과 李載忠 등 인평대군 후손 4명이 1935년에 간행된 『조선후남지』 권2 사마항목에서 강진이 아닌 해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혹 이들의 터전이 강진이 아니라 해남이기에 강진사마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78) 『조선후남지』, 장흥 생원 진사.

〈표 6〉 고종대 다른 고을 출신 사마안 입록자 명단

이름	본관	거주	합격 연대	비고
윤종민	해남	해남	1867	윤구(사마안 A)의 10대손
윤기호	해남	장흥	1867	
조영규	한양	영암	1874	趙慶男 6대손/ 『호남지』 영암에 이름 없음
최석춘	탐진	광양	1882	掌令 崔新的 손자/ 『호남지』 광양에 이름 있음
구준희	능성	장흥	1894	敦寧 구수화의 아들/ 『호남지』 장흥에 이름 없음
박희수	밀양	홍양	1894	『호남지』 고흥에 이름 없음
유사구	강릉	서울	1894	都正 유병순의 아들

의 나이로 1885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고 나온다. 그런데 정작 그와 관련된 자료는 경상도 고성에서 나온다. 그의 挽章에는 「朴敦秉 密陽人 居固城 靑岡 進士」로⁷⁹⁾, 진주에 있는 안향을 모시는 사우 『硯山道統祠儒案』(1917년)에는 「進士 朴敦秉 德應 癸亥 密城人 晉州羅洞」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박돈병은 방목에는 강진으로 되어 있으나 고성 출신이 분명하며 그의 활동 장소는 진주권이라 할 수 있다.⁸⁰⁾ 그가 강진사마안에 이름이 없는 것은 신분의 하자가 아닌 사마방목의 기록 오류 때문이라 하겠다.

다른 고을 출신자인데 강진사마안에 이름을 올린 7명의 내력을 추적해 보면 해남 1, 장흥 2, 영암 1, 광양 1, 홍양 1, 서울 1 등 모두 7명이었다.

이들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해남 윤씨 2명은 先代의 연고가 확실해 보이는데, 나머지 5명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대의 직역이나 관

79) 金克永(1863~1941), 『信古堂遺輯』 附錄 1 挽章

80) 경상대학교 도서관 문헌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nu.ac.kr/>)

직의 이름으로 미루어 실직같이 보이기도 하고(장령), 혹은 이름으로 보아 정3품 당상관이지만 散職이나 壽職같기도 한데(敦寧, 都正⁸¹) 이들의 신분이나 강진과의 연고는 정확히 찾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1612년부터 작성되어 1900년까지 6차례나 중수, 개수, 속수된 강진사마안에는 강진 출신뿐만이 아니라 강진과 연고가 있는 다른 고을의 생원 진사들도 이름을 올렸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강진사마안에는 다른 고을의 사마안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한계로 몇몇은 신분을 판정하지 못하였지만, 신분적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이름을 올릴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나머지말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니 사마재나 사마안은 더 이상 유지되고 작성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자신들의 선조가 사마안에 들어있어 양반사족의 후예임을 입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었다.

강진에서는 다른 고을처럼 사마안이 발간되지는 않았다. 다른 고을, 예를 들면 1915년에 간행된 『松沙司馬案』은 전라북도 무장군에 있는 기존의 사마안(舊案)에다 여러 이유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수록하여 만든 것이었다(新案). 1919년에 보성향교에서 편찬 간행한 『寶城郡鄉校司馬齋先生案』도 마찬가지였다. 아무튼 대체는 기존의 사마안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새로 만든 사마안에 수록하는 것이었다. 양반사족들의 반대로 사마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던 생원 진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사마안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음

81) 都正은 종친부·돈녕부·훈원원의 정3품 당상관 관직.

은 1894년의 사회신분제 폐지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신분제가 한 세대가 지나자 형해화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강진에서는 새로 사마안을 만들거나 간행하지는 않았으나, 1935년에 간행된 『朝鮮湖南誌』에는 이전과 다른 생원 진사 명단을 수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조선후남지』는 1933년에 1책이 간행되고, 나머지 2~7책은 1935년에 간행되었다. 편찬은 전라북도에서는 정읍향교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장성 필암서원에서 주관하였다고 하며, 편찬방법은 각 군에서 單子를 받아 정리하고 종합검토를 거쳤다고 한다. 따라서 1930년대의 전라도 각 고을의 사정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남지』에는 강진의 사마로 모두 110명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작성되고 중수, 개수, 속수되는 사마안(A~F) 총수 92명보다 18명이 더 많은 숫자이다. 이들을 왕별로 분류하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조선시대 강진 사마안 입록 실태 비교

	세종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사마방목 (강진)		1	1	2		4	3	5	2	5	11	1	8	1	1	1	4	15	65
강진사마안	1		1	13	1	5	4	7	3	5	13	1	9		3	2	4	20	92
『조선후남지』		4	0	16	2	12		11	4	8	8		6	9	8	1	4	17	110

사마안과 『조선후남지』에 나타난 생원 진사 명단을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에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숫자의 차이인데 사마안에 있는 이름 6명이 『조선후남지』에는 안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대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 예를 들면 광해군대 4명이 모두 『조선후남지』에는 선조대에 들어가 있고, 영조대 인물들이 정조대에, 심지어 순조대에 들어 있기도 하다.

사마안과 『조선후남지』의 차이가 상당한 점들을 근거로 『조선후남지』의 작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겠다. 곧 『조선후남지』를 작성할 때 기존에 있는 사마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추가, 보충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방목도 참고한 것 같지도 않다. 그저 1930년대 강진 고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조들의 생원, 진사 합격 사실을 적은 單子를 받아서, 이를 임금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이전 사마안과 비교하여 임금이 틀리고, 숫자가 늘어나고, 사마안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다. 누락된 6명은 후손들이 단자를 내지 않아 빠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⁸²⁾

아무튼 후손들이 낸 단자를 모아 작성된 『조선후남지』 생원 진사의 명단을 보면 사마안과 비교하여 24명의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24명을 조사하며 보면, 사마방목의 누락이 많은 인조 이전의 13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생원 진사 합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인조 이후 11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8명은 사마방목에 이름이 없다. 이는 생원 진사에 합격하였다고 후손들이 단자를 냈지만 근거가 희박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근거없는 단자를 낸 성관들을 보면 사마안에는 이름이 오르지도 않았던 성관(남양 홍, 청주 김, 풍양 조, 남평 문, 장수 황 등)이라는 점도 주목된다.⁸³⁾

82) 6명 가운데 尹衡, 尹時萬, 尹鍾敏 등 해남 윤씨 3명은 『조선후남지』 해남의 생원 진사에 들어 있다. 후손들이 단자를 강진이 아닌 해남에 낸 때문이었다. 『조선후남지』에 같은 이름이 여러 고을에서 거꾸 나오는 것은 그 고을에 사는 후손들이 제각기 단자를 낸 것에서 연유한다고 하겠다.

83) 『조선후남지』 강진 문과항목에 의하면 청주 김씨는 문과 1명, 풍양 조씨는 문과 2명을 배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후남지』 강진 문과항목에는 41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일일이 찾아본 결과 15명의 이름을 문과 방목에서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 15명 가운데 宣祖 이전의 인물이 13명,

결국 1930년대 『조선후남지』의 생원 진사 명단에 先祖 이름을 싣고자 단자를 낸 강진 고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양반의 후손임을 나타내고자 할 목적이었다고 하겠다. 한쪽은 예전에 양반이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다른 한쪽은 새로이 양반이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1930년대 강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 자기 선조 중에 누가 생원 진사에 합격하였다는 주장만으로도 양반의 후손이라고 행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양반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다음에 전개될 세대 풍경이라 할 수 있다.⁸⁴⁾

선조 이후의 이름이 2명이었다. 다시 말해 시대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자기 조상이 과거에 합격하였다고 단자를 냈지만 신빙성이 부족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 84) 『조선후남지』 이전에 만들어진 『전라남도강진군지』(1924년) 사마안에는 홍영순부터 시작하여 유사구까지 103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데 출입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조선후남지』가 1920년대에 편찬되기 시작하여 지부진하다가 1935년에 간행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강진군지』는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편찬방법은 후손들에게 단자를 받은 것을 정리한 것일 것이다. 1967년에 간행된 『강진군지』도 사마안에 홍영순부터 시작하여 108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에도 계속 편찬되고 있는 향교지, 군지, 군사, 시사, 도지, 도사 등 향토지에는 예외없이 인물 조항을 만들어 고을의 역사적 인물부터 현재까지의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인물들의 과거합격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예전에 만들어진 향토지를 그대로 옮겨 적는 일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합격도 하지 않은 선조를 내세워 자기 집안이 양반이었음을 과시하려는 예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정확한 기록에 의거한 새로운 인물지, 자료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첨부표> 강진 사마안 생원 진사 명단

사마안	번호	이름	본관	직역	왕대	거주	연대	전거	비고
사마안A	1	윤효정(尹孝貞)	해남	생원	연산	강진	1501	안,방,	윤경(장군) 자
	2	임수미(林秀美)	장흥	생원	중종		1507	안,	
	3	오린(吳麟)	평해	진사	중종	강진	1507	안,	
	4	최극충(崔克忠)	강진	진사	중종	강진	1540	안,방,	읍지
	5	오팽수(吳彭壽)	진원	진사	중종	강진	1510	안,방,	3번 오린 장자
	6	오미수(吳眉壽)	강진	진사	중종	강진	1510	안,	3번 오린 차자
	7	윤구(尹衢)	해남	생진	중종		1513	안,	1번 윤효정 자 (문과)
	8	윤항(尹항)	해남	생원	중종	해남	1534	안,방,	1번 윤효정 자
	9	윤복(尹復)	해남	생원	중종		1534	안,	1번 윤효정 자 (문과)
	10	김경충(金敬忠)	안산	진사	중종		1528	안,	입향조
	11	김세보(金世寶)		생원	중종		1530	안,	
	12	김희련(金希練)	경주	진사	중종	장흥	1534	안,방,	문과(1543)
	13	송사침(宋士琛)	해남	생원	중종	해남	1543	안,방,	공생
	14	윤의중(尹毅重)	해남	생진	중종	해남	1543	안,방,	7번 윤구 자 (문과)
	15	이후백(李後白)	연안	생진	명종		1546	안,	문과
	16	최응두(崔應斗)	탐진	생진	선조	강진	1570	안,방,	
	17	조팽년(趙彭年)	평산	생원	선조	강진	1573	안,방,	문과(1576)
	18	조의(曹誼)	창령	생원	선조		1596	안,	
	19	곽기수(郭期壽)	해미	진사	선조	강진	1579	안,방,	문과(읍지)
	20	임자신(林自新)	장흥	생원	선조	강진	1582	안,방,	2번 임수미 증손
	21	이복길(李復吉)	연안	생원	광해	강진	1609	안,방,	15번 이후백 자

	22	곽치요(郭致堯)	해미	생원	광해	강진	1609	안,방	19번 곽기수 자
	23	김택선(金宅善)	양산	생원	광해	강진	1609	안,방	
	24	김응원(金應遠)	경주	생원	광해	장흥	1609	안,방	12번 김희련 자
	25	곽성구(郭聖龜)	해미	생원	인조	강진	1624	안,방	22번 곽치요 자 (문과)
	26	이수인(李壽仁)	연안	진사	인조	서울	1624	안,방	15번 이후백 증손
	27	이빈(李彬)	원주	생진	인조	강진	1627	안,방,	문과
	28	박홍선(朴弘善)		진사	인조		1624	안,	
	29	마계변(馬啓卞)	장흥	진사	인조	강진	1624	안,방,	문과(1633)
	30	박예(朴隸)	함양	진사	세종		1626	안,	입향조
	31	배여민(裵汝敏)	김해	진사	효종	강진	1651	안,방,	
	32	곽성봉(郭聖鳳)	해미	생원	인조	강진	1642	안,방,	22번 곽치요 자
	33	강문망(姜文望)	진주	생원	인조	강진	1648	안,방,	
	34	곽제화(郭齊華)	해미	생진	효종	영암	1650	안,방	25번 곽성구 자 (문과)
	35	오상하(吳尙夏)	평해	진사	효종	강진	1650	안,방,	5번 오팽수 현손
	36	곽제항(郭齊恒)	해미	진사	현종	영암	1660	안,방,	25번 곽성구 차자
	37	윤시만(尹時萬)	해남	진사	현종	강진	1662	안,방,	
	38	이송로(李松老)	원주	생원	현종	강진	1666	안,방,	27번 이빈 자
	39	오이건(吳以健)	평해	생원	현종	강진	1669	안,방,	6번 오미수 6대손
	40	이희징(李義徵)	원주	생원	현종	강진	1673	안,방,	
	41	김세구(金世龜)	광주	진사	숙종	강진	1678	안,방,	
사마안B	42	오희겸(吳喜謙)	평해	생원	숙종	강진	1687	안,방,	5번 오팽수 6대손
	43	오세규(吳世珪)	평해	진사	숙종	강진	1689	안,방,	35번 오상하 자
	44	이시창(李始昌)	신평	생원	숙종	강진	1705	안,방,	수군첨절 이정휘 자

	45	이언렬(李彦烈)	원주	생원	숙종	강진	1713	안,방,	27번 이빈 증손 (문과)
	46	이징구(李徵龜)	연안	생원	숙종	신창	1713	안,방,	26번 이수인 손
	47	윤이척(尹爾拭)	해남	진사	숙종	강진	1713	안,방,	9번 윤복 5대손
	48	이언겸(李彦謙)	원주	생원	숙종	강진	1717	안,방,	38번 이송로 손
	49	한명응(韓命凝)	청주	진사	숙종	강진	1719	안,방,	
	50	김용구(金用九)	영광	생원	영조	강진	1729	안,방,	20번 입자신 외증손
사마안C	51	이몽계(李夢楸)	광주	진사	숙종	강진	1711	안,방,	
	52	이몽계(李夢桂)	광주	진사	숙종	강진	1717	안,방,	51번 이몽계 동생
	53	김천상(金天相)	김해	생원	숙종	강진	1719	안,방,	
	54	조몽린(曹夢麟)	창령	진사	숙종	강진	1719	안,방,	18번 조의 현손
	55	윤취서(尹就緒)	해남	진사	경종	강진	1723	안,방,	9번 윤복 6대손
	56	윤방서(尹邦瑞)	해남	생원	영조	강진	1727	안,방,	
	57	오도겸(吳道謙)	평해	진사	영조	강진	1727	안,방,	5번 오팽수 7대손
	58	이언길(李彦吉)	원주	생원	영조	강진	1729	안,방,	
	59	이몽상(李夢相)	광주	진사	영조	강진	1729	안,방,	51번 이몽계 동생
	60	최덕준(崔德峻)	강진	진사	영조	강진	1744	안,방,	
	61	이거린(李居鱗)	광주	진사	영조	강진	1744	안,방,	51번 이몽계 자
	62	오도추(吳道樞)	평해	진사	영조	강진	1750	안,방,	5번 오팽수 7대손
	63	김인철(金仁澈)	김해	진사	영조	영암	1754	안,방,	김익현(호균) 자
	64	윤성규(尹性圭)	파평	생원	순조	장흥	1803	안,방	
	65	서달증(徐達曾)	이천	진사	순조	강진	1809	안,방,	
	66	이윤희(李維會)	광주	생원	순조	서울	1822	안,방,	
	67	윤종대(尹鍾岱)	해남	진사	현종	춘천	1844	안,방,	윤지익(통덕) 자

	68	윤영희(尹榮喜)	해남	진사	헌종	강진	1850	안,방,	윤서유(정언) 자
	69	김진태(金振兌)	광산	진사	헌종	강진	1849	안,방,	
	70	김숙(金淑)	김해	진사	철종	강진	1858	안,방,	최신(장령) 생질
	71	오현규(吳玄圭)	해주	진사	철종	강진	1859	안,방,	6번 오미수 10대손
	72	김최선(金最善)	김해	진사	철종	강진	1861	안,방,	
	73	배영용(裵穎龍)	풍산	진사	고종	강진	1864	안,방,	
	74	윤종민(尹鍾敏)	해남	진사	고종	해남	1867	안,방,	7번 윤구 10대손
	75	윤종진(尹鍾軫)	해남	진사	고종	강진	1867	안,방,	9번 윤복 10대손
	76	윤기호(尹基鎬)	해남	생원	고종	장흥	1867	안,방,	
	77	조영규(趙榮奎)	한양	생원	고종	영암	1874	안,방,	조경남 6대손
사마안D	78	오석규(吳錫圭)	평해	생원	고종	강진	1880	안,방,	6번 오미수 10대손
	79	윤주관(尹柱權)	해남	진사	고종	강진	1880	안,방,	윤효공 9대손
	80	최석춘(崔錫春)	탐진	생원	고종	광양	1882	안,방,	최신(장령) 손
	81	방수인(房洙仁)	남양	생원	고종	강진	1885	안,방,	방수권(감역)제
	82	김학영(金學英)	김해	진사	고종		1885	안,방	방목에는 진사 김책석
	83	김병윤(金柄潤)	김해	진사	고종	강진	1888	안,방,	김극검(호관)14
	84	김석기(金錫琪)	김해	진사	고종		1888	안,	방목5 김종기와 동일인
	85	김응환(金應煥)	김해	생원	고종	강진	1891	안,방,	83번 김병윤 자
사마안E	86	윤낙호(尹樂浩)	해남	진사	고종		1880	안,	기노과 (윤복 6대손)
	87	김석현(金錫鉉)	광산	진사	고종		1892	안,	기노과
사마안F	88	김상수(金象洙)	김해	진사	고종	강진	1894	안,방,	82번 김학영 자
	89	김면수(金冕洙)	김해	진사	고종	강진	1894	안,방,	88번 김상수 종제
	90	구준희(具準喜)	능성	진사	고종	장흥	1894	안,방,	구수화(돈령) 자

	91	박희수(朴喜洙)	밀양	진사	고종	홍양	1894	안, 방,	
	92	유사구(劉思九)	강릉	진사	고종	서울	1894	안, 방,	유병순(도정) 자
방목	1	성진창(成震昌)	창령	생원	현종	강진	1669	방,	문과(1677)
	2	윤세동(尹世東)	칠원	진사	정조	강진	1798	방,	해남에 보임
	3	이기학(李基鶴)	광주	생원	고종	강진	1874	방,	장흥에 보임
	4	박돈병(朴敦秉)	밀양	진사	고종	강진	1885	방,	고성에 보임
	5	김종기(金鍾琪)	김해	진사	고종	강진	1888	방,	김봉엽(부, 군수)
	6	이기응(李箕應)	완산	진사	고종	강진	1865	방,	
	7	이두응(李斗應)	전주	생원	고종	강진	1867	방,	
	8	이재헌(李載憲)	전주	진사	고종	강진	1873	방,	이두응 자

【참고문헌】

1. 단행본

- 『咸寧司馬錄』 『곡성사마안』 『함양사마안』
『전남의 향교』(전남도청, 1988) 『강진향교지』(강진향교, 1981)
『강진현읍지』(서울대학교 규장각) 『전라남도강진군지』(1924년)
『강진군지』(강진향교 편찬, 1967년) 『조선후남지』(1935년)
양광식, 『강진유향좌목』(강진군문화재연구소, 2011)
이우윤, 『월포집』
이준, 『칭석선생문집』
권사학, 『죽재선생문집』
서찬규, 『臨齋日記』(한국국학진흥원, 2011)
안정복, 『잡동산이』 사마소약령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집문당, 1998.)

2. 논문

- 윤희면, 1985, 「경주 사마소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 37·38합.
윤희면, 2006, 「19세기말 전라도 남원의 사마소 향전」, 『조선시대사학보』
39.
윤희면, 2009, 「1930년대 전라도 남원 사마안 편찬에 비춰진 신분의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0.
김준형, 2006, 「조선후기 진주지역 사마소의 연혁과 성격」, 『경남문화연구』, 22집.

A Case Study of Kangjin SamaAhn in Joseon Period

Yoon, Hee-Myeon

Samajae(or Samaso) was the school where Saengwon(classics licentiate) and Chinsa(literary licentiate) got together and engaged in studying. Samajae made SamaAhn in which the names of Saengwon, Chinsa were listed. When there were several Saengwon, Chinsa in Kangjin, Samajae was built in 1612 and SamaAhn was written.

When new Saengwon, Chinsa passed the test, the existing members conducted screening and accepted them as members. The criteria of evaluation was a flaw of class and only Yangban clan was accepted. Saengwon, Chinsa of other counties could be members when they had connection such as parents, wife or maternal grandparents.

Kangjin Samajae and SamaAhn disappeared gradually when new Saengwon, Chinsa could not pass the exam. Saengwon, Chinsa of Kangjin county tried to rebuilt Samajae in 1727 but could not accomplish the goal because of lack of fund. But they replaced it with writing SamaAhn again. And with the request of descendants, they added the names of ancestors additionally whose names were not recorded in the former SamaAhn. This fact showed that SamaAhn was working as a means to show their social

status of Yangban. Kangjin SamaAhn continued their activity by enlisting new Saengwon Chinsa; as a result it could be maintained through revising and continuing in 1745, 1881, and 1900 respectively.

In King Kojong the number of Saengwon, Chinsa who passed the exam has increased the total number of 18 has passed but only 13 was enlisted in SamaAhn. 5 was rejected because of flaws of their social class. Up until the end of 19th century, stubbornness in regard to social status was still working in SamaAhn.

『Joseon Honamji』 that was published in 1935, 24 new names was recorded when it was compared with Kangjin SamaAhn of Joseon period. The pass of 18 people out of 24 was not clear. It reflected the trend of those days when people wanted to maintain their descent from Yangban class.

<p>Key words: Kangjin SamaJae, SamaAn, 1612, Yangban, Hold out the SamaAhn, Itegration of the Yangban society, Pretending as descendant of Yangban</p>
--

호남좌도농악의 호호굿 가락에 관한 음악적 연구

이 용 식*

1. 머리말
2. 불균등리듬의 호호굿 가락
3. 균등리듬의 호호굿 가락
4. 맺음말

【국문초록】

혼소박 가락(장단)은 대표적인 불균등리듬(asymmetric rhythm)이다. 불균등리듬은 가곡, <영산회상> 등의 오래된 음악이나 무가(巫歌), <화청(和淸)> 등의 종교음악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농악에서 혼소박으로 된 가락은 질굿(길굿)이나 호호굿 등에서 주로 친다. 질굿과 호호굿 가락은 농악에서 연주하는 여느 가락에 비해 오래된 것이며 의식 등과 관련된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질굿과 호호굿 가락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을 갖는데, 대부분 혼소박 가락으로 된 지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관리번호 2011-2559 전라남도 농악의 음악인류학적 연구)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물이다.

**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역농악이 많지만,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된 지역 농악도 있고 균등리듬과 불균등리듬이 혼합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 농악도 있다. 이 글은 호호굿 가락을 통해 농악의 혼소박 가락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고, 불균등리듬과 균등리듬으로 구성된 호호굿 가락의 심층분석을 통해 호호굿 가락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호남좌도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기본적으로 불균등리듬의 혼소박 4박 가락이다. 이는 임실필봉농악, 곡성죽동농악, 진안중평농악 등의 호호굿 가락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원농악의 구령 부분은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음원의 구령 부분의 시간을 측정하면 혼소박 4박의 불균등리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농악의 호호굿은 혼소박 4박이 보통 4각이 모여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경결해(起輕結解)의 이야기 플롯(plot)을 이루고, 여기에 ‘호호’의 구령 2각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악구, 즉 음악적 텍스트(text)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농악인 구례잔수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이와 달리 균등리듬의 3소박 4박 가락이다. 이는 불균등리듬의 혼소박 가락이 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농악인 구례잔수농악에서는 균등리듬으로 된 3소박 4박 가락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런 변화과정은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쉬운 균등리듬으로 바꾼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변화는 혼소박 4박의 불균등리듬으로 된 진안중평농악의 호호굿 가락을 상쇠였던 김봉열이 금산농악을 가르치면서 쉬운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된 호호굿 가락으로 변형시킨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불균등리듬의 호호굿 가락은 전승과 연행 맥락, 즉 음악의 컨텍스트(context)가 바뀌면서 이에 따라 음악적 텍스트도 균등리듬으로 바뀐 것이다.

1. 머리말

농악에서 혼소박으로 된 가락은 질굿(길굿)이나 호호굿 등에서 주로 친다. 질굿은 주로 당(堂)으로 향하는 길(질)에서 치는 가락이고, 호호굿은 예전 군대의 군사훈련에서 점호를 하는 것과 같은 굿으로 여겨진다. 질굿과 호호굿 가락은 농악에서 연주하는 여느 가락에 비해 오래된 것이며 의식 등과 관련된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가락은 특별한 음악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3소박으로 구성된 여느 가락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 농악에서 혼소박으로 구성된 가락을 친다.¹⁾

혼소박 가락(장단)은 대표적인 불균등리듬(asymmetric rhythm)이다.²⁾ 불균등리듬은 가곡의 16박 장단(3+3+2+3+3+2박)이나 <영산회상> 등의 20박(6+4+6+4) 또는 10박(3+2+3+2) 장단처럼 오래된 음악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판소리나 산조의 엇모리장단도 혼소박 장단인데, 이는 2소박과 3소박이 3+2+3+2 또는 2+3+2+3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판소리에서 엇모리장단은 주로 종교적이거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³⁾ 굿음악에서는 <만세바지> <청배> 등 신(神)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이루는 무가에서 불균등리

1) 김현숙, 1988, 『호남좌도농악에 관한 연구-임실과 진안의 판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쪽. 김혜정, 『전남지역 매구의 길굿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7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99), 173쪽.

2) 리듬은 3소박 4박(12/8박자)처럼 3소박의 균등한 단위의 리듬형태소(rhythmic morpheme)가 모여서 이루어진 균등리듬(symmetric rhythm)과 혼소박 4박(10/8박자)처럼 2소박과 3소박의 불균등한 단위의 리듬형태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불균등리듬(asymmetric rhythm)으로 크게 구분한다.

3) 이보형, 『무가와 판소리와 산조에서의 엇모리가락 비교연구』, 『이해구박사 송수기념 음악학논총』(서울: 한국국악학회, 1969), 81~115쪽.

듬으로 된 장단이 주로 나타난다.⁴⁾ 이렇게 불균등리듬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에서는 비교적 종교성을 많이 내포한 것이며 오래된 장단인 경우가 많다.

농악의 질굿과 호호굿 가락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을 갖는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질굿과 호호굿 가락은 대부분 혼소박 가락으로 된 지역농악이 많지만,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된 지역 농악도 있고 균등리듬과 불균등리듬이 혼합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 농악도 있다.⁵⁾ 이 글은 농악의 대표적인 혼소박 가락인 호호굿을⁶⁾ 통해 농악의 혼소박 가락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불균등리듬과 균등리듬으로 구성된 호호굿 가락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의 상호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2. 불균등리듬의 호호굿 가락

호남좌도농악 중에서 호호굿 가락이 불균등리듬으로 된 지역농악은 임실필봉농악과 남원농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농악의 호호

4) 줄저,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서울: 집문당, 2005), 240~253쪽.

5) 이렇게 본래는 혼소박의 불균등리듬으로 된 가락이 지역에 따라 균등리듬으로 된 가락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질굿에서도 볼 수 있다(김혜정, 앞의글 참조). 질굿 가락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호호굿 가락을 대상으로 음악적 분석을 시도했다.

6) 호호굿은 치배들이 구령을 외치는 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역에 따라 ‘호호굿’, ‘호허굿’, ‘허허굿’ 등으로 불린다. 이 글에서는 이를 ‘호호굿’(변미혜 외, 『국악용어사전』(서울: 민속원, 2012), 162쪽)으로 통일한다. 호호굿 가락은 시계반대방향으로 진을 돌면서 연주하는 호호굿 본가락, 치배가 360도 회전하면서 연주하는 도드래미 호호굿 (또는 돌호호굿), 빠르게 진풀이를 하면서 연주하는 자진호호굿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중에서 호호굿 본가락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굿 가락은 2소박과 3소박이 2+3+2+3 또는 3+2+3+2로 혼합된 불균등리듬으로 된 것이다.

1)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 가락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혼소박 4박 가락 6각이 하나의 음악적 텍스트(text)를 이룬다.⁷⁾ 각 악기가 4각을 내고 제5-6각은 치배들의 구령이 따른다. 호호굿 가락은 혼소박 4박이 기본적인 하나의 음악적 의미를 갖는 단위를 이룬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는 음악적 텍스트인 악구(樂句)를 이루지 못하고 혼소박 4박 가락 여섯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적 텍스트인 악구를 이루는 것이다.

<보례 1> 임실필봉농악 호호굿 쇠가락⁸⁾

1각	갱		갱		개	개		갱		개
2각	갱		갱	지	갱	갱		개	개	
3각	갱	지	갱	지	갱	갱	지	갱	갱	
4각	개	갱		개	갱	갱		갱		
5각	갱		갱			호		호		
6각	갱		갱			호		허이		

임실필봉농악 예능보유자이자 상쇠인 양진성은 제1각을 2+2+3+3

- 7) 음악은 하나의 장단으로 텍스트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 이상의 장단이 모여 하나의 음악적 텍스트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나 이상의 장단이 하나의 음악적 텍스트를 이루는 경우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 ‘집’이라는 용어는 농악판에서는 그다지 쓰이지 않지만, 민속음악인들이 두 개 이상의 장단(가락)이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룰 때 “장단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농악의 삼채 가락도 3소박 4박의 두 가락이 한 집을 이룬다(줄고, 『언어학 모델에 의한 호남좌도농악의 리듬 분석-삼채 가락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5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2009), 345쪽).
- 8) 양진성, 『필봉농악의 공연학적 연구』(전주: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3쪽. 이 보례는 필자가 임실필봉농악보존회 홈페이지(www.pilbong.co.kr)에 탑재된 음원을 참고하여 교정한 것이다(음영 처리 부분).

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제1각의 제2박과 3박은 “갱-/개개-”의 2+3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갱-개/개-”의 3+2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나라 농악 가락을 시작할 때는 “개갱-”의 앞꾸밈음이 많지만 가락이 이어질 때는 “갱-개”의 뒷꾸밈음으로 구성되는 가락이 많기 때문이다.⁹⁾ 더구나 같은 지점의 장구가락이 “덩-따/궁-”의 3+2로 된 것을 보면¹⁰⁾ 이는 3+2로 구분해야 한다. 즉 제1각은 2+3+2+3으로 된 것이고,¹¹⁾ 이와 같은 채보는 이보형의 기존 조사에서도 밝혀졌다.¹²⁾ 결국 임실필봉농악 호호굿 가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각; 2 + 3 + 2 + 3

2각; 2 + 3 + 3 + 2

3각; 2 + 3 + 3 + 2

4각; 3 + 2 + 2 + 3

5각; 2 + 3 + 2 + 3

6각; 2 + 3 + 2 + 3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 가락의 2소박과 3소박은 최소한의 의미를 갖는 리듬 단위인 리듬형태소(rhythmic morpheme)이다. 이는 ♩ 라는 하나의 음운으로 구별되는 분절음(segment)이 2개 또는 3개가 모여 ♪ 또는 ♫ 이 최소한의 의미를 갖는 1박의 리듬형태소가 되는 것이다.¹³⁾

9) 김현숙, 「농악에서 채보와 분석의 문제」, 『한국음악연구』 제19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91), 77쪽.

10) 양진성은 이 장구가락도 “덩-따/궁-”으로 기보했지만, 오히려 “덩-따/궁-”으로 기보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 우리나라 혼소박 4박 장단 중에 2+2+3+3으로 된 경우는 거의 유례가 없다. 대부분 2+3 또는 3+2의 5소박 둘이 합쳐져 10소박을 이룬다.

12) 이보형 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3집: 농악, 풍어제, 민요편』(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114쪽.

13) 여기에서 리듬형태소가 최소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을 더 쪼개면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없는 단위라는 뜻이다(줄고, 앞의글, 343쪽).

결국 호호굿 가락은 2소박과 3소박이 2+3 또는 3+2의 불균등리듬 넷이 모여 하나의 가락을 이루는 혼소박 4박 가락이다.

2소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가) 갡/ 개-

나) 갡 지

다) 개갱

가)는 2소박으로 치는 것이지만, 쇠의 강세에 따라 “갡 / 개”의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¹⁴⁾ 이들은 음소적(phonemic)으로는 ↓으로 같은 것이지만 음성적(phonetic)으로는 미세한 강세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것이다.¹⁵⁾ 그리고 이렇게 음소 층위(phonetic level)에서는 같지만 음성 층위(phonemic level)에서는 다른 유형이 가락의 흐름에 따라 배열된다. 대개 가락을 시작하는 첫 박이나 가락을 마치는 마지막 박에는 강하게 치는 “갡”이 오고, 가락이 진행되는 중간에는 약하게 치는 “개”가 온다.

나)와 다)는 2소박을 길게 또는 짧게 두 번 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갡 지”처럼 홀가락으로 시작하는 암채[陰拍]와 “개갱”처럼 겹가락으로 시작하는 솟채[陽拍]와 같은 형태이다. “갡 지”는 가락이 시작할 때 나오고 “개갱”은 가락의 중간에 나온다.

3소박은 다음과 같은 4유형이 나온다.

14) 실제 쇠가락에서는 “갡”과 “개”의 중간 형태인 “갡”이 있기도 하다.

15) 이는 마치 눈[眼]과 눈[雪]이 문자적(graphological) 층위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음운적(phonological) 층위에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음운적으로 단모음(眼)과 장모음(雪)의 차이는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삼채에서도 “개갱”과 “개갱.”은 강세의 차이로 음성적 층위에서는 다르다(줄고, 앞의글, 343쪽).

- 가) 갱 --
- 나) 갱-개 / 갱-개
- 다) 개갱 -
- 라) 갱 지갱

가)는 가락을 완전히 중지하는 4째각의 종지에 치는 것으로 미루어 완전한 종지를 시가가 긴 박으로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홑가락인 나)는 주로 가락이 진행되는 중간에 치고 겹가락인 다)는 가락을 시작할 때 친다. 나)는 쇠의 강세에 따라 음소 층위에서는 같지만 음성 층위에서는 다른 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라)는 나)의 “갱-개”에 잔가락을 넣은 것으로서 나)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가락이 진행되는 중간에 치는 것으로 가락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기능을 한다.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제1각에서는 2소박의 기본형인 “갱-”과 3소박의 기본형인 “갱-개”가 2+3+2+3으로 배열된 것이다. 전반부의 2+3은 쇠를 강하게 치고 후반부의 2+3은 쇠를 약하게 친다. 이렇듯이 제1각은 2소박의 기본형인 “갱-”과 3소박의 기본형인 “갱-개”가 2+3+2+3으로 내는 가락, 즉 내드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제2각은 2+3+3+2로 배열되는데, 제2박은 “갱 지갱”으로 잔가락을 넣은 변형을 친다. 제3각은 “갱 지”와 “갱 지갱”을 연속으로 배열하여 가락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제4박은 “갱-”으로 중지한다. 제4각은 겹가락인 “개갱”을 연속해서 치고 제3박과 제4박에서는 기본박을 치면서 완전히 중지한다. 이후 제5각과 제6각에서는 “호호”의 구령이 이어진다.

결국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제1각에서는 기본 가락을 치고, 제2각에서는 장식 가락을 1번 삽입하여 가락을 고조시키고, 제3각에서는 장식 가락을 여러 번 삽입하여 절정을 이루고, 제4각에서는 중지하고, 제5각과 제6각에서 구령을 넣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런 호호굿 가락은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경결해(起輕結解)의 전통적인 이야기적 플롯(plot)을¹⁶⁾ 쇠가락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어서 두 각의 구령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음악적 텍스트(text)를 이루는 것이다.

제1각	제2각	제3각	제4각	(제5각	제6각)
「-----」	「-----」	「-----」	「-----」	「-----」	「-----」
기(起)	경(輕)	결(結)	해(解)	(구	령)
기본 가락	기본 가락	장식 가락	종지 가락		
	+장식 가락				

이렇게 호호굿 가락이 혼소박의 불균등리듬으로 된 지역농악으로는 곡성죽동농악과 진안중평농악을 들 수 있다. 곡성죽동농악은 임실필봉농악과 같이 제1~4각은 쇠가락이 기경결해의 플롯이고 제5~6각에 구령이 들어간다. 또한 매 각의 리듬구조도 곡성죽동농악과 임실필봉농악은 일치한다.¹⁷⁾

진안중평농악의 호호굿 가락도 2소박과 3소박의 불균등리듬으로 된 점에서는 임실필봉농악과 곡성죽동농악의 호호굿 가락과 같은 맥락이지만, 쇠가락이 3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이들과는 차이가 있다.

진안중평농악과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 쇠가락을 비교하면 진안중평농악에서는 임실필봉농악의 제1각에 해당하는 2+3+2+3의 내는 가락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임실필봉농악의 제1각은 2소박의 기본형과 3소박의 기본형이 2+3+2+3으로 내드름을 확실히 드러나

16) 이는 판소리나 산조 등에서 나타나는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경결해(起輕結解)의 플롯과는 다른 것이다.

17) 이왕재, 2009, 『호남풍물의 호호굿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44쪽.

18) 길석근, 1998, 『전라 좌도농악의 판굿가락 분석-김봉열 판굿 가락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쪽. 이 보례는 길석근이 10/8박자로

〈보례 2〉 진안중평농악의 호호굿 쇠가락¹⁸⁾

1각	갱		갱			호		호	
2각	갱		갱			호		호	
3각	갱		갠	지	갱	갠	지	갱	갱
4각	갠	지	갠	지	갱	갠	지	갱	갱
5각	개	갱		지	갱	갱		갱	

는 기능을 하는데 비하여 진안중평농악에서는 이것이 결여된 것이다. 진안중평농악의 판굿에서는 호호굿 본가락을 치기 전에 어름굿을 치는데, 어름굿은 일정한 리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가 점점 빨리 치면서 이후의 굿을 준비하는 가락이다. 이어서 호호굿의 구령 부분을 치고 쇠가락이 시작된다. 즉, 진안중평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구령을 먼저 시작하는 점에서 쇠가락에 이어 구령을 외치는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 가락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판굿에서 호호굿이 진행되는 것을 치배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호굿을 위한 내드름 가락을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안중평농악에서는 호호굿의 내드름 가락을 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진안중평농악과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을 연행하는 맥락, 즉 컨텍스트(context)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호호굿 가락의 음악적 텍스트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남원농악의 호호굿 가락

남원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3소박 4박과 혼소박 4박이 혼합된 “혼합박”으로 규정한다.¹⁹⁾ 즉 남원농악의 호호굿의 본가락은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 가락처럼 혼소박 4박이지만 구령 부분은 3소박 4박으로 규정한다.²⁰⁾

기보한 오선보 악보를 정간보 형식으로 바꾼 것이다.

19) 김정헌, 2003, 『남원농악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례 3> 남원농악 호호굿 중 구령 부분²¹⁾

재	쟁	호	호	재	쟁	호	허
---	---	---	---	---	---	---	---

남원농악 호호굿 구령 부분의 음원에서²²⁾ 각 음의 소요시간을 측정하면 위의 <보례 3>과 같이 1:2의 비율로 나타나지 않는다.

<표 1> 남원농악 호호굿 중 구령 부분 소요시간 측정

재	쟁	호	호	재	쟁	호	허
0.76	1.07	0.6	1.02	0.74	1.1	0.84	1.02

위의 <표 1>에서 각 음의 소요시간을 측정하면 0.75:1 정도로 1:2가 아니라 3:4 (또는 3:5, 4:5) 정도의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비율이면 3소박으로 1:2의 비율이라기보다는 혼소박의 2:3의 비율에 가까운 것이다. 즉, 남원농악 호호굿의 구령 부분도 3소박 4박이라기보다는 2소박과 3소박의 혼소박 4박이다.²³⁾ 즉 남원농악 호호굿 가락은 다음의 <보례 3>과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남원농악 호호굿 가락은 임실필봉농악 호호굿 가락과 마찬가지로

20) 남원농악보존회 홈페이지(www.namwongut.org)의 가락보에는 구령 부분이 3+3+2+2로 기보되어 있다. 그러나 쇠가락은 쟁(↓) 쟁(↓+↓)의 2+4, 구령은 호(↓) 호(↓)의 2+2로 기보되어 있는 점에서 잘못된 기보라고 할 수 있다.

쟁	쟁			호	호
쟁	쟁			호	허

21) 이 보례는 김정현이 12/8박자로 기보한 오선보 악보를 정간보 형식으로 바꾼 것이다. 김정현, 앞의글, 95쪽.

22) 이 분석을 위한 음원은 남원농악보존회 홈페이지(www.namwongut.org)에 탑재된 것으로 남원농악 예능보유자인 류명철이 상쇠, 김정현이 부쇠를 맡은 것이다.

23) 이렇게 혼소박 4박을 3소박 4박으로 느끼는 것이 연주자의 관행적인 감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채보상의 오류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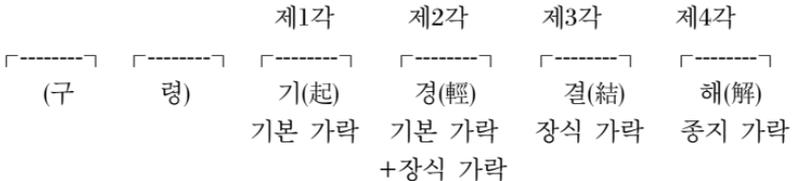
24) 김정현의 악보에는 제4각도 3소박 4박으로 채보되었지만, 이도 혼소박 4박으로 채보되어야 한다.

<보례 3> 경정된 남원농악 호호굿²⁴⁾

구령	재		쟁			호		호	
구령	재		쟁			호		허	
1각	쟁		쟁		재	쟁		쟁	재
2각	쟁		쟁	그	재	쟁		재	쟁
3각	쟁	그	쟁	그	재	쟁	그	재	쟁
4각	재	쟁	재	쟁		쟁		쟁	

지로 혼소박 4박 가락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이런 구성이 임실필봉농악 호호굿 가락과 마찬가지로 기경결해의 플루트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령이 쇠가락 4각에 이어 나오는 임실필봉농악과는 달리 남원농악에서는 구령이 먼저 나오는 점에서 음악적 텍스트의 차이를 보인다.

- 구령1; 2+3+2+3
- 구령2; 2+3+2+3
- 제1각; 2+3+2+3
- 제2각; 2+3+3+2
- 제3각; 2+3+3+2
- 제4각; 2+3+2+3



3) 균등리듬의 호호굿 가락

임실필봉농악과 남원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2소박과 3소박이 혼합된 불균등리듬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구례잔수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표 2〉 구례잔수농악 호호굿 구령 부분

갱		갱		허		허	
	0.79		0.76		0.72		0.81
갱		갱		허		허	
	0.71		0.74		0.68		0.73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되어있다. 구례잔수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다음과 같다.

〈보례 4〉 구례잔수농악 호호굿²⁵⁾

쇠 내는 가락

갱		갱		허		허	
갱		갱		허		허	

본가락

1각	개	갠		개	갠		갠	지	개	갠	
2각	갠		지	개	갠		갠	지	갠	개	갠
3각	개	개	개	개	갠		개	개	개	개	갠
4각	개	개	개	개	갠		갱			갱	
5각	허			허							
6각	갱			갱			허			허	

구례잔수농악의 쇠 내는 가락의 각 음의 소요시간을 측정하면²⁶⁾ 거의 균등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균등리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허허”의 구령 부분은 앞소리에 비해 뒷소리가 미세하게나마 길게 낸다.

구례잔수농악 호호굿 본가락은 제1각에서 “개갠-”으로 겹가락의 숫자로 강하게 시작한다. 그리고 제2각은 “갠-지”로 홑가락의 암채로 시작하는 점에서 제1각과 차이가 있다. 제3각과 제4각은 “개개개”의

25) 나경수·이용식, 『구례잔수농악』(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26) 이 분석을 위한 음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된 동영상으로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 출간을 위하여 촬영한 판굿이다.

연타로 강하게 시작하고 제4각에서 중지한다. 제5각은 쇠가락이 없이 구령만 붙이기 때문에 반 장단이 비게 된다. 제6각은 쇠가락과 구령이 이어진다.

구례잔수농악 호호굿 가락은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된 점에서 불균등리듬으로 된 임실필봉농악이나 남원농악의 호호굿 가락과 다르다. 즉, 마을 주민에 의해 전승되는 마을굿의 전통을 간직한 구례잔수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균등리듬이고, 전문가에 의해 전승되는 걸립굿의 전통을 간직한 임실필봉농악과 남원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불균등리듬이다. 마을굿과 걸립굿은 치배의 편성이나 복색 등에서도 차이가 있고²⁷⁾ 가락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균등리듬으로 된 혼소박 가락은 연주하기가 쉽지 않은 가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등리듬으로 된 혼소박 가락을 균등리듬으로 된 가락으로 연주하기 쉽게 바꾸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예를 들어 진안중평농악의 상쇠였던 김봉열은 금산농고 학생들을 지도하여 1983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면서 불균등리듬으로 된 가락을 균등리듬으로 된 가락으로 바꾸었다. 본래 진안중평농악의 가진열두마치와 호호굿은 혼소박 4박의 불균등리듬이었지만 김봉열은 이를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바꾸어 학생들에게 지도했고, 금산농악은 이런 균등리듬의 가락을 연주한다.²⁸⁾ 즉 진안중평농악이 경연대회 참가와 이에 따른 교육이라는 새로운 맥락을 맞게 되면서 불균등리듬의 음악이 균등리듬으로 바뀌는 음악적 텍스트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27) 즐고, 「음악가집단의 성격에 따른 음악문화의 특성-호남좌도농악의 마을굿과 걸립농악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1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7), 243~262쪽.

28) 길석근, 1998, 「전라 좌도농악의 판굿가락 분석-김봉열 판굿 가락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25쪽.

〈보례 5〉 진안중평농악의 호호굿(상)과 금산농악의 호호굿(하)²⁹⁾

이런 사례에 미루어 마을농악인 구례잔수농악의 호호굿 가락이 균등리듬인 것은 본래 호남좌도농악의 불균등리듬이 치기 어렵기 때문에 균등리듬으로 쉽게 바꾼 것일 가능성이 많다. 2007년 조사한 구례잔수농악의 호호굿 가락도 혼소박 4박의 불균등리듬 가락으로 조사되었다(〈보례 6〉). 2007년 당시는 구례잔수농악이 마을 주민 위주로 재결성될 당시인데, 이 때 상쇠인 김용현(1929년생)과 설장구인 이호현(1938년생)이 마을 주민들에게 농악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당시 구례잔수농악의 가락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상쇠와 설장구만 연주할 수 있고, 치배들에 대해서는 교육중”이었다고 한다. 상쇠인 김용현과 설장구인 이호현은 20대부터 쇠와 장구를 연주하였고, 젊어서부터 주위의 구례좌도농악이나 남원농악 등에도 참여할 정도의 예술적 기량을 갖춘 이들이었다. 이런 전문가적 기량을 갖추었던 김용현과 이호현이 친 호호굿의 쇠와 장구 가락은 혼소박

29) 길석근, 앞의글, 24~25쪽.

4박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2006년 12월 잔수농악보존회를 결성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한 이후의 호호굿 가락은 <보례 4>와 같이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바뀐 것이다.³⁰⁾ 결국 구례잔수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본래 혼소박 4박의 불균등리듬이었던 것이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쉬운 균등리듬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구례잔수농악도 새로이 결성된 보존회 교육이라는 새로운 맥락에 의해 불균등리듬이 균등리듬으로 음악적 텍스트가 변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김용현과의 구술채록을 통해 바뀐 과정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김용현은 호호굿 가락이 예전부터 전승되던 가락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필자가 김용현에게 호호굿 가락을 구음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구음은 3소박 4박의 균등리듬보다는 혼소박 4박의 불균등리듬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필자가 재차 구음을 요구했을 때는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용현은 호호굿에 대한 리듬구조를 혼소박 4박이나 3소박 4박 등의 분석적 개념으로는 구분을 불명확하게 한다. 이는 김용현이 전승자로서 구음과 쇠가락으로 전승하는 가락이 변화한 것에 대해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전승자의 민속적 평가(folk evaluation)와 연구자의 분석적 평가(analytical

30) 김용현에 의하면 2006년 12월 잔수농악보존회가 결성될 당시에는 지배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구례잔수마을에서는 이전에는 주로 정월 초사흘에 당산제만굿을 쳤고, 반드시 남성만 참가하지 여성은 참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7~8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으로 굿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잔수농악보존회를 결성해서 각종 대회나 행사 등에 참가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30명 이상의 지배가 필요했고, 마을의 남성만으로는 구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성을 참여시키기 시작했다(김용현 대담, 2013. 4. 9). 이 과정에서 전혀 음악적 교육을 받지 않았던 마을 여성들에게 불균등리듬으로 된 호호굿 가락은 학습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용현과의 구술채록은 2013년 국립문화재연구소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보례 6> 2007년 조사 당시의 호호굿³²⁾

① 허허굿

젠		젠		허		허		쇠 (도입 및 넘어갈 때)
젠		젠		재		재		쇠 (2회)
재	젠	젠	지	젠	젠	지	젠	쇠
젠		젠		재		재		쇠 (2회)
덩		덩		허		허		장구
덩		덩		허		허		
덩		덩	기	덩		더	덩	
더	덩	덩	기	덩		더	덩	
덩		덩	기	덩		더	덩	

② 자진허허굿

젠		젠	지	젠	젠	지	젠	젠	쇠 (5회)
재	젠	젠	지	젠	젠	지	젠	젠	쇠 (1회)
젠		젠		허		허			쇠
젠		젠		허		허			쇠
재	젠	젠	지	젠	젠	지	젠	젠	장구

evaluation)의³¹⁾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4. 맺는말

호남좌도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군대의 훈련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호호”하는 구령은 군대의 군령의 흔적이었다고 한다. 호남좌도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불군등리듬의 혼소박 4박 가락이다. 이는 임실필봉농악, 곡성죽동농악, 진안중평농악 등의 호호굿 가락에서 전형적으로

31) 엘런 메리엄, 박미경 역, 『중족음악학』 『탈脫 서양중심의 음악학』(서울: 동아시아, 2000), 53~54쪽. 이런 문화전승 주체인 내부인(insider)과 연구자인 외부인(outsider)의 내관적(emic)/외관적(etic) 시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한국음악학과 에믹(emic)/에틱(etic) 논제』, 『음악논단』 제17집(서울: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77~99쪽 참조.
 32) 이경엽 외, 『구례산수농악』(구례: 구례산수농악보존회, 2007), 145쪽.

보여진다. 예를 들어 임실필봉농악의 호호굿 가락은 치배들이 4각을 연주하고 구령에 맞춰 2각을 연주한다. 제1각에서는 기본 가락을 연주하며 점점 장식 가락을 많이 넣어 4각이 “기경결해”의 이야기 구조를 이룬다. 이어서 치배들이 “호호”하는 2각의 구령이 이어진다. 이렇게 혼소박 4박으로 된 호호굿 가락은 남원농악에서도 나타난다. 남원농악의 구령 부분은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음원의 구령 부분의 시간을 측정하면 혼소박 4박의 불균등리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을농악인 구례잔수농악의 호호굿은 이와 달리 균등리듬의 3소박 4박 가락이다. 이는 불균등리듬의 혼소박 가락이 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농악인 구례잔수농악에서는 균등리듬으로 된 3소박 4박 가락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런 변화과정은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쉬운 균등리듬으로 바꾼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변화는 혼소박 4박의 불균등리듬으로 된 진안중평농악의 호호굿 가락을 상쇠였던 김봉열이 금산농악을 가르치면서 쉬운 3소박 4박의 균등리듬으로 된 호호굿 가락으로 변형시킨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즉, 불균등리듬으로 된 호호굿 가락은 임실필봉농악, 곡성죽동농악, 진안중평농악, 남원농악 등과 같이 예능적 기량이 뛰어난 상쇠에 의해 전승된 농악의 전통에서 전승된다. 그러나 구례잔수농악과 같이 마을 주민이라는 비전문가가 연주하는 마을농악에서는 호호굿 가락을 연주가 쉬운 균등리듬 가락으로 변형해서 치는 것이다. 결국 불균등리듬의 호호굿 가락은 전승과 연행 맥락, 즉 음악의 컨텍스트(context)가 바뀌면서 이에 따라 음악적 텍스트도 균등리듬으로 바뀐 것이다.

【참고문헌】

- 길석근, 1998, 「전라 좌도농악의 판굿가락 분석-김봉열 판굿 가락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2003, 「남원농악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91, 「농악에서 채보와 분석의 문제」, 『한국음악연구』 제19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 김현숙, 1988, 「호남좌도농악에 관한 연구-임실과 진안의 판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1999, 「전남지역 매구의 길굿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7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 나경수·이용식, 2011, 『구례잔수농악』,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변미혜 외, 2012, 『국악용어사전』, 서울: 민속원.
- 양진성, 2008, 「필봉농악의 공연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앨런 메리엄, 박미경 역, 2000, 「종족음악학」 『탈脫 서양중심의 음악학』, 서울: 동아시아.
- 이경엽 외, 2007, 『구례잔수농악』, 구례: 구례잔수농악보존회.
- 이보형, 1969, 「무가와 판소리와 산조에서의 엇모리가락 비교연구」, 『이혜구박사 송수기념 음악학논총』, 서울: 한국국악학회.
- 이보형 외, 198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3집: 농악, 풍어제, 민요편』,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이왕재, 2009, 「호남풍물의 호호굿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식, 2009, 「언어학 모델에 의한 호남좌도농악의 리듬 분석-삼채 가락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5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 이용식, 2007, 「음악가집단의 성격에 따른 음악문화의 특성-호남좌도농악의 마을굿과 걸립농악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1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이용식, 2003, 『한국음악학과 에믹(emic)/에틱(etic) 논제』, 『음악논단』 제 17집, 서울: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이용식, 2005, 『황해도 곳의 음악인류학』, 서울: 집문당.

투고일: 2013. 05. 24 심사기간: 2013. 05. 27~2013. 06. 10 게재확정일: 2013. 06. 14

A musical study of Hoho-gut in the farmers' band music in Korea

Lee, Yong-Shik

Many musical pieces are in the asymmetric rhythm in Korea. We can find asymmetric rhythm in the lyrical song cycle (gagok), one of the representative classical pieces, entitled Yeongsan hoesang, the shamanic music, and the Buddhist music. It seems that the asymmetric rhythm preserves the ancient musical trait of Korea. In farmers' band music, called nong-ak, the asymmetric rhythm is found among hoho-gut, believed to be derived from military band music, and jil-gut, performed when the band marches to the village shrine. It means that the asymmetric in the farmers' band music preserves the ancient religious trait of the music.

The hoho-gut is in the asymmetric rhythm of duple and triple meters. It consists of six phrases of the rhythmic cycle of 10/8. The musicians play the instruments for four phrases and they call exclamation of "Ho Ho" to imitate the call of soldiers for two phrases. It means that six phrases of the rhythmic cycle of 10/8 compose a musical text.

The hoho-gut performed in Gurye village is not in the asymmetric rhythm but in the symmetric rhythm of 12/8. It seems that the hoho-gut in this village used be in the asymmetric rhythm as is in other villages. It was

changed to the symmetric rhythm when the elder musicians tried to teach the music to the next generation. The musicians acknowledged that the asymmetric rhythm was not easy for the students to learn that they change to the symmetric rhythm for the students to learn the music easier. In sum, when the music's context is changed, the musical text is easily m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context.

Key words: Nong-ak, Farmer's band music, Asymmetric rhythm, Musical context, Musical text, Korean music

일제강점기 광주읍 ‘궁민(窮民)’ 연구 -천정(泉町) 궁민가옥 철거사건을 중심으로-

정 경 운*

- | | |
|-------------------------------|------------------------------|
| 1. 들어가며 | 4. 제2차 하천정리사업과
‘학강정 갱생지구’ |
| 2. 광주읍 ‘궁민’의 형성과
‘대광주건설계획’ | 5. 나가며 |
| 3. 천정(泉町) 궁민가옥 철거와
‘구제연구회’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32년 광주읍 천정(泉町) 일대에 형성되어 있던 빈민들의 집단거주부락 철거와 관련된, ‘궁민가옥 철거’ 사건을 살펴본 것이다. 이 철거사건은 1932년 7월 말에 시작,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광주읍가옥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와 읍당국과의 교섭과정, 같은 해 12월 빈민들이 임정(林町)에 집단이주지를 마련해 이주하기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건이다.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일제강점기 당시 광주천을 중심으로 도시빈민들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이다. 광주는 1920년대 들어와 근대 도시화를 향한 ‘대광주건설’을 모토로 삼고, 1925년에 ‘시가미화정화’를 위한 “면(面) 3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중 ‘하천개수’에 해당하는 하천정비사업은 1926년부터 1928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로써 광주천 주변에는 주택지와 여러 가지 시설이 입주할 넓은 택지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택지에 1920년대 후반부터 ‘궁민(窮民)’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집단거주부락을 형성한 것이다.

이 하천부지는 광주읍(邑) 소유지였기 때문에, 광주읍 당국에서는 불법 점유로 판단, 1932년에 강제 철거에 들어가는데, 그 첫 실행 장소가 바로 천정 일대였다. 당시 천정 일대 240여 호 가옥 중, 198채가 철거당했으며, 해당 궁민은 869명이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난 이들을 위해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궁민구제연구회’가 조직되어 읍 당국과 교섭을 벌어나간다. 그러나 4개월에 걸쳐 진행된 교섭은 읍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다. 결국 이 사건은 총독과의 면담을 통해 얻어낸 임정(林町) 부지로 그해 12월에 겨우 30여 호가 이주하는 결과로 끝나고 만다.

이 과정은 일제 행정당국의 빈민에 대한 무대책, 임시적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숙제를 남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조직의 구성과 지난한 투쟁, 시민의 관심과 원조 등 광주가 시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4년 후인, 1936년 금정, 양림정 일대의 빈민부락 철거문제가 다시 지역사회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을 때,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도시빈민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학강정 갱생지구’)하는 단초를 제공해주게 된다.

1. 들어가며

일제강점기 도시빈민의 형성은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경제적 파탄과 직접 관련¹⁾된다.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된 결과, 지주 중심의 토지 집중이 강화되면서 직접 생산자인 농민 대부분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로 전락했다. 특히 1929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는 농민생활을 더욱 악화시켜 1930년대 초에는 춘궁기에 생활이 궁핍한 농가가 전국 총 농가의 44%에 이를 정도였다.²⁾ 농민층의 빈민화는 결국 이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을 찾아 도시나 일본, 만주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도시로 유입된 이들은 곧바로 도시 빈민층으로 흡수되거나 혹은 일정 기간 도시생활을 버텨내다가 점차 궁핍에

1) 김경일은 일제강점기 도시빈민층의 형성과 관련하여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며, 도시빈민이 형성되는 과정을 두 가지 경로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도시에서의 근대적 산업 발전의 결과 도시민이 몰락하여 빈민층이 된 경로, 둘째, 자본주의 진전과 농민층 분해가 진행된 결과 농촌의 이농민이 도시빈민층이 되는 경로이다.(김경일(2004), 『20세기 전반기 도시 빈민층의 형성』,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운동』, 문학과지성사, p.25.) 그러나 1910-20년대에 걸친 식민지 농업정책의 결과, 일정 기간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로 생활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대대적으로 도시나 해외로의 인구이동이 1925년 중반에서 1935년 중반 사이에 일어난 것을 고려할 때, 도시빈민의 형성과 직접 관련된 것은 결국 농업정책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시 이농인구는 88만 8천여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일본이나 만주로 이동한 인구가 61만 1천 명, 국내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27만 7천 명이였다. 도시빈민층이 급증한 시기도 이 시기와 일치한다.(이농인구와 관련해서는 박건홍(1999), 『일제하의 빈민: 토막민·화전민』, 『역사비평』 제46집, 역사문제연구소, p.164, 참조.)

2) 박건홍(1999), 상동.

쫓기게 되면서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경로를 밟는다.

당시 총독부에서는 조선 내의 빈민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거주 의 상태, 세대의 구성, 직업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세민(細民), 궁민(窮民), 결식(乞食) 등 3가지 종류로 빈민을 구분하고 있다. ‘세민’은 생활상 궁박(窮迫)을 고하는 상태에 있어도 반드시 타인의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다행히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이며, ‘궁민’은 생활상 궁박을 고하여 긴급히 하등의 구제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식’은 여러 곳을 부랑배회하여 자기 및 그 가족을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빈곤을 호소하여 상업(常業)적으로 구조를 비는 사람을 말한다.³⁾ 이중 결인(결식)들은 일정한 거주지를 정하지 않은 채 도시를 배회하지만, 이른바 ‘궁세민(窮細民)’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공유지나 민유지의 공지(空地)에 ‘토막(土幕)’이나 ‘불량주택’⁴⁾을 짓고 집단거주부락을 형성하게 된다.

‘토막’이나 ‘불량주택’ 들은 남의 땅을 무단 점거한 불법건축물이었던 데다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시미관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192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철거 대상이 되다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3) 善生永助(1928), 『朝鮮に於ける貧富考察』, 『朝鮮』 153, p.63.(서일수(2010), 『1930년대 전방 국민구제토목사업의 대도시 사례와 성격:경성·부산·평양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p.12에서 재인용.)

4) 1944년에 출판된 『조선과 건축』(조선건축학회(1944), 『土幕民の生活環境と衛生狀況』, 22권 3호.)이란 잡지에서 “토막이란 국유지 또는 민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지면을 파서 그 단면을 벽으로 삼거나 혹은 땅위에 기둥을 세우고 거적 등을 드리워서 벽으로 삼고 현 양철이나 판자로 간단한 지붕을 만든 원시적 주택”이며, 불량주택은 “토막을 개조 또는 보수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가옥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위생상 유해하거나 또는 보안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조악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강만길(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p.238에서 재인용.)

무작정 철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있다. 대체 이주지나 이전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노천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 철거민들의 집단 항의나 지역사회 구제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광주 또한 마찬가지로 1920년대 중후반부터, 도시빈민들이 시내 외곽에 있는 공유지를 중심으로 토막이나 불량건축물을 짓기 시작해 1930년대 초반이 되면 집단거주부락의 양상을 띠게 된다. 1932년 당시 광주읍 내에는 천정(泉町), 누문정(樓門町), 임정(林町), 금정(錦町), 양림정(楊林町), 호남정(湖南町) 등에 빈민부락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수효만 해도 1,200여 호에 6천여 명의 빈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는 당시 광주읍 인구의 1/6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였다.⁵⁾ 광주에서 이들에게 대한 집단 철거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32년으로, 그 대상지는 '천정' 일대의 빈민촌이었다.

이 글은 1932년 당시 광주읍 천정(泉町) 일대에 형성되어 있던 빈민들의 집단거주부락 철거와 관련된, '천정 일대 궁민가옥 철취'⁶⁾ 사건을 재구성⁷⁾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철거사건은 1932년 7월 말

5) 『동아일보』, 「1년 간 증가, 2천8백여」, 1932.8.31.

6) 당시 광주읍 천정 일대 빈민부락 철거 사건은 '천정 일대 궁민가옥 철취' 사건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궁민'은 사건 초기에 '빈민'으로, '가옥'은 '빈민굴'로 불리다가, 천정 빈민부락 철거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광주읍가옥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가 조직되면서, '궁민가옥'이라는 명칭으로 정리된다.

7) 당시 중앙일간지들에서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빈민부락 철거 사건을 기사화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건의 결과만을 보도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광주읍의 천정 일대 궁민가옥 철거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아일보』만큼은 광주읍의 철거 사건이 일어난 직후, 근 4개월에 걸쳐 33개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이 기사들 중 31개가 8월초부터 9월말까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정 궁민가옥 철거 사건에 대한 『동아일보』의 관심은 당시로선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러

에 시작,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광주읍가옥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와 읍당국과의 교섭과정, 같은 해 12월 빈민들이 임정(林町)에 집단이주지를 마련해 이주하기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재구성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행정당국의 빈민대책이 어느 정도 허술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비록 이 사건은 ‘궁민구제연구회’의 가열한 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연구회에 의한 ‘임시 이주지 마련’이라는 결과로 끝나고 말지만,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광주의 경험은 1936년에 다시 지역사회에 제기된 양림정, 금정 일대의 빈민부락 집단이주와 관련하여 국내 최초의 집단이주계획(‘학강정 갱생이주’사업)을 이끌어내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천정 일대의 ‘궁민가옥 철거’ 사건을 중심으로, ‘학강정 갱생이주’사업, 도시빈민의 형성 조건이었던 광주의 대도시화와 인구유입과정, 그리고 천정을 포함한 광주읍 내의 빈민부락 철거와 직접 맞물려 있는 ‘대광주건설’이라는 광주읍의 도시계획의 전말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한다.⁸⁾

한 일이 가능했었던 이유로는, 천정 사건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 광주지국장이던 최원순의 적극적 관심이 작용했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원순은 도쿄 2·8독립선언의 주역이었을 뿐 아니라, 귀국 후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대한 비판적 반론을 제기하고, 일제의 총독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필화사건을 겪는 등 민족 언론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후 정치부장, 편집국장 대리를 맡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향, 동아일보 광주지국장을 맡아 지내면서 최홍종 목사와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애향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최원순에 대해서는 박선홍(2012), 『광주1백년』 1(심미안), pp.100-107, 참조.) 천정의 빈민부락 철거 사건이 터진 것은 이때이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궁민구제연구회’에 최원순이 교섭부의 일원(각주 17) 참조)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천정 일대의 궁민가옥 철거사건이 지속적으로 기사화되었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철거사건 내용의 상당부분은 『동아일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일간지를 참조하기로 한다.

2. 광주읍 '궁민'의 형성과 '대광주건설계획'

광주가 근대적 도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17년 '면(面)'으로 지정된 이후, 시가지가 발달하고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부터였다. 특히 광주의 인구가 급속하게 팽창한 것은 1920년부터 1930년대 중반기까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광주가 행정중심이자 상공업 중심지로서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때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광주의 인구변화를 보면 다음 표⁹⁾와 같다.

〈표 1〉 일제강점기 광주인구의 변화

구분	세대	인구	인구증가율	비고
1910	2,881	12,256		시가지
1915	2,226	10,575	-14.3	광주면
1920	3,202	15,507	46.6	광주면(지정면)
1925	4,956	23,734	53.1	
1930	6,580	33,023	39.1	
1935	10,852	54,607	66.7	광주부
1940	12,725	64,520	18.2	
1945	16,366	82,431	27.3	

위의 표에서처럼 1920년대 전반기 5년 간 53%를 상회하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935년에는 무려 67%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년 간 이렇게 큰 증가폭을 보이는 이유로는

8) 일제강점기 광주의 빈민부락에 대한 연구로는 박해광(2009)의 『일제강점기 광주의 근대적 공간 변형』(『호남문화연구』 제44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이 있다. 이 논문은 광주가 근대적 공간으로 변모해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빈민들의 생활상, 빈민부락이 형성된 과정이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근대기 광주 빈민과 빈민부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9) 자료: 총독부 통계연보 및 연도별 국세조사 결과(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3), 『광주시사』 제2권, p.263의 표를 재구성함.)

우선 도시 규모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당시 광주는 1923년, 1935년 두 번에 걸쳐 행정구역을 확장¹⁰⁾하게 되는데, 이때 더불어 자연스럽게 인구의 증가 또한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1930년 당시 광주면의 인구가 3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1931년 읍(邑)으로 승격되고, 1935년에는 부(府)로 승격된다. 물론 여기에는 출생에 따른 자연증가와 함께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유입¹¹⁾ 또한 한몫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 확장, 출생, 외국인의 유입과 더불어 10년간의 인구 증가 폭을 높이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광주면(읍/부) 주변의 전남 농민들의 유입을 생각할 수 있다. 전남지역 농민들의 광주 유입에 관해 정확한 자료는 파악할 수 없으나, 전국적으로 농촌 빈민들의 대대적인 이농이 있었던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 사이의 전남 빈농 인구수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1925년 9월 현재 파악된 전남 궁농(窮農) 호수는 27,533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33년 3월말 현재 전남지역 세국민조사에서 조선인 세민은 121,386호(556,294명), 궁민은 68,678호(301,238명), 결인 15,141명으로

10) 1923년 제1차 확장으로 효천면(교사리 일부, 양림리 일부), 지한면(홍림리 일부), 서방면(동계리 일부, 신안리 일부)가 편입되며, 1935년 제2차 확장으로 서방면(장호리, 동계리, 풍향리의 일부), 지한면(홍림리의 일부), 효천면(방림리, 벽도리의 일부, 주월리의 일부), 극락면(신평리의 일부, 내방리의 일부, 운암리의 일부)이 편입된다.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인해, 1912년 광주면적은 약 2km²에 불과했던 데에서, 1923년에는 4.5km², 1935년에는 19km²가 되면서 오늘날의 시가지 밀집지와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광주직할시(1992), 『광주도시계획연혁』, pp.47-48, p.73.)

11) 특히 1910년대 전반기부터 일본인들의 광주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일병합 이전인 1906년에는 116명이었던 것이 1912년 12월 현재 1,925명, 1927년에는 4,591명, 1930년 말에는 6,19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광주거주 일본인 및 외국인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광주직할시사료편찬위원회(1993)의 앞의 책 ‘사회-인구’편(제4장), 광주민속박물관(2004), 『일제강점기 광주문헌집』(『전남지방사정지-광주의 부』(1930), 『광주요람』(1931))의 ‘인구’편을 참조.)

나타나고 있다.¹²⁾ 이들 중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의 농민들이 도시나 해외로 이동했을 것이며, 그들 중 일부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광주로 유입됐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상태의 경제적 조건을 갖고 도시로 이동한 이들이 평범한 도시생활을 했었을 리는 만무하다. 대부분 이들은 도시빈민층으로 바로 흡수되었을 것이며, 재산이 없어 거주할 곳을 구하지 못해 광주 외곽에 있는 빈민촌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실제로 1920년대 후반부터 광주천을 중심으로 빈민 곧 궁민들의 집단거주지가 형성¹³⁾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궁민'들은 주로 광주천 주변의 하천부지에 집중적으로 집단거주지를 형성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천부지에 거주지를 형성했던 데에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진행된 광주의 도시계획¹⁴⁾과 직접 관련이 있다.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대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지방관제의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는데, 그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1920년 10월 20일 면협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 선거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이 '대광주건설'이었다. 이 분위기는 그대로 이듬해로 이어져 1921년 초, 당시의 광주군수 창품익태랑(倉品益太郎)은 광주면장 길촌궤일(吉村軌一)과 함께 '대광주건설계획'을 제창하게 된다. 이 계획은 1925년 광주면에서 수립한 '하수도건 설치', '하천개수' 및 '시장정비' 등 소위 '시가미화정화'를 위한 "면3대계획"의 모체를 이루게 된다. '대광주

12) 강만길(1987), 앞의 책, p.70, p.77.

13)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4) 광주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뒤의 기술 내용은 『광주시사』 제2권 중 '제3장 건설'편(pp.173-261, 전남대 김광우 교수 집필)을 참조, 요약 정리한 것이다.

건설계획'을 주창했던 창품의태랑이 1925년 1월에 새 광주면장으로 부임하면서, “본 면의 광주천 개수공사 및 하수구 신설공사는 시가지 계획상의 기준으로 보아 또한 장차 위생설비로서 모두 긴급시설될 필요있다”는 내용으로 국고보조를 신청, ‘시가미화정화 면3대계획’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 중 ‘하천정비사업’은 현 사직공원 앞 철부 ‘금교’ 부근에서 현 양동시장 부근까지의 광주천 폭을 좁혀 직선화하고 천변도로를 개설하며 이에 따라 매몰될 하천용지 및 토지를 매립하고 새로 구획하여 시장, 상가, 공장, 운동장 등 시설용지 및 일반대지로서 분양하려는 광주 최초의 (신)시가미개발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광주면은 기채하여 공비에 충당하였고 총독부로부터 하천용지를 무상양도 받아 재정적인 기초로 삼았다. 이 사업은 1926년부터 1928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사구간은 ‘금교’에서 ‘누문천’ 유출구까지 좌, 우안 모두 합쳐 3,000m에 이를 만큼 방대한 규모였다. 이로써 직강화 공사가 끝난 광주천 주변은 주택지와 여러 가지 시설이 입주할 넓은 택지가 생기게 된다. 바로 이 택지에 1920년대 후반부터 ‘궁민’들이 모여 들기 시작한 것이다.

3. 천정(泉町) 궁민가옥 철거와 ‘구제연구회’

애초에 이 하천부지에 대한 광주읍의 계획은 상가나 운동장 같은 공영시설 이외에도 200평에서 300평씩 민간에게 불하하여 ‘이상적 주택지’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주택지를 매각한 비용은 하천정리를 하면서 쓴 부채를 상환해나갈 작정이었다. 당시 하천용지만을 총독부로부터 무상양도 받았을 뿐, 공사비용은 전적으로 광주

면이 부담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된 이듬해인 1929년 4월 21일에 면청(面廳)에서 민간 불하를 위한 경쟁입찰에 들어가게 되는데¹⁵⁾, 이 부지를 불하해 가던 과정 중, 점차 시일이 흐르면서 불하되지 않은 천정(泉町, 현 양동) 일대로 궁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1원 내지 5원 가량의 돈을 들여 이 부지에 토막을 지어 살기 시작했고, 3,4년이 흐르는 동안 그 수요는 약 240여 호에 달하게 된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부지는 광주읍의 소유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읍 입장에서는 궁민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1931년 말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가옥을 철거할 것으로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전 재산을 털어 지은 토막을 떠나 갈 데가 없었던 궁민들은 읍 당국의 독촉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32년 7월 말에, 광주읍에서는 10여 명의 인부를 데리고 와, 가옥 200여 채를 강제로 철거시켜 버린다. 이때 쫓겨난 궁민이 800여 명에 달했으며, 그 중 일부는 다른 곳으로 떠났으나,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집이 뜯긴 그 자리에서 흠어진 세간만 겨우 모아 놓은 채, 노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까지 이들에 대한 광주읍의 대책이 전무했음은 물론이다.

천정 일대 궁민들의 비참한 노숙생활이 시내에 알려지자, 광주시내 조선인 중심의 유지들 사이에 대책 마련에 대한 뜻이 전해지게 되고, 1932년 8월 13일, 황금정에 있는 서석의원에 30여 명이 모이게 된다. 이 회합은 최홍종 목사¹⁶⁾의 사회로 개최되어, 김재천이 회합의

15) 『동아일보』, 「광주하천부지 민간에 불하」, 1929.4.12.

16) 이 회합의 사회를 최홍종 목사가 한 것으로 보아, 천정 궁민 문제를 지역 사회에 제기하고 유지들의 뜻을 모은 것도 최홍종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홍종 목사는 '조선나병환자구제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조선나병환자근절연구회'를 조직해 활동 중이었다.(최홍종 목사에 대해

취지를 설명, 고재섭이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장시간에 걸쳐(오후 8시-11시 30분까지) 향후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회합의 결론은 ‘광주읍가옥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이하 ‘구제연구회’)를 조직해, 현장조사 실시와 더불어 읍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회합에서 ‘구제연구회’가 조직¹⁷⁾된다.

이들이 ‘구제연구회’를 조직하면서까지 천정 일대 궁민가옥 철거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순히 이번 문제가 천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광주읍은 천정을 포함, 누문정(樓門町), 임정(林町), 금정(錦町), 호남정(湖南町) 등 하천정리사업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에 불법 점유하고 있던 궁민가옥들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천정 궁민가옥 철거는 바로 그 계획의 첫 실행이었던 셈이다.

당시 하천부지에 토막을 짓고 살고 있었던 호수는 이미 철거된 천정 일대 200여 호를 포함, 대략 1,200여 호에 달했으며,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만 해도 6,000여 명 정도¹⁸⁾로 추산되고 있다. 1932년 당

서는 한규무(2011)의 『오방 최홍종의 생애와 민족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참조.)

- 17) ‘구제연구회’의 조직은 집행위원장(최홍종), 서무부(오현창, 최영균, 김창호), 조사부(김응모, 김유성, 진재순, 고재섭, 정인세), 교섭부(유연삼, 최영욱, 김재천, 최원순, 김용환) 등 14명의 집행부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최홍종 목사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로, 당시 광주지역의 사회운동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다. 최영욱은 최홍종 목사의 동생으로 연구회가 조직되었던 장소인 서석의원 원장이었으며, 김용환·최영균 등은 최홍종과 함께 광주기독교청년회(YMCA)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던 차였다. 김재천은 변호사, 정인세는 YMCA의 유도사범으로 이후 광주지역 청소년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선도하게 되는 인물이다. 최홍종, 최원순, 김응모, 김용환, 최영균, 고재섭, 최영욱 등 ‘구제연구회’의 인사들은 이듬해인 1933년, 빈민구제사업과 민중계몽운동을 위한 민간조직으로 ‘계유구락부’를 창립(1933년 3월 12일)한다.

- 18) 『동아일보』, 『광주궁민구축사건』, 1932.8.31.

시 광주 인구수가 33,257명¹⁹⁾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광주 전체 인구 중 1/6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였다. 만약 광주읍이 대체 거주지나 이전비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행했을 경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제연구회' 입장에서는 천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향후 강제 철거에 내몰리게 될 나머지 궁민들의 문제 또한 풀리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실제로 하천부지 궁민들의 가옥에 대한 전면 철거가 물고 올 사태에 대해 당시 여론은 이를 '절대의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국 이 같이 하면 1,200호, 6,000여명 즉 광주 인구의 1할6분을 가상(街上)에 배회하게 할 것이다. 인도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차라리 그들에게 무의미하다 하고 광주읍 자체의 이해로 보아 이 정책은 가장 저열한 것이다. “보건”, “보안”, “풍기”, “도시미관” 등 도시정책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6천의 유이민은 절대의 위험신호다.(밀줄-인용자) 광주읍 경내에서 그들을 몰아내면 그만이라고 읍당국은 생각할 모양이나 이것도 현대도시행정의 가장 유치기에 쓰던 졸렬한 정책이다. (『동아일보』, 「1년 간 증가, 2천8백여」, 1932.8.31.)

한편, '구제연구회'가 단순히 지역문제에 대한 유지들의 형식적 조직체가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위한 조직체였다는 것은 그들의 발 빠른 활동상황과 더불어 각 부의 담당역할이 분명했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회합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18일 하루 동안에, 조사부가 천정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갖고 교섭부가 읍장 면담까지 실시²⁰⁾한 것이다. '구제연구회'에서 현장조사를

19) 광주읍의 호수와 인구는 1932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7,170호에 33,257명이었다.(『동아일보』, 「1년 간 증가, 2천8백여」, 1932.8.31.)

20) 『동아일보』 1932년 8월 19일자 「천정(泉町) 철취가(撤毀家)만 198호」에 '구제연구회'가 천정 일대를 현장조사한 결과와 함께, 이 결과를 갖고 당

실시한 결과, 천정 일대에서 헐린 토막이 198호이며, 해당 국민은 86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를 갖고 구제연구회 교섭부는 당시 광주읍장이던 오촌신길(奧村信吉)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신병을 이유로 출근이 늦던 읍장을 기다린 끝에, 오촌 읍장과 부읍장을 면담하게 되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읍 당국의 대책은커녕 금년(1932년) 안에 호남정, 누문정을 포함해 가옥 500여 호를 철거할 계획이라는 말만 통보 받았을 뿐이었다.

결국 구제연구회는 읍 당국과 교섭이 간단치 않음을 판단하고, 주변을 공략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다. 먼저 당시 여름휴가를 떠난 전남도지사가 8월 21일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튿날인 22일 시도삼조(矢島杉造) 도지사를 방문한다. 구제연구회 위원들은 도지사에게 광주읍 당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가옥을 철거했다는 것과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이에 도지사는 “잘 고려하여 좋은 방침으로 처리”하겠다고 답을 주게 된다.²¹⁾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에 고무된 구제연구회 교섭부는 다시 8월 24일, 광주읍 의원 14명 전부를 구제연구회 간담회에 초대한다. 그러

시 광주읍장이던 오촌신길(奧村信吉)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병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 구제연구회 위원들이 그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같은 신문 1932년 8월 21일자 『금년 철거 500호, 2천 국민 하처거(何處去)』에는 18일에 구제연구회 교섭부 위원들(최영욱, 김재천, 최원순, 김용환 등 4명)이 읍장과 부읍장을 면담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보아, 18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동시에 그날 바로 읍장 면담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편으로,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구제연구회’의 조사는 우선 천정 일대를 마친 후, 향후 광주읍의 철거 계획이 있는 누문정(樓門町), 임정(林町), 금정(錦町) 등지까지 조사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광주읍 당국에서는 1932년 말까지 하천부지에 있는 토막 500호를 전면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국민들의 수효만 해도 2천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21) 『동아일보』, 「도지사에게 진정, 선처하겠다 언명」, 1932.8.25.

나 당시 광주시내 중앙의원 3층에서 진행된 이 회합에 출석한 읍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구제연구회 집행위원들과 읍의원들 간의 간담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간담을 통해 읍의원들로부터 얻어낸 답변은 '읍의원간친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해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6명의 읍의원 숫자로는 간담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구제연구회 또한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간친회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8월 30일, 읍의원들은 약속대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광주읍회의실에 열린 간담회에는 읍의원들 이외에도 읍장과 부읍장, 서무주임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이 장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하등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구제연구회'에 회답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는 것이었다. 평소 광주읍장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 읍의원들이 그대로 따른 결론이었다.

읍의원 간담회에서도 하등의 대책이 없다고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귀 지(동아일보-인용자)를 통하여 총독과 내무국장의 말을 보았소이다. 총독과 내무국장이 어떠한 말을 듣고 대답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방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 만큼 광주읍에서는 상부의 특별한 명령이 있기 전에는 하등의 대책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동아일보』, 「읍의원도 읍에 합류, '구제책 전문' 회답」, 1932.9.4.)

위의 내용은 읍의원 간담회가 끝난 후,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한 광주읍장의 말이다. 총독과 내무국장이 '구제연구회'에 어떤 약속을 했건 상관없이²²⁾, 지역 사정에 따라 그 해결책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광주읍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2) 읍의원들의 간담회가 있기 전, 총독과 내무국장이 광주읍 천정 궁민가옥 철거 문제에 대해 구제가 필요함을 시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횡설수설」, 1932.9.2.)

그렇다면 “지방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 만큼”이란 무슨 뜻일까. 이는 광주읍에서 궁민가옥철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조선 내에서 특히 1930년대에 대대적으로 행해졌던 토막민 가옥 철거 문제 및 그 해결 방식의 선례와 관련된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막민 가옥철거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1930년대 초반 경성부 송월동의 경우나 길야정(吉野町)의 경우는 토막민 가옥철거와 관련, 이주대책을 보여준 사례²³⁾가 있기도 했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 사례들을 전제한 듯, “경성 기타 다른 도시에 전례가 있는 일인데, 이 길을 밟지 않고 광주읍이 강제로 몰아”²⁴⁾냈다면, 광주읍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던 차였다. 광주읍장은 광주의 사정이 그런 지역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읍이 철거 궁민 대책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광주읍의 추가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철거 궁민들과 관련된 구제비용 항목이 아예 없었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23) 길야정(吉野町)의 경우는 이곳을 담당했던 본정 서에서 토막민 이전 후보지로 효창원을 정해주는 동시에 이전비로 10원씩 지출해준 바 있다(1931년). 송월동의 경우는 당시 170여 호에 8백여 주민들이 토막민들의 거주지가 경성중학교의 소유부지였었는데, 미관상의 이유로 경성중학교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자, 주민들이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6개월에 걸친 지역사회 논의를 거쳐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판단, 1932년 3월에 아현리에 있는 면유지 2,070평을 도 지방비로 매입해 이주시킬 계획을 마련하게 되며, 그해 7월에 160호가 아현리로 이전하게 된다.(『동아일보』, 「이전 후보지도 작성 안고 상천하(霜天下)에 출출하면」(1931.10.11); 『중앙일보』, 「송월동 2번지 주민에게 경찰 우복 철거를 명령, 향로무처의 200여 주민 등, 도 당국에 탄원 제출」(1932.3.28.); 『동아일보』, 「아현리 방면에 이주시킬 계획」(1932.3.13.); 『동아일보』, 「송월동 토막민 아현리에 주접(住接)」(1932.7.24) 참조.)

24) 『동아일보』, 「광주읍유지 궁민 주민 5백여 호 강제 철거」, 1932.9.1.

읍의원들의 간담회(1932년 8월 30일)가 있는 직후인 9월 2일 오후 3시, 광주읍에서는 임시읍회의원회를 개최해 소화7년도 추가예산안 14,453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게 된다. 이때 광주 시내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코자 총독부에 진정하기 위해 예산항목 및 기타 안건을 가지고 상경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광주읍구역확장의 건, 세무감독국신설의 건, 상수도수원지확장의 건, 광주우편국관사이전의 건, 광주경찰서신축의 건, 광주경찰서장경시승격의 건”²⁵⁾ 등 6건뿐이었다. 광주읍장과 읍의원들의 철거 궁민 대책에 대한 간담회 결과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남도지사와의 면담 분위기도 좋았거니와, 총독부 당국의 입장 또한 대체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구제연구회’로서는 읍의원간담회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던 차였다. 그런데 그 논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오자, ‘구제연구회’는 읍당국에 대해 소리 높여 비난을 퍼붓게 된다.

작일의 귀 지(동아일보-인용자)를 통하여 총독부의 방침을 알았소이다. 총독과 내무국장의 그 말에 틀림이 없다 하면 광주읍장의 의견과 방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총독부 방침은 그러한 궁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구제할 것이니 당국자로서는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이요, 광주읍장의 지금까지의 의견과 방침은 필요가 없으니 노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일 구제연구회 위원이 방문하였을 때, 읍장은 재정상 부득이 하여 단행하였으니 대책을 고려치 아니했을 뿐이라, 읍의원들에게 문의할 것도 없다는 것을 언명하였고, 그 후 태도로도 그러합니다. 그 후 또 읍장이 여러 사람들에게 언명하였다는 바를 물으면 읍으로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유일한 방패로 쓰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 대책이 분명하게 있어 보입니다.

읍장이 궁민들의 갈 곳을 고려하여 본 적이 있으며, 조금이라도 노력하

25) 『동아일보』, 「광주읍의회 추가예산 결정」(1932.9.7.)에서 인용.

여 본 적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양심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도 없소. 공법상의 수속도 다 밟지 않고 강제로 파궤한 후 구제연구회가 생겨서 그것이 모 일문지에 게재되었고 그것을 본 도지사가 비로소 읍장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은 데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읍장이 어느 이상한 심리로 자기의 것을 고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읍장을 옹호하는 모모방면 사람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총독부의 대방침이 얼마만한 변화를 가지게 될는지 주목하고 싶습니다.(‘구제연구회’ 모 의원의 담(談). 『동아일보』, 『총독부 방침에 읍 처치 배치』, 1932.9.4.)

읍의원간담회의 회신을 받은 ‘구제연구회’는 9월 2일 오후 8시, 서석의원에 모여 장시간 “비분강개한 논의” 끝에 “도 및 읍 당국에 재차 교섭할 사(事), 남선(南鮮) 순시의 우원(宇垣) 총독의 래광(來光)을 기하여 진정할 사,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경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대책을 강구할 사, 읍당국이 성의를 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로 법적 수속을 할 사”²⁶⁾ 등의 사항을 결의하게 된다. 전남도당국 및 광주 읍당국과의 교섭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법적 수속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는, ‘구제연구회’가 읍의원간담회의 결과에 얼마나 심한 배반감을 느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일단 읍당국의 입장이 총독부의 입장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광주를 순시하게 될 총독을 직접 만나 그 입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원 총독을 면담하는 9월 8일까지 ‘구제연구회’의 활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한편, 읍당국과 ‘구제연구회’의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천정 일대 궁민들의 생활은 더욱 심각해져갔다. 노상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궁민들에게 9월의 날씨는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음식을 변변히 먹지 못한 데다가 오랜 노천생활로 부황병, 설사병은 물론이거니와 전

26) 『동아일보』, 『읍당국이 무성의하면 최후로는 법적 수속』(1932.9.5.)에서 인용.

염병인 적리(赤痢-이질)까지 발생하게 된다.²⁷⁾ 이 때문에 궁민들 상당수가 떠나가 버리고, 9월 들어서는 겨우 31호 정도만 남게 된다.

지난 7월 중에 집을 뜯겨버린 천정 일대의 궁민 8백여 명 중에는 자력을 집을 지어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도 약간 있으나, 그러나 그 대부분은 시내 여기 저기 있는 빈터나 혹은 냇가에 가마니 한두 닢을 치고 2,3명 내지 6,7명의 가족이 웅켜 앉아 이주할 곳을 지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참상이라고 한다.(『동아일보』, 「일기(日氣)는 점한(漸寒) 선처만 고대」, 1932.9.6.)

원래 올테 갈데가 없는 궁민들을 집을 뜯을 때 나온 바름이나 섬피 등속을 싸놓은 천정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노천 생활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광주읍당국에서는 40여 일 동안을 계속적으로 그네의 떠나기를 재촉하였으므로 흐지부지 이리저리 떠나가 버리고 지난 6일에는 31호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동아일보』, 「광주가옥 철취 이후 40일 노천생활」, 1932.9.9.)

게다가 읍당국에서는 9월 6일,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던 31호의 살림살이와 집을 뜯어낸 재목 등마저 인부들을 시켜 하천으로 떠내려 보낸 일을 자행한다. 이런 상태의 궁민들을 더욱 절망적으로 내몰았던 것은 그 주변의 주민들의 행태였다. 읍당국이 인부들을 출동시켜 궁민들의 살림살이를 하천에 버린 그 날 아침, 천정 일대에 주택을 짓고 살던 주민들이 일제히 출동해 아직까지 헐리지 않고 있던 토막 14호를 강제로 철거시켜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가담했던 주민의 변명은 “토막을 짓고 사는 그이들 때문에 집을 짓고 사는 우리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듯”해 그 전날에 주민들이 토막을 철거시

27) ‘구제연구회’는 읍당국과 교섭을 하는 중에도, 철거 궁민들을 위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광주 유지들과 시민들이 현금이나 식량 등을 후원을 해주고 있었다.(『동아일보』, 「광주궁민 노천생활에 전염병까지 발생」(1932.9.17.); 『동아일보』, 「풍전등화의 생령(生靈)에 만주조(滿州粟)를 분급해」(1932.9.10.) 참조.)

키자는 협의²⁸⁾를 했다는 것이었다.

우원 총독이 광주를 방문한 9월 8일 오전, ‘구제연구회’ 위원들(최흥종, 김재천, 최원순 등 3명)은 전남도청 지사실에서 총독을 면담한다. 이들은 총독에게 그간의 진행 상황과 궁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리고, 그 대책으로 임정(林町)에 있는 국유지(1만평 가량)가 적당한 후보지라는 것과 그 땅을 광주읍에 대부하여 궁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한다. 이에 총독이 “명쾌한 어조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받아낼 만큼, 면담 분위기나 그 성과는 ‘구제연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총독의 확실한 답변이 효과가 있었던 듯, 이후 읍당국과 ‘구제연구회’의 교섭은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쌍방의 합의 결과는 총독 면담시에 ‘구제연구회’의 제안대로 궁민들을 임정(林町)에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에 ‘구제연구회’는 9월 10일부터 48명의 인부를 데려와 지평공사를 시작한다.³⁰⁾

그러나 9월 19일, ‘구제연구회’는 느닷없이 광주읍에 “교섭과열 통고”문을 보낸다. 읍당국이 약속을 무시하고 협정을 번복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읍당국이 “읍의 최초 의사를 고집키 위하여 총독 각하의 융화협조하라는 지시를 배반함으로 본 회는 차(此) 이상 읍과 교섭할 여지가 전무케” 되었다는 것이다. 그 통고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소화 7년 9월 19일.

광주읍가옥철거궁민구제 연구회위원장 최흥종, 광주읍장 오촌신길(奧村信吉) 귀하.

귀하와 본 회 대표 간에 광주읍가옥피철헤궁민구제방침을 수차 협의하였으나 귀하는 약속을 무시하고 재삼(再三) 자의(自意)로 협정을 번복하며

28) 『동아일보』, 「자가(自家)를 보존코저 토막 또 철회」, 1932.9.8.

29) 『동아일보』, 「임정(林町)의 국유지를 궁민의 안주지(安住地)로」, 1932.9.10.

30) 『동아일보』, 「궁민 이주지 임정(林町)으로 결정」, 1932.9.12.

시일을 천연(遷延)시킴으로써 능사를 삼으니 차(此는) 읍의 최초 의사를 고
집키 위하여 총독 각하의 융화협조 하라는 지시를 배반함으로 본회는 차
이상 읍과 교섭할 여지가 전무케 됨을 통석히 여기고 자이(茲以) 통고함.
(『동아일보』, 「광주궁민구제 교섭이 파열」(1932.9.22.)에서 인용.)

위 통고문에서 읍당국이 '무시한 약속'과 '번복한 협정'이 정확하
게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애초에 '구제연구회'를 조직한 궁극적인 목
적이 비단 천정 일대 궁민들뿐만 아니라, 당시 하천부지에 토막을 짓
고 살고 있었던 궁민들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섭파열 통고는 한참 임정 이주지
지평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갑자기 벌어진 누문정(樓門町)의
가옥 철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읍은 천정 궁민들에 대한
'구제연구회'와의 쌍방 합의를 한 이후인 18일에, 5-6명의 인부를 시
켜 누문정에 있던 궁민 가옥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도 이에
격분한 '구제연구회'가 읍당국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판단, 19일에 교
섭파열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구제연구회'로부터 통고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읍당국의 철거는 19, 20일까지 진행되는데, 3일 동안
이들이 철거한 누문정 가옥은 30여 호였다. 여기서 발생한 유이민은
200명에 달했다.³¹⁾

양측 간의 교섭 파열이 있는 후, '구제연구회'의 활동 상황은 『동
아일보』를 포함, 어떤 중앙 일간지에도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해 12월 초에 임정에 궁민 30여 호가 이주한 사실이 기사화
된 것으로 볼 때, 지난 9월에 시작한 지평공사는 교섭 파열에도 불구,
그대로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당시 교섭 내용을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없어, 그 내용에 이주를 위한 가옥 건축 비용이 들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12월에 임정에 이주

31) 『동아일보』, 「광주읍에서 인부시켜 30여 가옥 또 철취」, 1932.9.26.

한 국민들이 거처할 곳은 ‘임시수용소’라는 용어로 표현된 것을 볼 때, ‘구제연구회’ 위원들의 모금으로 일단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만을 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임정 입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한 바와 같이 가옥을 철거당한 국민들은 그 대부분이 산지 사방하여버렸으나 30여 호만은 임정에다가 그 당시에 전기 구제연구회에서 건설하였던 임시수용소를 의지하고 입동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으로 전기 연구회에서는 위원 일동이 주머니털이를 해가지고 지난 29일에는 전기한 바의 30여 호가 일제히 토막이나마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으로 30여 호의 국민 140여명은 생활의 근거지를 파괴당한 5개월만에 겨우 동사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동아일보』, 「구제회원의 활동으로 30호 토막 건축」, 1932.12.2.)

이로써 7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근 4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던 광주읍 국민가옥 철거 문제는 임시적으로나마 천정 국민들이 임정으로 이주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은 광주읍 당국의 무성의한 처사와 약속 파기, 해당 국민들에 대한 임시적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숙제를 지역사회에 남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제연구회’라는 지역조직과 그들의 끊임없는 교섭 노력, 지역 유지는 물론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물질적 원조 등 시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광주의 이 경험은 1936년 금정, 양림정 일대의 빈민부락 철거문제가 다시 지역사회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을 때,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도시빈민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단초를 제공해주게 된다.

4. 제2차 하천정리사업과 ‘학강정 갱생지구’

광주읍은 1935년 10월 1일자로 대전, 전주와 더불어 부(府)로 승격되면서, 명실상부한 대도시³²⁾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부’로의 승격을 위해 제2차 행정구역확장을 시도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1,300여 호(8천여 명)을 흡수해 전체 인구가 5만4천여 명이 되는 “호남제일의 대대회”로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새로 편입된 인구 외에도 외지 이주민이 5천여 명이 넘어가면서 주택난이 심해지는 동시에 신건축이 매일 평균 10여 동이 될 정도³³⁾로 활기를 띠게 된다.

광주부로의 승격은 ‘대광주건설계획’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는 기점이 되는데, 1920년대 후반에 광주천 일부만을 정비했던 하천정리 사업을 1936년에 ‘방수공사’ 및 ‘갱생지구설치’라는 명목 하에 다시 속개하게 된다. 두 번째로 실시되는 하천정리사업의 공사구간은 광주천 상류의 ‘금교’와 ‘철교’ 양안이었다.

광주부로 승격되자마자, 하천정리를 먼저 손댔던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보인다. 첫째는 광주부가 연일 커지는 도시의 규모와 더불어 인구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주택문제를 새로운 주택지를 조성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8,820평의 택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350평의 제방용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8,470평은 주택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³⁴⁾ 둘째는 해마다 반

32) 일제강점기에서 도시를 나타내는 ‘부(府)’는 1913년에 서울, 부산, 인천 등에 적용되었으며, 당시 부의 인구기준은 2만명 이상이었는데, 1930년에는 3만 이상으로 하고, 광주읍이 부로 승격되던 1935년에는 남북한을 통해 17개의 부가 있었다.(광주직할시사료편찬위원회(1993), 같은 책, p.264.)

33) 『동아일보』, 「광주부 인구도 5만3천여」, 1935.10.19.

34) 세부적으로는 우안(학강정, 금정)의 6,000평 중 도로용지 230평, 주택지

복되곤 하던 여름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도시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었다. 당시 금정, 양림정 일대의 하천 부지에는 약 5백여 호(2,500여 명)의 빈민들이 집단거주부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홍수 피해자³⁵⁾이자, 동시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들이라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광주부는 하천정리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금정, 양림정 일대의 빈민부락을 철거해야만 하는 과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광주부로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4년 전, 천정 일대 ‘궁민가옥’ 철거 사건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들 빈민부락 처리 과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³⁶⁾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광주부는 하천정리와 함께 학강정에 ‘갱생지구’를 설치하여 양림정, 금정의 빈민들을 집단이주시키는 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이로써 동년 3월 20일 광주부의회가 광주부세출입예산안 외에 18개의 안건을 제출하

5,770평이, 좌안(양림정)의 2,820평 중 도로용지 120평, 주택지 2,700평이 새로 생길 계획이었다. (『동아일보』, 「광주천 정리코 주택지로 이용」, 1936.4.23.)

- 35) 매년 여름이면 이 일대에 수차례씩 홍수가 발생하여 사망자들이 생기곤 했었는데, 사망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홍수 피해자는 이곳 하천부지에 살고 있었던 빈민들이었다.
- 36) “5백여호의 이주지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 광주부 당국의 처치 여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왜 그런고 하니 일로부터 4년 전의 본지에 누보하였거니와 광주천 하류 “현재 광주대교 부근”의 하천을 정리할 때에는 5백여호의 주민 등에게 이주지를 지정하여 주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요, 이전료도 주지 않고 읍당국에서는 5백여호 주택을 강제 철거하였기 때문에 일대 사회문화 하여 4개월 동안이나 분운한 문제가 층생첩출하였었다. 그러므로 금번의 금정, 양림정 일대의 하천정리를 박두해 가지고는 일반시민으로서 그 처치 여하에 관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500여호 빈민 등에 갱생지구의 이상촌」, 1936.4.21.)

는데, 이때 18개의 안건 중 하나가 '河川數地理立並更生地區 設置費起債의 件'³⁷⁾이었다. 하천정리와 더불어 빈민들의 집단이주에 관련된 비용이 예산안에 공식적 안건으로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하천정리'와 묶여 있는 '갱생지구' 예산이 처리되는 데에는 상당한 난관이 따랐다. 광주부 1936년도 예산회의는 4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호남은행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열려 예산안 처리과정을 밟는데, '갱생지구' 예산문제는 마지막 날인 31일에 처리되는 일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30명의 부의원들 중 몇몇 일본인 의원들이 두 개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5백 호 빈민의 이주갱생구역 설치비 3만원과 광주시장개축비 2만5천 원이 너무나 거액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이들은 상기 예산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 "학강정에 그런 부락을 두는 것은 광주부의 수치"라는 표현을 쓰며 "조선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암암리에 표명"함으로써 조선인 부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당시 최준기, 지정선, 정준모 등 3명의 의원이 일본인 의원들과 맹렬한 설전을 벌이게 되면서 부의장(奥村信吉)이 휴회를 선언할 만큼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진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부의장이 정회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개최된 회의석상에서 결국 문제를 제기한 일본인 의원들이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이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기에 이른다.³⁸⁾

이 예산안 통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에 해당될 만큼 각 방면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안이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던 빈민부락 철거가 대부분 대책이 없거나 기껏해야 도시 교외의 일정한 장소로 옮겨놓는 일에 불과했고, 도시가 확대되면 다시

37) 『동아일보』, 「읍 당시 예산보다 2배 반 격증」, 1936.3.30.

38) 이 회의과정에 대해서는 『조선중앙일보』, 「세민구역 문제로 광주부회 대 파란」(1936.4.3.) 참조.

더 먼 곳으로 옮겨 격리시키는 대책 정도³⁹⁾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광주부의 ‘학강정 갱생지구’사업은 도시 내에 집단주거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나 우물, 하수구 등 제반 생활환경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도시간이학교’⁴⁰⁾까지 설치되는, 국내 최초의 계획적 집단이주사업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는 「500여 호 빈민 등에 갱생지구의 이상촌」(1936.4.21.)이라는 제하에, ‘조선 효시의 광주부 계획’이라는 부제를 달고, 그 내용을 전하고 있다.

광주부에서는 올데갈데 없는 500여 호 빈민들에게 영원한 안주지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갱생지구라는 새로운 명칭 하에 1만여 평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곳에다가 도로, 우물, 하수구 등의 제반시설을 완비케 하려고 소화 11년도 예산에 3만원을 계상하여 가지고 방금 그 실행계획을 수립중이라는 데, 이 사실은 전 조선 어느 도시에서든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의미심장한 꽤 사실이라고 하여 각 방면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데, (중략) 사통팔달하게 도로를 개축하고서 중앙에는 공동 정호 2개소와 공동세탁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하수시설도 완비케 하여 어느 도시에서도 별로 볼 수 없는 이상촌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갱생지구가 건설되는 날에는 그 촌락 중심의 간이학교를 설치하여 그네 등의 여자교육을 여행하는 동시에 중심인물을 선택하여 교회사업도 하리라고 한다.(밀줄-인용자)

갱생지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광주부는 1936년 7월3일 3만원의 기채를 조선총독부에 신청하고 그 해 10월 27일 인가를 받는다. 당시 광주부는 빈민들이 이전료만으로는 이 갱생지구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이들을 광주천방수공사와 갱생

39) 이에 관해서는 강만길(1987)의 앞의 책, pp.280-286, 참조.

40) “광주부에서는 부내의 궁세민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조선에 처음 보는 도시간이학교를 설립하기로 준비중이라 한다. 지난 8일 오전 10시에는 남학생 40명과 여학생 38명을 모집해가지고 개교식을 흥학관에서 거행하였는데, 교사도 부내 세궁민의 집단지인 갱생부락에 신축 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동교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흥학관에서 수업하리라고 한다.”(『동아일보』, 「처음으로 생기는 도시간이(簡易)학교」, 1937.6.10.)

지구 매립공사에 인부로 동원한 뒤 여기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저축시켜 갱생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임의 2할(1인 하루 50전의 10전)을 강제로 저축시키고, 또 자신이 직접 가옥을 이전하는 경우 1호당 평균 약 11원이 생기는데 이를 토지매수에 충당하도록 했다.⁴¹⁾ 이로써 광주부는 빈민부락 철거 문제에 항상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대체 이주지와 이전료, 그리고 빈민들의 토지 매입비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 학강정에는 1937년 5월 현재 220호, 1939년 말 현재 280여 호에 달하는 빈민 이주자들이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천정 일대 ‘궁민가옥 철거’ 사건을 중심으로, 근대도시로서의 변화 과정에서 ‘대광주건설계획’이라 불리는 광주의 도시계획과 집단빈민부락의 발생, 빈민부락 집단이주와 관련하여 국내 최초의 계획적 정책 산물로서의 ‘학강정 갱생지구’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일제 행정당국의 빈민에 대한 무대책,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조직의 구성과 지난한 투쟁, 시민의 관심과 원조, 그리고 빈민구제 예산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선인 의원들의 격렬한 논쟁과 그 결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숙고할 만한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1932년 천정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광주지역사회가 그나마 계획적인 정책을 통해 마련했던 ‘학강정 갱생지구’에 대

41) 『광주일보』, 「1936년 천변 빈민들이 집단이주...학동에 전국 첫 갱생지구」, 2012.9.5.

한 해석 문제는 다소 논란거리가 될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 갯생지구가 다른 빈민부락과는 달리 애초에 빈민들의 생활생계를 도모하는 “특정지도구역”⁴²⁾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과 관련된다. 때문에 이 지구가 보여주는 ‘8거리’라는 독특한 공간구조 또한 “갯생지구의 주요 구성원인 빈궁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간주하고 통제와 감시기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망 감시시설의 기본 개념을 차용”⁴³⁾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 도시빈민과 관련된 지역정책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학강정 갯생지구’는 1932년 천정 사건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내내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빈민부락이 철거됨으로써 빈민들이 그대로 노천에 방치되거나 혹은 도시 외곽으로 반복해 쫓겨남으로써 노동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 비일비재 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학강정 갯생지구’는 “조선 효시의 계획”이라 불릴 만큼, 지역행정 차원에서 행해진 계획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광주가 빈민정책에 있어 이런 정도나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4년 전의 ‘천정 궁민가옥 철거’ 사건이 준 경험이 한몫을 단단히 했었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갯생지구’ 예산 처리 당시 부의회를 진행했던 부의장이 4년 전 천정 사건 때, 광주읍장이었던 바로 그 오촌신길(奧村信吉)이었다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에게는 4년

42) ‘학강정 갯생지구’에는 1937년부터 방면위원을 두고 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면서기를 주재시켜 조사 및 지도의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지도방침은 직업, 생활지도, 가족상황 등을 조사하고, 노동력을 감안하여 호주회, 부인회, 근로조, 저축조합 등으로 조직하였으며, 정례집회를 시행했었다.(광주직학사사편찬위원회(1993), 같은 책, p.284.)

43) 한승훈·천득염(2010), 「일제강점기 학동팔거리 갯생지구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권2호, 대한건축학회, p.160.

전의 경험이 학강정 갱생지구 예산처리 과정에서 떠올랐을 것이고, 조선인 의원들의 격렬한 반응에 그 자신이 정회와 개회를 선언, 결국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스스로 승인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책 당사자로서의 일본인 개인에게도 빈민정책에 대한 사고(그것이 자의든 타의든)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위의 두 측면을 고려했을 때, 천정 궁민가옥 철거에서 학강정 갱생 지구에 이르기까지의 광주지역의 경험은 빈민정책의 측면에서 진일보의 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선빈민들을 일괄적으로 감시, 관리하기 위한 체제의 발견과정으로 볼 것이냐 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에 대한 치밀한 해석과 역사적 평가에 대한 문제는 다음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자료(사건 일자별 정리)

『동아일보』, 「광주하천부지 민간에 불하」, 1929.4.12.

『동아일보』, 「이전 후보지도 작성 안코 상천하(霜天下)에 축출하면」, 1931.10.11.

『동아일보』, 「아현리 방면에 이주시킬 계획」, 1932.3.13.

『중앙일보』, 「송월동 2번지 주민에게 경찰 우복 철거를 명령」, 1932.3.28.

『동아일보』, 「송월동 토막민 아현리에 주접(住接)」, 1932.7.24.

『동아일보』, 「천정(泉町) 철취가(撤毀家)만 198호」, 1932.8.19.

『동아일보』, 「금년 철취 500호, 2천 궁민 하처거(何處去)」, 1932.8.21.

『동아일보』, 「도지사에게 진정, 선처하겠다 언명」, 1932.8.25.

『동아일보』, 「1년 간 증가, 2천8백여」, 1932.8.31.

『동아일보』, 「광주궁민구축사건」, 1932.8.31.

『동아일보』, 「광주읍유지 궁민 주민 5백여 호 강제 철취」, 1932.9.1.

『동아일보』, 「횡설수설」, 1932.9.2.

『동아일보』, 「읍의원도 읍에 합류, ‘구제책 전문’ 회답」, 1932.9.4.

『동아일보』, 「총독부 방침에 읍 처치 배치」, 1932.9.4.

『동아일보』, 「읍당국이 무성의하면 최후로는 법적 수속」, 1932.9.5.

『동아일보』, 「일기(日氣)는 점한(漸寒) 선처만 고대」, 1932.9.6.

『동아일보』, 「광주읍의회 추가예산 결정」, 1932.9.7.

『동아일보』, 「자가(自家)를 보존코저 토막 또 철취」, 1932.9.8.

『동아일보』, 「광주가옥 철취 이후 40일 노천생활」, 1932.9.9.

『동아일보』, 「임정(林町)의 국유지를 궁민의 안주지(安住地)로」, 1932.9.10.

『동아일보』, 「풍전등화의 생령(生靈)에 만주조(滿州粟)를 분급해」, 1932.9.10.

- 『동아일보』, 「궁민 이주지 임정(林町)으로 결정」, 1932.9.12.
 『동아일보』, 「광주궁민 노천생활에 전염병까지 발생」, 1932.9.17.
 『동아일보』, 「광주궁민구제 교섭이 파열」, 1932.9.22.
 『동아일보』, 「광주읍에서 인부시켜 30여 가옥 또 철취」, 1932.9.26.
 『동아일보』, 「구제회원의 활동으로 30호 토막 건축」, 1932.12.2.
 『동아일보』, 「광주부 인구도 5만3천여」, 1935.10.19.
 『동아일보』, 「읍 당시 예산보다 2배 반 격증」, 1936.3.30.
 『조선중앙일보』, 「세민구역 문제로 광주부회 대파란」, 1936.4.3.
 『동아일보』, 「500여호 빈민 등에 갱생지구의 이상촌」, 1936.4.21.
 『동아일보』, 「광주천 정리코 주택지로 이용」, 1936.4.23.
 『동아일보』, 「처음으로 생기는 도시간이(簡易)학교」, 1937.6.10.
 『광주일보』, 「1936년 천변 빈민들이 집단이주...학동에 전국 첫 갱생지구」,
 2012.9.5.

2. 논저

- 강만길(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박건홍(1999), 「일제하의 빈민:토막민·화전민」, 『역사비평』 제46집, 역사문제연구소.
 광주민속박물관(2004), 『일제강점기 광주문헌집』.
 광주직할시(1992), 『광주도시계획연혁』.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1993), 『광주시사』 제2권.
 김경일(2004), 「20세기 전반기 도시 빈민층의 형성」,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운동』, 문학과지성사.
 박선홍(2012), 『광주1백년』, 심미안.
 박해광(2009), 「일제강점기 광주의 근대적 공간 변형」, 『호남문화연구』 제44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서일수(2010), 「1930년대 전반 궁민구제토목사업의 대도시 사례와 성격: 경성·부산·평양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한규무(2011), 「오방 최흥종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승훈·천득염(2010), 『일제강점기 학동팔거리 갯생지구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권2호, 대한건축학회.

투고일: 2013. 05. 24 심사기간: 2013. 05. 27~2013. 06. 10 게재확정일: 2013. 06. 14

A study on “Gungmin” of Gwangju-eup in Japan’s Colonial Rule -focusing on the demolition of the houses of Gungmin in Cheonjeong area

Jeong, Kyung-Woon

This study examined the case where the houses of Gungmin (the poor) were demolished, which is related to the demolition of the residential community of the poor in the area of Cheonjeong in Gwangju-eup in 1932.

It was the late 1920 when the residential community of the urban poor started to be formed around the Gwangju Strea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Gwangju pursued “Great Gwangju Construction” as a motto towards the modernized urbanization in the 1920s and established “3 Plans for Myeon (township)” for street beautification in 1925. Among the three plans,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was conducted for three years from 1926 to 1928, creating a wide housing site for houses and various facilities near the stream. It was the site where the Gungmins started to gather and establish their community from the late 1920s.

Since the riverside site was owned by Gwangju-eup, the town authority determined the residential community to be an illegal occupation and demolished it in 1932 starting from the Cheonjeong area. At that time, 198

out of 240 houses in the region were demolished and 869 Gungmins were evicted. For those evicted without any preparation, the “Gungmin Aid Research Society” was established mainly by the local leaders of the town to negotiate with the town authority. However, the 4 month negotiation reached a stalemate due to the sloppy attitude of the authority. The case finally ended with the relocation of only 30 households to the housing site in Imjeong that was earned through the talks with the governor in December of the year.

This left many works to be done regarding the inact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oor and only temporary solutions. On the other hand, it offered Gwangju an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e foundation for the civil society such as forming the autonomous local community group to respond to the social issue, going through prolonged struggles, and getting attention and assistance from the people. Also after 4 years in 1936 when the demolition of the poor village in Geumjeong and Yanglimjeong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local community, it provided a key to the strategic access to the issue of urban poor from a political point of view (Rehabilitation district in Hakgangeong).

Key words: Gungmin, Gungmin Aid Research Society, Gwangju-eup, Cheonjeong, Great Gwangju Construction, Rehabilitation District in Hakgangeong

스토리텔링을 위한 소쇄원의 음양론적 해석에 관한 연구

조인철*

- | | |
|--|----------------------------|
| I. 서론 | III. 소쇄원 내부동선상의 음양변화(陰陽變化) |
| II. 음적(陰的) 성격의 소쇄원
-소쇄계(瀟灑溪)의 음(陰)과
애양단(愛陽壇)의 양(陽) | I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쇄원을 동양사상의 한 부류인 음양론(陰陽論)을 바탕으로 해석한 것이다. 소쇄원은 드러남과 가림의 측면에서 또는 입지적 측면에서 주변의 여러 원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음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애양단(愛陽壇)과 광풍각(光風閣)은 소쇄원의 이러한 음의 성격을 보완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요소이다. 소쇄원의 동선은 반시계방향으로 순환하게 되어 있으며,

* 이 논문은 2013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조교수(professor49@naver.com)

동선상의 다양한 음양변화는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이다. 광풍각은 손님을 위한 공간이며, 제월당(霽月堂)은 주인을 위한 공간이다. 당호(堂號)의 관점에서 보면 광풍각은 양이고, 제월당은 음이다. 한편, 소지(小池)는 맑은 물로 채워짐으로 양, 연지(蓮池)는 탁한 물로 채워짐으로 음이 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대상은 보는 기준에 따라 각각의 음이 각각의 양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음양론이 가진 특징이기도 한데, 하나의 대상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음이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음속에 양이 있고, 양속에 음이 있다는 태극이론과 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쇄원이 오늘날에도 가고 싶은 음양조화를 이룬 생태적 공간으로서, 그것이 어떤 방식의 음양조화를 이루는지, 이야기 거리가 풍부한 문화유산으로서, 음양적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소쇄원을 널리 알리고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초자료로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 서론

소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원림건축이다.¹⁾ 소쇄원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²⁾ 소쇄원의 최초 건립자는 양산보(梁山甫, 1503-1557)이다. 양산보는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 중종14) 이후 낙향하여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원림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소쇄원이 건립된 시기에 관해서 여러 견해가 있으나 “낙향한 지 수년이 지난 1520년대 중반, 양산보의 나이 20대 초반에 처음 건립된 것”³⁾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로 무려 20년간 가꾸기를 계속하여 그의 나이 40세 되는 1542년 무렵에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진 원림이 되었다고 한다. 초창기 소

- 1) 본 연구에서는 소쇄원과 그 일대의 유사시설에 대하여, ‘정자건축’이라는 용어보다는 ‘원림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림건축은 일종의 단지(團地)의 성격이 강하고 정자(亭子)는 단일건축물을 의미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정자건축이라는 것이 원래는 원림건축이었음을 밝혀주는 연구논문이 있어 주목된다. 권수용(2008.12), “16세기 호남 무등산권 원림문화”, 『人文研究』 제55호,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p.393.
- 2) 인터넷지도(네이버지도)로 검색하면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이며, 전화는 061-382-1071,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soswaewon.co.kr>로 소개되고 있다. 20130506검색.
- 3) 김덕진(2007. 6), 『양산보의 기묘사화 체험과 소쇄원 건립』, 『歷史學研究』 제30집, 湖南史學會, p.102.: “소쇄원의 출발점이 된 소쇄정이라는 작은 초가는 낙향한 지 수년이 지난 1520년대 중반, 양산보의 나이 20대 초반에 처음 건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소쇄원 일원에 있는 유명정자들, 즉 송순의 면양정(1533년), 조여충의 관수정(1544년), 김윤제의 환벽당(1555년?), 김성원의 식영정(1560년), 정철의 송강정(1585년) 보다 소쇄원은 앞서 등장한 셈이다. 여러 건물과 다양한 조경을 겸비한 원림 수준은 1530년대에 본격적으로 착공되어 그가 40세 되는 무렵인 1542년경에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소쇄원의 완공은 무려 20년 가까이 진행된 대역사였다.”

쇄원의 틀이 갖추어지기까지, 송순(宋純, 1493-1583)과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도움과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로 드러나고 있다.⁴⁾ 한편 소쇄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산보의 당대에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기는 하였지만, 그의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더욱 다듬어지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에 피해를 입고 복구되는 과정에서 완성도를 더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⁵⁾

‘소쇄원’이라는 명칭의 기원은 『북산이문(北山移文)』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소쇄(瀟灑)’는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다.⁶⁾ 소쇄원은

4) 천득염, 한승훈(1994.12), 『瀟灑園圖와 (瀟灑園)四十八詠을 통하여 본 瀟灑園의 構成要素』, 『건축역사연구』, 서울: 韓國建築歷史學會 제3권 제2호 통권6호, p.69.: “결국 현재의 소쇄원은 정원의 규모나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양산보 한사람의 힘으로 조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송순(宋純, 1493-1592)과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도움이 있었을 것. . .”

5) 成範重(2006), 『16-17세기 호남(湖南) 한시(漢詩)의 풍정(風情); 16, 17세기 호남지방 원림문학(園林文學)의 지향과 그 변이 -소쇄원(瀟灑園)과 부용동원림(芙蓉洞園林)의 구성물(構成物) 명명의식(命名意識)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4권, 한국한시학회, pp.49-50.: “소쇄원의 경우에는 조성자인 양산보가 경영하던 시기의 구성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소쇄원도>에 실린 구조물의 명칭들은 실재성이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즉, 그 구성물의 명칭은 실재하는 사물의 형태나 상태에 대한 설명이 바탕을 이룸으로서 일상적인 용어와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 . 양산보의 손자인 양천운이 원림을 경영하게 되자 주희의 무이구곡에 있던 구조물이나 자연물의 이름에 가탁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 현저한 예가 1614년에 쓴 <소쇄원계당중수상량문>인데, 여기에 나타난 명칭은 주희의 무이구곡의 명칭에 비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6) 이향준(2003.12), 『양산보(梁山甫)의 소쇄기상론(瀟灑氣象論): 그 연원과 의미를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제32·33집, 全南大學校湖南文化研究所, p.240. 각주5): “‘소쇄’란 표현은 『북산이문』의 ‘확고한 지조로 세속을 뛰어넘는 기풍과 한 점 티끌없이 맑고 깨끗하게 세속의 때를 벗어버린 생각 [恥介拔俗之標瀟灑出塵之想]’이란 구절에서 유래했다. 『북산이문』은 알려진 것처럼 저자의 친구였던 주옹(周顛)이 종산(鍾山)에 숨어살자는 약속을 저버리고, 북제(北齊)의 회계군(會稽郡) 해감령(海監令)을 지낸 후 다시 종산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보낸 글이다. 종산의 신령이 절

경내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계곡[이하, 瀟灑溪]을 중심으로 내원(內園)과 외원(外園)으로 구분되고 있다. 소쇄원 내의 남아있는 주요 건물로는 외원의 대봉대(待鳳臺, 소쇄정), 내원의 광풍각(光風閣)과 제월각(霽月閣)이 있고, 현재는 볼 수 없는 고암정사(故巖精舍)와 부원당(負暄堂)이 있었다고 한다.

소쇄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원자료(原資料)로는 양산보 생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하서 김인후의 작품 <48영, 1548년경>, 고경명의 <遊瑞石錄, 1574>, 소쇄원 6대 양경지(梁敬之)에 의해 차운하여 만들어진 <30영, 1690>, 소쇄원 7대 양학겸(梁學謙)에 의해 발간된 <瀟灑園事實, 1775>, <소쇄원사실>과 함께 만들어진 <瀟灑園圖, 1775>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가 있다.

소쇄원에 관한 기존의 다수연구가 있는데, 크게 주제별로 4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쇄원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차원의 연구논문이 있다. 소쇄원의 건립배경, 배후사상, 관련인물에 대한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⁷⁾ 둘째, 소쇄원으로 비롯된 문학작품

의를 지키지 못한 자가 종산에 들어오는 것은 초목을 더럽히는 짓이므로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돌린다는 내용을 통해 주옹의 출처와 진퇴에 대해 은유적으로 통박하고 있다.”

- 7) 기존연구결과를 4가지로 구분하기는 하였지만, 어떤 경우는 그 성격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문헌을 중심으로 소쇄원에 관한 주요연구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吳鍾逸(2003.12), 『소쇄원 양산보의 의리사상』, 『汎韓哲學』 제31집, 汎韓哲學會, pp.99-119., 이향준(2003.12), 『양산보(梁山甫)의 소쇄기상론(瀟灑氣象論): 그 연원과 의미를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제32-33집, 全南大學校湖南文化研究所, pp.237-261., 권수용(2005.2), 『<소쇄원사실>을 통한 소쇄원 연구』, 전남대학교원, 문화재학, 석사학위논문., 김덕진(2007. 6), 『양산보의 기묘사화 체험과 소쇄원 건립』, 『歷史學研究』, 제30집, 湖南史學會, pp.83-118., 권수용(2008.2),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 협동연구과정, 박사학위논문., 권수용(2008.12), 『16세기 호남 무등산권 원림문화』, 『人文研究』 제55호,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pp.357-398., 김

을 근거로 문학적 내용과 소쇄원에서의 경관과 감상에 대한 연구논문이 있다.⁸⁾ 셋째, 건축과 조경분야의 논문이 있다.⁹⁾ 넷째, 기존의 연

덕진(2009. 2), 「<소쇄원사실> 발간과 그 의의」, 『歷史學研究』 제35집, 湖南史學會, pp.61-83., 김덕진(2009.09), 「양진태(1649~1714)의 소쇄원 중흥과 재발전」, 『朝鮮時代史學報』 50, 朝鮮時代史學會, pp.111-139.

- 8) 朴煥圭(1993), 「解題: 고경명(高敬命)의 ‘유서석록(遊瑞石錄)’」, 『고시가연구』 1권, 한국고시가문학회, pp.325-374., 박명희(2002. 8),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 48詠 考」, 『우리말글』 제25집, 우리말글학회, pp.263-286., 成範重(2006), 「16-17세기 호남(湖南) 한시(漢詩)의 풍정(風情); 16, 17세기 호남지방 원림문학(園林文學)의 지향과 그 변이 -소쇄원(瀟灑園)과 부용동원림(芙蓉洞園林)의 구성물(構成物) 명명의식(命名意識)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4권, 한국한시학회, pp.5-53., 韓睿媛(2008), 「양산보(梁山甫)의 ‘효부(孝賦)와 ‘소학(小學)’정신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31권 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pp.469-495., 김덕진(2010.4), 「李夏坤의 湖南 유람과 瀟灑園 방문」, 『지역과 역사』 제26호, 부경역사연구소, pp.211-236.
- 9) 金炫·金龍基(1993.10), 「瀟灑園 木版本과 金麟厚의 瀟灑園四十八詠 詩文分析을 통한 別墅 瀟灑園의 景觀特性에 관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韓國造景學會, pp.11-19., 천득염, 한승훈(1994.12), 「瀟灑園圖와 (瀟灑園)四十八詠을 통하여 본 瀟灑園의 構成要素」, 『건축역사연구』, 서울: 韓國建築歷史學會 제3권 제2호 통권6호, pp.67-90., 鄭瞳昨(1977.12), 「瀟灑園의 造景植物」, 『湖南文化研究』,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9, pp.135-155., 양병이, 박은영, 박 휘(2003.03),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길도원림, 소쇄원, 남간정사,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제21권 제1호 통권 제43호, 한국정원학회, pp.9-20., 김영모(2003.6), 「시짓기와 園林 造營方法에 관한 연구: 瀟灑園四十八詠을 통해 본 瀟灑園의 造營方法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제21권 제2호 통권 제44호, 한국정원학회, pp.1-17., 신용규, 남기봉, 국찬(2004.3), 「한국전통별서정원 소쇄원의 음풍경에 관한 조사연구」, 『生態環境建築』 Vol.4 no.1 통권 11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pp.21-26., 윤일이(2005.12), 「송순의 면양정과 16세기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pp.29-39., 박현아, 윤재은(2009.8), 「소쇄원에 나타난 유희적 조형공간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0 no.4, 한국기초조형학회, pp.135-145., 박현아(2011.8), 『소쇄원의 유희적 특성을 이용한 게스트하우스 계획연구』,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소현수(2011.12), 「차경(借景)을 통해 본 소쇄원 원림의 구조: 「소쇄원

구를 바탕으로 소쇄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소쇄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우리시대의 관점에서 소쇄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¹⁰⁾

본 논문은 소쇄원과 관련된 1차적 원자료와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소쇄원의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소쇄원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4번째에 속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소쇄원을 ‘재미있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동양의 전통사상중의 하나인 음양론(陰陽論)¹¹⁾을 바탕으로 소쇄원을 해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선(瀟灑園詩選)과 「소쇄원30영」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9권 제4호 통권 제78호, 한국전통조경학회, pp.59-69.

- 10) 김명주(2004), 『소쇄원 공간의 재해석을 이용한 도심지 공원계획안 - 陰陽思想을 이용한 수직형 공원으로서의 싹지공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영관(2007),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소쇄원(瀟灑園)과 부용동원림(芙蓉洞苑林)의 배후사상과 공간특성 비교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39권 0호, 한국사상문화학회, pp.329-354., 조태성(2009년 6월), 「소쇄원 조영에 투영된 감성 구조와 공간의 미학: 소쇄원 <四十八詠>과 공간 명칭에 투사된 음양설을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제44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pp.323-348., 장일영, 신상섭(2010.6), 「‘복잡성(Complexity) 이론’에 의한 한국 전통정원의 해석: 한국의 명원 소쇄원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8권 제2호 통권 제72호, 한국전통조경학회, pp.75-85., 임준성(2013), 「<소쇄원48영> 재연 요소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고시가연구』 31권, 한국고시가문화회, pp.247-281.
- 11) 음양론 중에서도 태극음양론과 풍수향법에서 활용된 음양론이 중심이 된다. 이는 음양의 기운적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태극음양론이란 극음극양론, 소음소양론으로 대별되며, 풍수향법상의 음양론이란 음양배합론, 음양교합론, 정음정양론이 중심이 된다. 태극음양론과 풍수향법상의 음양론으로 구분하였으나 풍수향법상의 음양론은 태극음양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태극음양론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관련자료는 조인철(2005),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건축계획론의 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기존의 연구 중에서 소쇄원을 음양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김명주(2004)의 연구 논문¹²⁾이 있는데, 이 연구는 소쇄원을 연구자 나름대로 음양의 구조로 이해하고, 그것을 패턴(Pattern)화하여 ‘쌈지공원’을 설계하는 언어 [Language]로 활용하고자 하였다.¹³⁾ 그 다음 조태성(2009년)의 논문¹⁴⁾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음양설을 토대로 이러한 사상이 원림의 조영과 <사십팔영>의 작시에 있어 어떤 식으로 투영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위의 두 연구 논문에서 소쇄원에 대한 음양구분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소쇄원이 “풍수와 음양오행의 영향은 다른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¹⁵⁾고 하는 일부 연구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행연구가 있다는 자체가 본 연구를 시작하려는 연구자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음양론으로 해석할 범위는 지곡리 123

12) 김명주(2004), 『소쇄원 공간의 재해석을 이용한 도심지 공원계획안 - 陰陽思想을 이용한 수직형 공원로서의 쌈지공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석사학위논문.

13) 건축에서의 디자인적 언어로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패턴랭기지(Pattern Language)인데 다음의 문헌이 대표적인 것이다. Christopher Alexander, 『A Pattern Language-Towns·Buildings·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4) 조태성(2009년 6월), 「소쇄원 조영에 투영된 감성 구조와 공간의 미학: 소쇄원 <四十八詠>과 공간 명칭에 투사된 음양설을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제44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pp.323-348.

15) 양병이, 박은영, 박 휘(2003.03),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길도원림, 소쇄원, 남간정사,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제21권 제1호 통권 제43호, 한국정원학회, p.15.: “소쇄원은 전형적인 성리학자가 조성한 정원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성리학적 영향과 그 당시 유행하던 은둔적인 삶과 도교적인 영향을 모두 받았고, 풍수와 음양오행의 영향은 다른 영향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번지 일대로서 <30영>에서 드러난 확대된 영역이 아니라, <48영>에서 언급된 소쇄원의 좁은 영역으로 한정하며, 또한 <48영>에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석물과 사라진 초창기의 식물 등에 관한 것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II. 음적(陰的) 성격의 소쇄원

-소쇄계(瀟灑溪)의 음(陰)과 애양단(愛陽壇)의 양(陽)

1. 소쇄원의 해석을 위한 음양론(陰陽論)

소쇄원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대상이다. 우선, 양산보가 조선시대 선비로서 당시의 사림에 속했던 일반적 성리학자들이 그랬듯이 원림의 경영을 통해서 ‘주희적 이상세계’나 ‘도연명적 이상세계’ 또는 ‘도가적 이상세계’를 구현하려고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태성의 연구(2009. 6)¹⁶⁾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산보가 <귀거래사>, <오류선생전>, <산해경>, <통서>, <애련설>, <태극도설> 등에 심취하고 유언으로 ‘평천장(平泉莊)’에 비유¹⁷⁾하여 후손들이 소쇄원을 잘

16) 조태성(2009년 6월), 앞의 논문, p.332.: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양산보가 도연명, 주무숙을 사모하며 그들이 저술한 <귀거래사>, <오류선생전>, <산해경>, <통서>, <애련설>, <태극도설> 등을 애독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가 원림을 조영하고자 할 때 음양설이 전혀 도외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7) 김덕진(2007.6), 앞의 논문, p.104.: “양산보는 소쇄원을 지은 후 중국 평천장(平泉莊)의 고사를 따라 후손들에게 관리를 부탁하였다. 당나라의 이덕유(李德裕)는 낙양 30리 밖에 평천장이라는 호사스런 정원을 꾸미어 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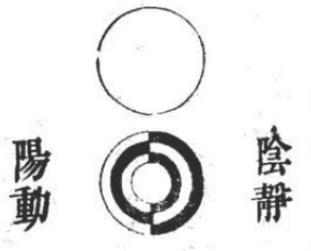
지켜줄 것을 거론했다는 측면에서, 그가 심취한 것과 비유된 건축물에 근거하여 각각의 특성별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태극도설이 바탕이 된 음양론을 중심으로 소쇄원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소쇄원을 음양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쇄원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좀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소쇄원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음양론이란, 주돈이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태극도설에 등장하는 음(陰)과 양(陽)은 상대적인 것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볼 때, 음 또는 양이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음과 양이 상대적이고 그것을 구분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의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사실 태극문양(太極紋樣)에 그려진 큰 음[太陰] 속의 작은 음[少陰], 큰 양[太陽]속의 작은 음[少陰]이 의미하는 것으로, 음속에 양이 있고 양속에 음이 있다는 소음소양(少陰少陽), 음이 극도로 성하면 양으로 넘어가고 양이 극도로 성하면 음이 된다는 극음극양(極陰極陽)의 개념과 통하는 것이다.

또한, 음양론은 서로 짝이 되는 대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처럼 살았지만 죽음은 어쩔 수 없었다. 죽음에 임하여, ‘평천장을 팔아먹는 자는 내자손이 아니다. 또 평천장의 나무 한 그루, 돌 한 점이라도 남에게 주는 자는 착한 자손이 아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이 점은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경기도 고양에 지은 만송정(萬松岡)이라는 별서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라 양산보도 후손들에게 소쇄원의 돌 하나 나무 하나라도 소중하게 보존하고 남에게 팔거나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말도록 자손에게 당부했던 유언에는 단순히 원림의 터전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의도 뿐 만아니라, 선비의 정절한 정신을 더럽히지 말고 절의를 지키고 살라는 유훈의 뜻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탁과 후손들의 노력, 그리고 문인들의 협조로 인하여 소쇄원은 오늘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짝의 논리는 <48영>을 비롯한 소쇄원 관련 문학작품에서 자주보이는 대구적(對句的) 구성(構成)과도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쇄원을 음양의 논리로 설명하기에 앞서, 소쇄원내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 여러 시설들을 어떻게 서로 짝지어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물론 짝이라는 것은 꼭 1:1의 형식이 될 필요는 없다. 다량의 음[太陰]에 대해서 소량인 1개의 양[少陽]이 대응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다. 소쇄원이 매력적인 곳으로 한번 가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주 들르고 싶은 곳이 되는 이유를 음양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주돈이의 태극도 중의 일부분.

양동의 중앙에 음, 음정의 중앙에 양.

출처: 周敦頤 撰, 『太極圖說』,

[刊寫年未詳],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古1-59-48



<그림 2> 태극도(천지자연도).

태극은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엉겨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눈알처럼 보이는 것이 소양소음이다.

출처: 『주역철학사』, p.379. 그림4-1을 수정함.

보는 각도에 따라 음이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며, A가 B와 서로 짝이 되어 음양을 이루다가, 때로는 다른 C, D와 짝이 되어 음양의 짝을 이루기도 한다. 바로 그런 곳이 소쇄원이며, 그러한 ‘복잡성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새로운 감동의 경관과 감상을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소쇄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소쇄원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되는 것이다.

2. 음(陰)의 성격으로 출발한 소쇄원

주변에 있는 여러 원림적 성격의 정자건축¹⁸⁾과 대비하여 볼 때, 소쇄원은 음(陰)의 성격이 강한 원림이다. 소쇄원이 음적인 성격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다. 첫째, 소쇄원의 건립당시 양산보의 처지와 심정이 음(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산보가 소쇄원을 건립하고자 했던 당시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양(陽)의 심정이 아니라, 잔뜩 움츠리고 위축되며 우울한 음(陰)의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소쇄원의 터는 그러한 그의 심정을 대변하듯 계곡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주변의 환벽당이나 식영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원림의 자리가 돌터[突處]이었다고 한다면, 소쇄원은 와터[窩處]에 자리하고 있다. 돌터가 철(凸)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소쇄계¹⁹⁾를 중심에 둔 소쇄원의 와터는 요(凹)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쇄원의 터의 형태적 특징은 음(陰)이다.

셋째, 주변의 다른 원림이 주인자신을 드러내는 부성적(父性的) 성격이 강하다면, 소쇄원은 자신을 낮추고 손님을 배려하는 모성적(母性的)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쇄원의 공간성격

18) 소쇄원 주변의 원림이란 소위 ‘일동지삼승(一洞之三勝)’에 포함되는 환벽당, 서하당 또는 식영정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가 있으며, 그 외에 독수정, 관수정, 취가정, 삼피정, 소산정, 만옹정, 관가정을 말한다.

19) 소쇄원의 대표적인 소재가 ‘소쇄계’이라는 것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 권수용(2005.2), 앞의 논문, p.70.: “소쇄원은 계류(溪流)가 흐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쇄원사실>에서] 계류에 대한 시도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소쇄원의 중요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서의] 48명의 경우만 보더라도 (3), (4), (7), (8), (14), (15), (21), (25), (26), (33), (34), (38)명 등 12수가 계류에 대해 읊고 있다.”

은 무릉도원에 자주 비유되기도 하지만, 자궁공간(子宮空間)²⁰ 즉, 어머니의 자궁(子宮)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3가지의 중요한 측면에서 소쇄원은 주변의 다른 원림과 짝지어 설명할 때, 음적인 성격이 강한 원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태음(太陰) 속의 소양(少陽)으로서 애양단(愛陽壇)

소쇄원의 출발점이 음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보완하는 양적인 성격이 없다면, 그곳은 결코 조선시대에 많은 묵객(墨客)이 찾아들고, 우리시대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한국 대표원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칭으로 대비시켜볼 때, 광풍각(光風閣)을 양²¹이라고 한다면 그의 짝이 되는 음으로서 제월당(霽月堂)이 있는 것처럼,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소쇄원 전체의 분위기를 음의 성격이 강한 태음(太陰)의 분위기로 본다면, 소양(少陽)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 짝이 바로 애양단(愛陽壇)이다. 태극에서 상대적으로 양(量)은 작지만

20) 자궁공간(子宮空間)은 움스페이스(Womb Space) 또는 궁극공간(窮極空間, Ultimate Space)라는 용어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이미 건축가 김수근(金壽根, 1931-1986)에 의해서 주창된 네가티비즘(Negativism)이라는 건축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建築家 金壽根』, 서울: 空間社, 1980. 참조.

21) 광풍각을 음양의 어느 성격으로 놓지 않고 음양소통의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조태성(2009.6), 앞의 논문, p.329.: “소쇄원을 구성하는 건물 중 당(堂, 제월당)이나 정사(精舍, 고암정사)는 내원 공간에 있으며, 닫혀진 공간으로 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각(閣, 광풍각)은 경계의 공간으로 음양의 소통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亭, 소쇄정), 단(壇, 애양단)은 외원공간에 있으며, 열려진 공간이자 건축물이므로 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도의 면에서 압축된 생성의 기운을 갖고 있는 소양은 기운변화의 촉발제가 된다.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이 소양이 그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주변의 다른 원림들과 대비적 관계에서, ‘소쇄계’가 소쇄원을 대표하는 음적(陰的)인 입지조건²²⁾이라고 할 때, 그 소쇄계는 바로 자궁(子宮)이며 조담(槽潭)²³⁾에 물을 담듯이 음기(陰氣)를 머금고 있는 ‘공간’이다. 이때의 계곡은 입구의 대나무 숲길로 들어서기 전에 건너야 했던 물줄기처럼 경계선적(境界線的)인 것이 아니라, 음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容量)을 가진 공간적(空間的) 의미(意味)가 강하다.

자궁공간의 중심인 조담(槽潭)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양(陽)의 성질을 가진 짝이 바로 애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애양단’은 과거에 소쇄원의 별칭²⁴⁾으로 불릴 만큼 압축된 강도로 소쇄원을 대표하는

22) 일부 연구논문에서 ‘소쇄계’를 음양의 경계를 짓는 선적요소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자체를 음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애양단을 그에 대비되는 양으로 해석한다. 위의 논문, p.339.: “소쇄원, 특히 내원을 가르는 물은 ‘소쇄계’이다. 물이 일반적으로 어떤 ‘경계’를 함의한다면, 여기에서는 음과 양의 공간을 나누는 경계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23) 조담은 하서 <48영> 중에서 제 <25영, 조담방욕(槽潭放浴)>이라 하여 소쇄계의 조담이 먹을 감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염정(炎程, 불타는 거리)에서 묻은 발 때를 씻어낼 음(陰)의 핵심으로서 조담이야말로 자연과 합일이 되는 가장 중심적 공간이다.

24) 소쇄원의 별칭에 관해 언급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권수용(2005.2), 앞의 논문, p.86.: “소쇄원에 대한 이칭으로 양원(梁園)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양씨의 원림이란 뜻에서 부르는 명칭일 것이다. 이외에도 소원(小園), 선원(仙園), 동원(東園), 수서원(水西園), 동천(洞天) 등의 이름이 쓰이고 있다.” 권수용(2008.2),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협동연구과정, 박사학위논문. p.25.: “양산보가 남겼다고 전하는 <복주서(覆舟書)>와 <애양단지(愛梁壇誌)>를 살펴보면, <애양단지>는 양산보의 사상과 소쇄원의 경물에 대해서 지은 작품으로 8언시 60행의 운문이다. 이 <애양단지>를 통해서 소쇄원을

것이였다.

기존의 여러 연구는 애양단을 양산보의 의리사상과 관련하여 주로 효와 충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애양단을 효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은 양산보가 지었으나 유실된 ‘애일가(愛日歌)’²⁵⁾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애일과 관련하여 그것을 건축화한 사례는 송순의 애일당(愛日堂), 이현보의 애일당(愛日堂)이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형식이 아니라 마

‘애양단’이라고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김덕진(2009.9), 『양진태(1649~1714)의 소쇄원 중흥과 재발견』, 『朝鮮時代史學報』, 朝鮮時代史學會, 50, p.116.: “양진태는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 가문의 훌륭한 유풍을 고이 간직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소쇄원에서는 한식날 전에 각처에서 온 소쇄원가의 사람들이 모여 강회를 가졌다. 애양단 강회라고 불리는 이 행사에서는 시문을 짓는 방법이 교육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조의 행적이 전수되기도 했다. 애양단 강회는 한마디로 가풍을 전수하는 행사였는데, 이를 주관한 사람이 바로 양진태다.”

25) 권수용(2008.2), 앞의 논문, p.76.: “양진태는 고조할아버지인 양산보가 지어서 부모님의 경사 날에 자제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는 <애일가(愛日家)>를 번역해서 집안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집안대대로의 유업인 효사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근번소쇄고조애일가사(謹翻瀟灑高祖愛日歌辭) 경시일가인(警示一家人)>: 삼가 소쇄고조께서 지으신 애일가를 번역하여 집안사람들에게 경계하여 보이다. 일리자오청아설(日裏慈烏聽我說): 해 속이 까마귀야 내말 들어다오. 이금증시조중참(爾禽曾是鳥中參): 너는 짐승이지만 새 가운데 증참이라. 아유고당쌍학발(我有高堂雙鶴髮): 나에게 고당 늙으신 부모계시니, 원장조채조천심(願將朝彩照天心): 원컨대 아침 빛을 하늘 가운데서 계속 비추어주렴. 위 시는 이미 양산보가 우리말로 <애일가>라는 가사를 지은 적이 있는데, 원문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세주에 쓰인 글은 <애일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해 가운데의 까마귀는 삼족오(三足鳥)를 믿는 우리 전통사상과 맥을 같이하며, 반보보은(反哺報恩)을 하여서 증참과 같이 효도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 이 까마귀에 의탁하여 하늘의 해를 오래도록 하늘 가운데에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내용이다. 즉 까마귀를 매개체로 하여 늙으신 부모님이 오래 사시길 축원하고 있다. 가정의 학문인 효(孝)는 밖으로 나가면 충(忠)으로 변환하게 된다.”



〈그림 3〉 소쇄계와 조담(槽潭).
소쇄원은 이 계곡을 중심으로
조영되었다. 2011년 촬영.



〈그림 4〉 애양단.
소쇄원에 양기(陽氣)를 공급하는 곳이다.
2011년 촬영.

당을 조성하여 단을 만들고 그 명칭을 애양단이라고 한 사례는 소쇄원이 유일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소쇄원의 애양단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타의 애일당과는 다르게 부가적 해석이 필요하다.

‘애일’이란 부모님에게 효도할 날이 많지 않으니 하루하루를 아껴야 한다는 것과 부모님의 은덕이 햇볕처럼 따사롭다는 의미로 해석된다.²⁶⁾ 애양단과 애일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애양단’이라는 명칭이 주로 문중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하여, 소쇄계가 맑고 시원한 음기운의 공급처라고 한다면, 애양단은 부모님과 같은 따사로운 햇볕의 양기운이 공급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서(河西)의 <48영>중의 <제47영, 陽壇冬午>와 소쇄원 6대인 양경지의 <애양단>을 통해서 시로 표현된 애양단의 양기(陽氣)를 느낄 수가 있다. 특히 음기가 성한[太陰] 추운 겨울에 애양단에 내리쬐는 한 줄기의 소양(少陽)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잠재되어 있던 양적(陽的)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26) 成範重(2006), 앞의 논문, p.18.:

김인후: 제47영<양단동오(陽壇冬午): 겨울 한낮의 애양단>
 단전계상동(壇前溪尙凍): 단 앞의 계곡은 아직도 얼어있는데,
 단상설전소(壇上雪全消): 단 위의 눈은 완전히 녹았네.
 침견연양경(枕見延陽景): 팔베게하고 누워 따뜻한 경치를 보노라니,
 계성도오교(鷄聲到午橋): 닭 울음소리[깨우치는 소리]가 한 낮의 다리에
 까지 들리네.

양경지: <애양단(愛陽壇)>

탁발암두수(濯髮巖頭水): 바위 위에 고인 물로 머리를 감고,
 희지단상헌(睇之壇上暄): 따뜻한 단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
 서광무불촉(瑞光無不燭): 서광이 아니 비춘 곳이 없으니,
 역자도산문(亦自到山門): 또한 산문까지도 이르네.

한편, <소쇄원도>에 따르면 애양단에 행음(杏陰)이라는 나무 한그루가 보인다. <소쇄원도>의 많은 내용이 하서의 <48영>과 관련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서는 제15영 <행음곡류(杏陰曲流)>²⁷⁾라는 시제로 이 행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행음(杏陰)은 공자가 은행나무 그늘아래에서 제자들에게 강론했다는 고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리학적 의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해서 다시 본다면, 행음의 ‘음(陰)’에 주목하게 된다. 애양단(愛陽壇)의 양(陽), 행음(杏陰)의 음(陰)에 주목하면, 애양단의 큰 양[태음]속에 행음의 작은 음[소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소쇄원을 큰 음이라고 볼 때, 그 속에 상대적으로 작은 애양단의 양이 있고, 또 그 속에 상대적으로 작은 행음의 음이 있는 것이다. 애양단은 한겨울 동지시(冬至時) 음이 극성하는 시기에 양의 기운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태음 속의 소양이며, 행림은 은행나무아

27) 하서 제15영: <행음곡류(杏陰曲流): 은행나무 그늘아래의 곡류> 지척간 원지(咫尺潺湲池): 지척의 물소리가 들리는 곳에, 분명오곡류(分明五曲流): 분명히 오곡류이라, 당년천상의(當年川上意): 당년에 천상에서 말씀하신 뜻을, 금일행변구(今日杏邊求): 오늘 은행나무 그늘아래에서 구하네.

래의 그늘로서, 한 여름 하지시(夏至時) 양이 극성하는 시기에 음의 기운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태양 속의 소음인 것이다.

Ⅲ. 소쇄원 내부동선상의 음양변화(陰陽變化)

1. 죽림문(竹林門)의 음적(陰的) 성격과 소쇄원의 양적(陽的)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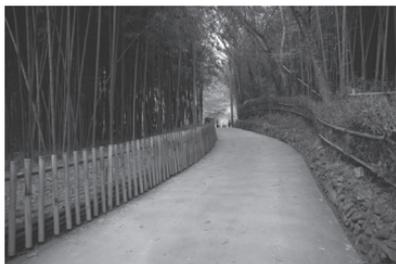
소쇄원의 진입구는 자동차 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물길을 따라 들어가다 그 물길을 건너면서 시작된다. 양산보가 소쇄원의 터를 발견하게 된 실마리는 바로 이 물길인 것이다. 기존 연구와 자료에 의하면, 양산보는 이 물길에서 노는 들오리로 인해서 이 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쇄원의 진입은 이 물길을 굽이 건너야만 실제적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대나무 숲[이하, 竹林門]’을 만나게 된다. 물길을 건넌다는 것은 원림건축외의 다른 건축용도의 건축에서 흔히 발휘되었던 건축어휘로서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소위 금천교(禁川橋)라는 이름으로 왕릉의 홍살문[紅箭門] 앞에 만들어진 다리가 바로 그 상징이며, 불교 사찰의 일주문(一柱門)에 앞서 만나게 되는 극락교(極樂橋), 연화교(蓮花橋) 등이 바로 그 상징인 것이다. 물길을 건너면 왕릉에서는 혼령(魂靈)의 세계가 되고, 불교사찰에서는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세계가 되며, 소쇄원에서는 무릉도원(武陵桃園)이 되는 것이다.

다리를 건너기 전, 개방되어있고 시끌벅적한 곳은 거친 양(陽)의 세계이다. 다리를 건너서 죽림문의 문지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고개 부분은 전이공간(轉移空間)으로서 음(陰)의 공간이다. 소위 죽림문은



〈그림 5〉 소쇄원의 진입로상의 물길.

이 물길을 건너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2011년 촬영.



〈그림 6〉 죽림문(竹林門,가칭).

소쇄원영역의 큰 문에 해당한다.
대나무 숲은 넓은 ‘양’을 만나기 위한
좁은 ‘음’의 과정이다. 2011년 촬영.

길 양옆으로 울창하게 식재되어 있는 대나무로 인해서, 마치 녹옥색(綠玉色)의 바위로 이루어진 굴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게끔 한다. 이 터널을 지나는 과정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기 위해 울창한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세심(洗心)과 세신(洗身)을 하는 것이다. 그 터널을 통과하면 비로소 넓고 환하게 펼쳐진 소쇄원의 전경을 만나게 된다. 죽림문이 음(陰)의 공간이 되는 이유는 양(陽)과 양(陽) 사이에 끼인 상대적 음(陰)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거친 양(陽)과 좁은 터널의 음(陰)을 통과하고 난 뒤, 그 다음 동선 앞에 펼쳐진 소쇄원은 양(陽)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앞에서 소쇄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쇄원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음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동선의 과정상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소쇄원은 밝고 환한 양적인 성격으로 펼쳐진다. 결국, 소쇄원은 이러한 점에서 음이면서도 양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소쇄원의 출발이 음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그 때의 음은 태극 속의 큰 음[太陰]이다. 죽림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소쇄원의 양은 소양(少陽)이다. 이 소양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드러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즉, 소쇄원의 음적 성격[태음] 속에 잠재되어 있던, 소양적 성격은 더 강한 음적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죽림문의 음적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소쇄원과 맞닥뜨려진다면, 계곡에 있는 소쇄원은 당연히 음적인 성격만 부각되고 양적인 성격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쇄원을 이러한 전이공간을 통해서, 그 속에 잠재된 양적 성격을 끄집어내는 조영감각이야말로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쇄원의 성격으로서 태음과 소양은 서로 구분해서 보아야하는 성격인 것이다.



〈그림 7〉 대나무 숲을 지난 다음의 소쇄원 경관.

좁은 ‘음’의 과정을 거쳐 넓은 ‘양’의 공간이 펼쳐진다.

2012년 촬영.

한편, 죽림문의 음양을 구분함에 있어 앞에서처럼 명암(明暗), 광협(廣狹)의 기준이 아니라, 동선의 기준 즉 광풍각(光風閣)에서 머물 객(客)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로서 동적(動的)이라는 것, 죽림문이라

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였지만, 하늘이 열려있어 빛[光]이 있는 곳이라는 점, 하서의 <48영>중 <제10영: 千竿風響>에 묘사된 것처럼 바람 [風]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양(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림문은 기본적으로 안과 밖의 양(陽)에 끼인 음[太陰]이지만, 유일하게 외부세계로 향해 열려있는 작은 구멍으로서 태음 속의 소양(少陽)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2. 소쇄원의 폐쇄적 측면[陰]과 개방적 측면[陽]

소쇄원은 죽림문으로 경계를 만들고, 서측의 제월당 뒤로 웅정산(甕井山)²⁸⁾의 자락이 막아주며, 북측과 동측에 담장으로 경계²⁹⁾를 그음으로서 그 영역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산허리의 곡선적(曲線的) 등고선과 직선적(直線的) 담장과 화계선이 서로 어울려 소쇄원의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소쇄원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자연곡선은 여성적이고 음이며, 인위적 직선은 남성적이고 양이다. 또한 계곡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가 아래로 향하며, 산자락의 곡선을 곧게 펴서 겹겹이 직선적 층계를 만든 화계는 위로 향하고 있다. 계곡의 곡선은 음이고, 직선의 중첩된 여러 단으로 만들어진 화계는 양이다.

오곡문을 통하여 들어온 물이 반석 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계곡아래 조담(槽潭)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고목(劓木)을 통해서

28) 권수용(2008.2), 앞의 논문, p.11.: “웅정(甕井)은 17세기에 송시열이 붙여준 이름으로 소쇄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29) 소쇄원이 한때, 이 담장 밖으로 확대된 시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소쇄원이라고 함은 결국 계곡을 사이에 두고 대나무숲, 웅정산자락, 인위적으로 축조한 일정부분의 담장이 이루는 영역의 안쪽부분을 말한다.

상지(上池)로 간다. 상지나 조담은 흘러들어온 물을 담는 1차적 저수조인 셈이다. 조담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곡선으로 음이지만, 상지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곧은 고목을 통해서 흘러가므로 직선으로 양이다. 물을 담는 조담과 상지를 짝으로 놓고 볼 때, 상지는 직선을 한 변(邊)으로 하는 방지(方池)로 양이며, 조담은 곡선의 부정형으로 음이다. 여기서는 양이 양을 받고 음이 음을 받는다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음양론으로 설명하면 정음정양론(淨陰淨陽論)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고목통류(剝木通流).

고목을 통해서 직선으로 흘러들어감.
2012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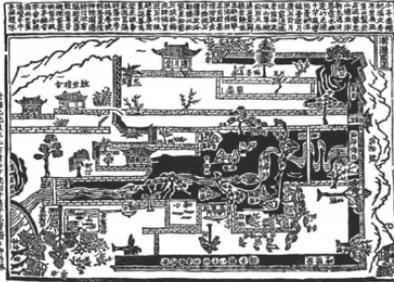


〈그림 9〉 상지(上池).

반듯한 각으로 이루어진 방지(方池).
2011년 촬영.

정음정양의 상태는 극도로 정제된 음양의 깨끗한 상태를 말한다. 소쇄(瀟灑)라는 한자 속에 삼수변[沝]이 있다는 측면에서 소쇄의 경지는 1차적으로 깨끗한 물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는 ‘음양교합(陰陽交合)’이나 ‘음양배합(陰陽配合)’이 아니라 ‘정음정양(淨陰淨陽)’의 깨끗하고 맑은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그래서 곡선으로 흐르는 물은 곡선형 물통[槽潭]에 담고, 직선으로 흐르는 물은 직선 물통[方池]에 담는 것이다. 상지와 하지의 관계에 있어서 상지에는 1차적 맑은 물이 담겨서 양이 되고, 하지는 2차의 탁한 물의 저장소라는 측면에서

음이 된다.



〈그림 10〉 소쇄원도.

가운데 소쇄계의 부분은 곡선이나,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모두 직선이다. 담양소쇄원발굴조사보고서(2000), p.3.



〈그림 11〉 소쇄처사양공지려.

우암 송시열의 글씨로 내원의 문패역할을 한다. 2012년 촬영.

한편, <소쇄원도>를 보면 담장이나 화단의 직선적 구도 속에 소쇄계의 물줄기는 과격하게 강조된 곡선적 형태로 중앙을 휘감아서 구불구불 지나간다. 이점에서 <소쇄원도>는 양속에 음을 강조하여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쇄원도>에 나타나지 않는 그림 밖의 세계는 곡선적 형태로 음의 세계인 산자락이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소쇄원도>의 음양은 그림 밖의 주변 산이 음, 그림 속의 인위적 직선이 양, 그 양 속의 소쇄계가 곡선의 음으로 정리된다. 곡선 속의 직선, 직선 속의 곡선, 음 속의 양, 양속의 음이 프랙탈(Fractal)처럼 연속되어 부분이 전체를 드러내며 전체가 부분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변의 많은 원림건축이 그러하듯이 소쇄원 또한 <소쇄원도>에 그려진 것처럼 틀 속에 완전히 닫혀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소쇄원 내의 외원과 내원도 계곡으로 구분되긴 하였지만 닫혀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장일영·심상섭의 논문(2010.6)³⁰⁾에

30) 장일영, 심상섭(2010.6), 「'복잡성(Complexity) 이론'에 의한 한국 전통정원

서 소쇄원을 경계가 불분명한 열린 시스템으로 보며, ‘복잡성의 원리’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쇄원 내부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음이 막힐 때는 양이 트이고 양이 막힐 때는 음이 열린다. 끊임없는 음과 양의 트임과 막힘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³¹⁾ 소쇄원의 영역성은 태음·태양축의 소음·소양이 표현된 태극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반시계방향의 순환동선상의 음양(陰陽)

진입공간을 지나 소쇄원의 내부동선이 시작되는 지점은 대봉대쪽을 향하는 담장의 시작점이다. 담장의 시작점에서 담장을 기준으로 길은 안쪽 켜와 바깥쪽 켜로 구분된다. 안쪽 켜로 들어가면 직선적으로 나아간 담장과 대봉대 사이의 길로 인도된다. 담장 안쪽 면에는 과거 하서 김인후가 지은 48명이 붙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말하자면, 담장의 안쪽 벽면은 소쇄원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소쇄원이 어

의 해석: 한국의 명원 소쇄원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 제28권 제2호 통권 제72호, p.79.: “복잡성의 특성을 지원하는 공간은 열린 시스템으로서 이른바 ‘관계적사고’가 전제된다. 확정적인 결과가 아닌 비결정적 과정 자체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전제될 것이다. 첫째, 공간은 외부세계와 에너지를 끊임없이 교환하는 열린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둘째,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짐으로서 공간의 행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감각적 경험을 자기조직화를 통해 능동적 적응의 주체로 재편된다. 셋째, 구성요소들은 고정적 관계들을 해체하고 유기적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복잡성 이론에 근거한 맥락적 특성으로 상동적 관계, 상호감응관계, 사건(정황), 비결정성으로 압축 대별될 수 있다.”

31) 김명주(2004), 『소쇄원 공간의 재해석을 이용한 도심지 공원계획안 - 陰陽思想을 이용한 수직형 공원으로서의 싹지공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석사학위논문, pp.39-40.

면 곳인지를 알려주는 전시벽면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림 12〉 소쇄원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열린 담장.
2013년 촬영.



〈그림 13〉 소쇄원을 소개하는 48명이 전시되었던 담장 안쪽의 벽면.
2013년 촬영.

소쇄원의 내부동선은 담장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데 대봉대와 애양단을 지나 오곡문 근처에 이르러 약작(略約 또는 獨木橋)이라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소쇄계가 소쇄원의 가운데로 가로 질러 흘러가므로, 소쇄원의 동선을 원형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상류 측과 하류 측에 각각 한 개씩의 다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설치된 상류 측의 다리가 약작이고 하류 측의 다리가 위교(危橋)이다. 두 개의 다리를 상대로, 동선의 순환방향과 상·하류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적 음양을 논할 수가 있다. 내부동선이 시계반대방향으로 순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류에 있으면서 내원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 ‘약작’이라면, 방문을 마무리하고 환송하는 다리가 하류의 ‘위교’가 된다. 시작하는 것은 양이고 마무리하는 것이 음이라면, 약작이 양이 되고, 위교가 음이 된다.

동선이 시계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실제 재연한 사례³²⁾가 있어 약작과 위교의 음양을 구분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움

32) 임준성(2013), 『<소쇄원48영> 재연 요소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고시가연구』 31권, 한국고시가문학회, pp.247-281.

이 된다. 재연사례 뿐 아니라, 매대 위의 담장에 붙어있는 송시열이 쓴 ‘소쇄처사양공지려(瀟灑處士梁公之廬)’도 동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그 글씨를 그냥 보기 좋고,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패처럼 붙어있다’는 해석³³⁾이 소쇄원 동선의 방향이 시계반대방향임을 뒷받침한다. 사실, 약작을 건너 내원으로 들어가는 경계의 부분이 바로 이 ‘문패’가 붙어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쇄원의 주인이 머무는 제월당으로 가기 위해 두 번의 물길을 건너는 것이 되는데, 죽림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내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문패를 보면서 또 한 번 건너는 것이다. 결국 두 번의 물길을 건너서 들어오고 두 번의 물길을 건너서 소쇄원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림 14〉 약작.

소쇄원 소쇄계의 상류 쪽 다리.
2013년 촬영.



〈그림 15〉 위교.

소쇄원 소쇄계의 하류 쪽 다리.
2013년 촬영.

동입서출(東入西出, 우측통행)³⁴⁾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소쇄원의 동선이다. 이렇게 동선

33) 박명희(2002. 8),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 48詠 考」,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제25집 p.12.: “매대 뒤의 담에는 ‘소쇄처사양공지려(瀟灑處士梁公之廬)’라는 송시열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마치 문패역할을 하고 있어 집의 안이 시작되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34)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가는 것.

을 길게 유도한 것을 두고 경관감상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양의 방위[東, 木]에서 시작하여 음의 방위[西, 金]로 마무리한다는 음양론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IV. 결론

소쇄원을 해석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 서양적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동양적세계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양적 세계관으로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동양적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한다면, 다양한 내용이 거론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주로 근거로 삼은 것은 음양론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음양론적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일과 대상이 기(氣, 또는 기의 변화)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론은 가장 단순한 인식체계로서 음과 양의 이진법적(二進法的) 세계관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대상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융통성과 열린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쇄원의 분위기가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을 음양론적 세계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대상을 놓고 음양론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 대상을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하나의 대상이 음이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 서양적세계관 즉 입자적(粒子的) 세계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대상이든지 음적 성격이나 양적 성격만 가진 경우는 드물고 어느 정도는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그래서 소쇄원의 어떤 대상을 놓고 서로 짝지어 음양으로 구분하여 말할 경우 어떤 기준에서 음양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하나의 표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소쇄원의 음양구분

구분	음양구분의 기준	음	양	음양론
터의 형태	凹凸	소쇄원	주변의 원림: 석영정, 환벽당	음양배합
동선의 과정상	明暗, 廣狹	죽림문	소쇄원	음양교합
애양단	溪, 壇	소쇄계, 조담	애양단	음양배합
행음	日, 影	행음	애양단	소음소양
경계	曲, 直	산자락	담장, 화계	음양배합
물의 흐름	曲, 直	계곡수	고목수	정음정양
저수조의 형태	曲, 直	조담	방지	정음정양
다리	上, 下, 始, 終	위교	약작	음양배합
순환	入出	서출	동입	음양의 시종
당호	日月	제월당	광풍각	음양배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쇄원은 주변의 다른 원림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으며, 그 음적 성격에 치우친 분위기를 중화시키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적 성격인 애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음과 양을 구분해서 말하긴 했지만, 본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소쇄원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음·양의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단기준에 따라 그 대(對)가 되는 양·음의 성격이 드러나며 변화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대로, 우리시대에는 우리시대대로 시대에 따라,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대로 계절에 따라, 그날그날의 날씨에 따라, 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음양변화는 새로운 자기 조직화를 거듭

하여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소쇄원은 이러한 변화 때문에 갈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양산보가 조선선비로서 변하지 않는 지조(志操)를 지켰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둘러싸고 있던 소쇄원은 변화무쌍한 자기 변신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산보의 지조가 음(陰)이라면, 변화무쌍한 소쇄원은 양(陽)이다.

소쇄원을 음양론에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소쇄원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음양이 조화를 이룬 생태적 원림’이며, 바쁜 일상 속에 모든 기운이 소진된 현대인의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웰빙(Wellbeing)의 장소’이며, ‘이야기꺼리가 풍부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다.

소쇄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굳이 음양론을 바탕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음양론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점이다. 소쇄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더욱 많이 나올수록 소쇄원은 풍부한 이야기꺼리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는 다른 시각의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소쇄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원림건축으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훌륭한 하드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建築家 金壽根』, 1980, 서울: 空間社.
- 권수용(2005.2), 『<소쇄원사실>을 통한 소쇄원 연구』, 전남대 대학원, 문화재학, 석사학위논문.
- 권수용(2008.2),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협동연구과정, 박사학위논문.
- 김덕진(2007. 6), 「양산보의 기묘사화 체험과 소쇄원 건립」, 『歷史學研究』 제30집, 湖南史學會, pp.83-118.
- 김덕진(2009.09), 「양진태(1649~1714)의 소쇄원 중흥과 재발견」, 『朝鮮時代史學報』, 朝鮮時代史學會, 50, pp.111-139.
- 김명주(2004), 『소쇄원 공간의 재해석을 이용한 도심지 공원계획안 - 陰陽思想을 이용한 수직형 공원으로서의 싹지공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석사학위논문.
-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1998, 『주역철학사』, 심경호(옮김), 서울: 예문서원.
- 박명희(2002. 8),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 48詠 考」, 『우리말글』 제25집, 우리말글학회, pp.263-286.
- 朴煥圭(1993), 「解題: 고경명 (高敬命)의 ‘유서석록(遊瑞石錄)’」, 『고시가 연구』 1권, 한국고시가문학회, pp.325-374.
- 成範重(2006), 「16-17세기 호남(湖南) 한시(漢詩)의 풍정(風情); 16, 17세기 호남지방 원림문학(園林文學)의 지향과 그 변이 -소쇄원(瀟灑園)과 부용동원림(芙蓉洞園林)의 구성물(構成物) 명명의식(命名意識)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4권, 한국한시학회, pp.5-53.
- 양병이, 박은영, 박 휘(2003.03),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길도원림, 소쇄원, 남간정사,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제21권 제1호 통권 제43호, 한국정원학회, pp.9-20.

- 윤일이(2005.12), 『송순의 면앙정과 16세기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pp.29-39.
- 이향준(2003.12), 『양산보(梁山甫)의 소쇄기상론(瀟灑氣象論): 그 연원과 의미를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제32·33집, 全南大學湖南文化研究所, pp.237-261.
- 임준성(2013), 『<소쇄원48영> 재연 요소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고시가연구』 31권, 한국고시가문학회, pp.247-281.
- 장일영, 신상섭(2010.6), 『‘복잡성(Complexity) 이론’에 의한 한국 전통정원의 해석: 한국의 명원 소쇄원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8권 제2호 통권 제72호, 한국전통조경학회, pp.75-85.
- 조인철(2005),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건축계획론의 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태성(2009년 6월), 『소쇄원 조영에 투영된 감성 구조와 공간의 미학: 소쇄원 <四十八詠>과 공간 명칭에 투사된 음양설을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제44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pp.323-348.
- 천득염, 한승훈(1994.12), 『瀟灑園圖와 (瀟灑園)四十八詠을 통하여 본 瀟灑園의 構成要素』, 『건축역사연구』, 서울: 韓國建築歷史學會 제3권 제2호 통권6호, pp.67-90.
- 『담양소쇄원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0,
- 周敦頤 撰, 『太極圖說』, [刊寫年未詳],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古古 1-59-48
- Christopher Alexander, 『A Pattern Language-Towns·Buildings·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The Interpretation of Soswaewon (瀟灑園) based on the Theory of Ying (陰) and Yang (陽) for the Storytelling.

Zho, In-Choul

The present paper suggests an interpretation of Soswaewon (瀟灑園) based on the theory of Yin and Yang, which is a part of orientalism. Soswaewon can be defined as having Yin characteristics, relatively to other Wonlim (園林, a garden of the oriental style). Aeyangdan (愛陽壇, the sunny open space) and Kwangpoonggak (光風閣, the name of this architecture means light and wind, open style pavilion) are the elements that make harmony with making up the Yin characteristics. The flow of Soswaewon rotates counterclockwise, and diverse change of Yin-Yang in the flow may impress the visitors. Kwangpoonggak is for the guests, Jeweoldang (霽月堂, a house named after a full moon after the rain) is for the master. With the respect of building name, Kwangpoonggak is Yang and Jeweoldang is Yin. Soji (小池, a small size pond) is filled with clear water, so therefore Yang is, and Yeonji (蓮池, pond of lotus) is filled with muddy water, so Yin is.

Yin and Yang discussed above is interchangeable with each other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This is the very characteristics that theory of Yin and Yang has, where Yin become Yin or Yang vice versa. That is

also related to the Theory of Tageuk (太極) which says that Yang has Yin in it, and Yin has Yang in it.

To attract more interest and introduce the study in the present field, I hope the present paper can contribute to develop the part of storytelling. In conclusion, the author believes Soswaewon is ecological space, which keep the balance of Yin and Yang and has cultural heritage with valuable, numerous stories.

key words: Soswaewon, Yin and Yang, Taegeuk, Yangsanbo, 48young(詠), Fengshui

지석묘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

표인주*

1. 머리말
2. 이론 및 서술적 토대
3. 덮개돌의 민속신앙적 관념
4. 덮개돌 설화의 기능과 구조
5.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
6. 맺음말

【국문초록】

지석묘 덮개돌에 신앙적 관념이나 서사적인 언술들이 첨가되면서 어떻게 덮개돌의 명칭붙이기가 이루어졌고, 언어민속학적인 의미를 귀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덮개돌에 대한 민속신앙적 관념으로 성수신앙, 칠성신앙, 거북신앙 등을 들 수 있다. 성수신앙에서 별자리신은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고, 천신의 변이형태인 산신(山神)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신격이었다. 칠성신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으로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기원하는 대상이 되었다. 칠성신앙은 별을 숭배하는 성수신앙의 발전 형태라 할 수 있는데, 거북신앙은 거북을 신격화한 거북바위

* 전남대학교 교수

를 숭배하는 신앙행태로서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때문에 칠성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민속신앙적 관념을 토대로 덮개돌에 다양한 신앙적 행위와 구술물들이 덧붙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칠성바위에 얽힌 설화는 지극히 바위의 유래만을 설명하는 증거물 위주의 단편적인 언술에 불과하지만, 바위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물론 바위를 대상으로 일어난 신앙적 행위를 구술로 표현하여 서사적인 내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거북바위 설화는 칠성바위 설화에 비하여 서사성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증거물을 기반으로 한 덮개돌의 유래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선적이거나 서사적 인물과 그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거북바위의 신앙적 관념을 구체화시키기도 한다. 즉 거북바위는 재물을 관장하는 신체(神體)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그것을 서로 쟁취 혹은 파괴하려 하고, 혹은 거북바위를 새롭게 만들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설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덮개돌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신앙적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화가 증거물 중심의 단순 구조와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한 서사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덮개돌은 무덤의 상징물에서 신앙적 상징물로 변모하고, 이에 따라 덮개돌의 의미도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덮개돌의 신앙적 관념을 강화하고 의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물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신앙적 관념과 서사물은 상보적 관계를 바탕으로 강화되고 형성된 것으로, 덮개돌의 개념화와 의미화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서는 덮개돌의 새로운 명칭붙이기를 확

정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지석묘 덮개돌의 의미와 명칭은 오그덴 & 리차즈의 의미 기본 삼각형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고 확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덮개돌은 한국인의 운명관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언어민속학적 원천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

주제어: 지석묘 덮개돌, 칠성신앙과 칠성바위, 거북신앙과 거북바위, 서사물, 언어민속학

1. 머리말

한국의 지석묘는 주로 청동기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창, 화순, 강화 등지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 가운데 고창과 화순의 지석묘는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인돌은 큰돌을 받치고 있는 궤돌 또는 고임돌에서 유래된 명칭으로서, 이는 고인[支]과 돌[石]로 이루어져 있어 지석묘라고도 한다.¹⁾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무덤양식의 하나로 축조되었지만, 지석묘의 덮개돌[蓋石]은 당시 사회인들의 관념과 의식이 반영되어 신앙의 대상인 신체(神體)로서 역할하기도 했다.

그런데 청동기인들은 왜 무덤의 덮개돌로 큰 바위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단순히 땅자의 보호나 자손들의 대외적인 과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바위, 즉 암석이 갖는 종교적 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암석은 나무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종교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국인은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신격(神格)과 신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는데, 민속신앙에서 가장 원초적인 신격은 다름 아닌 천신과 하늘이었다. 고대 건국신화인 단군신화, 부여신화, 혁거세신화, 김알지신화 등 신화적 인물들은 모두 천신의 혈통을 이어온 것으로 설명된다. 즉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강림해 온 신화적인 존재로서 지상계의 비범한 인물임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단군신화의 환웅은 환인의 아들로서 천상계에서 태백산의 신단수(神壇樹)에 강림하였고, 부여신화의 해부루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산천에 제사를 지낸 뒤 곧연의 큰 돌 아래서 어린아

1) 이영문, 2009, 『지석묘에 얽힌 지명과 신앙』, 『이야기로 풀어낸 화순 지석묘유적』, 동북아지석묘연구소, 18쪽.

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더불어 수로왕이 탄생한 곳이 구지봉의 정상에 있는 큰 바위²⁾라고 말한 데서 위의 추정을 어느 정도 입증해 낼 수 있다.

나무와 암석은 오래 전부터 신앙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암석이 제단이나 신체로 활용되었던 것은 암석이 조령(祖靈)이나 여성의 생생력이 이입되면서 이러한 생생력(生生力)³⁾의 상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석의 항구성과 주술적인 생생력을 지니는 생산성을 근간으로 암석을 신앙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무덤의 축조 수단으로도 활용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석묘의 덮개돌로 바위를 사용했던 것은 바위가 갖는 종교성과 영혼불멸과 재생(생산)의 상징성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석묘의 덮개돌은 죽음이 이승과 분리되지만 자손들과의 항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재생 혹은 이상향의 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생관적 관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석묘의 덮개돌은 바위의 기능성과 외형성이 결합되어 칠성바위, 거북바위, 두꺼비바위, 개구리바위, 복바위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외형적인 면모에 따라 목탁바위, 마당바위, 덕석바위, 떡바위, 콩바위, 우렁바위, 범바위, 암탉바위, 여우바위, 고양이바위, 말바위, 도치바위, 황새바위, 장군바위, 왕바위, 할미바위, 각시바위, 상여바위, 장기바위, 배바위, 돛대바위, 등잔바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명칭은 지석묘가 축조된 이후, 그 주변에 살았던 후대인들이 지석묘

2) 구지봉의 정상에 기반식 지석묘 1기가 있는데, 가락국의 수로왕은 당시에 지석묘를 축조했던 집단과 관계가 있음(이영문, 위의 논문, 23쪽.)

3) 김열규, 1966, 『한국민속신앙의 생생상징 연구』, 『아세아연구』 제9권 제2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91쪽.

4) 표인주, 2010, 『암석의 신앙성과 서사적 의미 확장』, 『용봉인문논총』 제36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73쪽.

덧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념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식묘 덧개들의 명칭을 단순히 사물의 명칭으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념화 과정을 거쳐 개념화에 이르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민속적인 관념이 어떻게 행위로 표현되는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의 의미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언어 이론을 토대로 지식묘 덧개들의 신앙성과 서사성을 살펴보고, 언어민속학적인 의미를 귀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 및 서술적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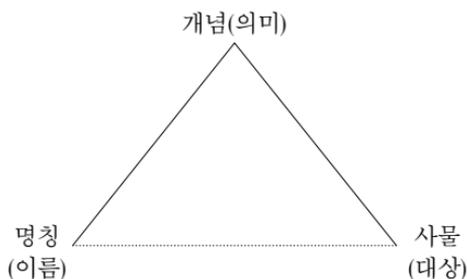
언어는 인간에게 우주만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다양한 사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토대로 개념화되어 문화를 창조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문화를 사회성원들에게 공유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⁵⁾ 언어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통신전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로만 야콥슨은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찾기 위해 언어전달에서 필수적인 여섯 가지 요소를 발신자, 수신자, 맥락, 메시지, 접촉, 약호라고 하고, 이들 요소들은 감정표시기능, 욕구적 기능, 지시적 기능, 시적 기능, 친교적 기능, 메타언어적 기능들을 결정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기능은 맥락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지시적 기능이다.⁶⁾ 지시적 기능은 발신자가 말이 관련을 맺

5) 한상복·이문웅·김광익, 1998, 『문화인류학개론』, 한국문화인류학회, 329쪽.

6) 송효섭, 2003, 『문화기호학』, 아르케, 133~135쪽.

고 있는 대상과 관계된 정보를 수신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정보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사물과 관계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여기에 새로운 지식이 더해져 문화를 창조해왔다. 이 과정 속에서 언어에 대한 지식 역시 다각적으로 증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생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사고와 개념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그것은 다름 아닌 언어의 명칭붙이기라고 할 수 있다.⁷⁾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에 대해서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물이 명칭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물과 관계된 지식은 사물의 명칭과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즉 어떤 사물이건 거기에 명칭이 연결되면 그 사물의 의미가 확정된다. 오그덴 & 리차즈는 사물과 명칭의 관계를 의미의 기본 삼각형을 제시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사물과 명칭 사이의 관계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심리적 실체인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호인 나무와 그 지시물인 실체 사이에서 연상되는 심리적 영상, 곧한 언어표현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 속에 떠오르는 관념이

7) 로저키징(전경수 역), 1985, 『현대문화인류학』, 현음사, 46쪽.

나 개념이라는 것이다.⁸⁾ 예를 들면 농촌마을 입구에는 주로 모정이 있고, 그 곁에는 큰 느티나무가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느티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당산나무라고 부른다. 느티나무는 정월 대보름날에 지내는 당산제라는 마을제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을신앙적인 관념으로 인해 느티나무를 당산나무로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당산나무는 마을신앙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안식처로서 민속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느티나무의 새로운 명칭붙이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지석묘 덮개돌의 명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되다 보니, 주변의 거주민들의 정신적인 관념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명칭붙이기가 다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의미의 기본 삼각형을 토대로 사물과 관계된 지식을 전달하면서 사물의 개념과 명칭을 확정하게 된다. 언어로 표현되는 이러한 능력은 문화적 전통을 축적하여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석묘 덮개돌이 어떻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거기에 어떠한 신앙적 관념이나 서사적인 언술들이 첨가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오그덴&리차즈의 의미의 기본 삼각형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민속의 상관관계를 언어민속 혹은 민속언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언어민속이 언어를 활용한 행위로서 속담, 수수께끼, 구비서사 등 언어예술적 행위라면, 민속언어는 민속현상에 나타난 언어자료로서 민속어휘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인류학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관계 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언어와 민속의 관계를 토대로 한 언어민속과 민속언어를 두루 포괄하고 이와 더불어 신앙양식을 비롯한

8) 윤희현, 2013,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40~42쪽.

인간의 제반사항과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것을 언어민속학이라 지칭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속 연구의 새지평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언어 민속지》⁹⁾ 연구는 다양한 언어인류학적 연구주제와 통합적인 이론적 시각으로 한국 문화의 지역별 하위문화에 대한 민속지를 제공하고 있다.¹⁰⁾ 언어와 민속의 상관관계를 언어학적 연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국 민속의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언어민속학의 연구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석묘 덮개돌이 어떻게 불리어지고, 거기에 신앙적 관념과 서사적 언술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로만 아콕슨과 오그덴&리차즈의 언어이론을 토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것이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나갈 것이다.

3. 덮개돌의 민속신앙적 관념

1) 성혈과 성수(星宿)신앙

인간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방식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9) 기술내용 구성은 지명, 생태환경의 어휘적 구분, 친척용어체계, 호칭체계, 존댓말체계, 특수한 상황변이어, 말의 주요 범주와 빈담, 언어예술(노래와 이야기 등)로 이루어져 있음.

10) 최진숙·조숙정, 2011, 『《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 편》(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의 서평』, 『한국문화인류학』 44-3, 한국문화인류학회, 175쪽.

자연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수행해왔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능력 밖의 힘에 대해 인지해 나갔을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수많은 자연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었다. 이 가운데 인간이 거주하는 지상보다는 미지의 세계인 하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자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다. 즉 하늘은 천둥, 번개, 폭풍우 등의 자연현상과 해, 달, 별 등의 변화무쌍함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들의 변화에 신비감을 느끼고 위압감을 가지면서 신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인간이 하늘을 신격화하고 천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고대의 제천의례에서 보면 주신격은 천신이다. 천신은 지상 최고의 신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인간의 행복과 재화를 모두 관장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신화시대에는 당연히 천신의 후예만이 부족의 지도자로서 한 국가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명분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단군신화에서는 단군이 천신의 후예임을 강조하였고,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신라의 혁거세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국주들이 모두 천신의 후예임을 주장하고 있다.¹¹⁾ 이것은 모두 천신을 숭배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천신은 후대에 인간 사유체계의 변화에 따라 일신(日神), 월신(月神), 성신(星神), 우신(雨神), 풍신(風神) 등으로 구체적인 신격으로 세분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별자리신으로 생각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은 별자리와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후한(後漢)의

11) 표인주, 2011, 「지리산 산신의 종교문화사적인 위상과 의미」, 『남도문화연구』 제20집,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남도문화연구소, 40쪽.

사상가 왕충이 “사람은 각기 자신의 별을 하나씩 갖고 태어나는데, 그 별의 존비대소(尊卑大小)의 등급 차이에 의해 그 사람의 빈부귀천도 결정된다고 보았다”고¹²⁾ 하는 데서도 인간과 별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축조된 고인돌 출토물에서 별자리가 확인되고 있고, 남한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 중에는 덮개돌에 흠(성혈)이 파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일부 별자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³⁾ 이러한 흠이 파여 있는 고인돌의 덮개돌은 한반도에 900기 이상은 될 것이라고 파악하기도 한다.¹⁴⁾ 성혈은 비단 덮개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에 부녀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기자암의 암벽 도처에 성혈의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¹⁵⁾ 또한 남근을 상징하는 산으로 알려진 월출산의 서낭골, 큰골, 용추골, 막사당골, 바랑골, 칠치폭포, 경포대계곡 등에 있는 암석에는 성혈들이 다량으로 조식되어 있다.¹⁶⁾ 이처럼 덮개돌에 나타난 성혈과 일반 암석에 나타난 성혈을 모두 청동기시대의 성수신앙 흔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성수신앙이 최소한 청동기시대부터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상계에 있는 별을 지상계의 암석에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혈이고,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이다.

별의 신격화 및 숭배는 고구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국지》 위서 고구려전에는 “주거지의 좌우에 큰 집을 짓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

12) 김만대, 2012,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제159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38쪽.

13) 박창범·이용복·이용조, 2001,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18쪽.

14) 우장문, 2008,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의 사유에 관한 연구』, 『선사와 고대』, 한국고대학회, 157쪽.

15) 박용식, 1985, 『한국설화의 원시종교사상연구』, 일지사, 83쪽.

16) 표인주·조경만, 1988, 『월출산-바위문화조사-』, 전라남도, 229~257쪽.

내고, 신령스러운 별과 토지신에게도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별을 신격화하여 제사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세기 중엽의 고구려 장천 1호분에서도 고구려 사람은 무덤 속에 북두칠성을 크게 그려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의 여러 왕릉과 귀족의 묘실(墓室) 벽화에서도 별자리를 그렸는데 북두칠성을 보다 중요하게 그렸다.¹⁷⁾ 이와 같이 천상계의 신령스러운 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주로 죽음과 관계된 무덤이라는 사실은 별과 인간의 운명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별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별자리신으로서 천신의 변이형태인 산신(山神)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신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칠성바위와 칠성신앙

칠성신앙은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을 숭배하는 신앙형태로서 별을 숭배하는 성수신앙의 발전 형태이다. 별자리 그림이 발견된 고구려 고분은 모두 25기이며, 이 중에서 북두칠성은 19기의 고분에 그려져 있다. 북두칠성이 7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은 북두칠성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다.¹⁸⁾ 다시 말하면 별이 인간의 운명(삶과 죽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토대로 북두칠성은 죽음을 주관한다는 민속신앙적 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두칠성은 하늘의 모든 별자리 중에서 가장 밝은 별로서 사계절에 걸쳐 관측할 수 있는 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칠성신앙에서는 바로 이 북두칠성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17) 김만태, 앞의 논문, 135~143쪽.

18) 김만태, 위의 논문, 139쪽.

믿었고, 인간의 길흉화복과 내세에의 영원한 삶을 복두칠성에 의탁했을 것이다.¹⁹⁾ 이러한 것은 우리 민족의 성수신앙을 토대로 복두칠성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도교와 유교의 천체숭배사상과 영부(靈符) 신앙이 첨가되고,²⁰⁾ 불교의 점성신앙적 색채가 덧입혀지면서²¹⁾ 오늘날의 칠성신앙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변에 있는 칠성신은 암석을 신체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지석묘의 덮개돌을 신체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 운교마을 칠성바위(지석묘 5기: 마을 서쪽 밭에 있음)
- ② 전남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산본마을 칠성바위(지석묘 9기: 마을 북쪽 산 경사면에 있음)
- ③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촌마을 칠성바위(지석묘 7기: 마을 남쪽에 복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됨)
- ④ 전남 보성군 북내면 봉천리 당촌 칠성바위(지석묘 7기: 마을 입구에 있음)
- ⑤ 전남 순천시 황전면 대치리 대치마을 칠성바위(지석묘 7기: 마을 입구에 있음)
- ⑥ 전남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창촌마을 칠성바위(지석묘 7기: 마을 남쪽 밭에 있음)
- ⑦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방월리 방월마을 칠성바위(지석묘 7기: 마을 입구에 있음)
- ⑧ 전남 영광군 불갑면 쌍운리 회복마을 칠성바위(지석묘 7기: 마을 안에 있음)
- ⑨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 치리등 칠성바위(지석묘 10기: 마을 앞 구릉에 있고 복두칠성의 모습을 닮음)
- ⑩ 전남 완도군 노화읍 대당리 대당마을 칠성바위(지석묘 7기: 마을 우측

19) 김일권, 2000, 『고구려인들의 별자리 신앙』, 『종교문화연구』 제2호,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3쪽.

20) 한정섭, 1975, 『불교토착신앙고』, 『불교학보』 제1집, 한국불교학회, 175쪽.

21) 김만태, 앞의 논문, 152쪽.

에 있음)

- ⑪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해동마을 칠성바위(지석묘 7기: 마을 주변 일곱 군데에 있음)
- ⑫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평촌마을 칠성바위(마을 안에 지석묘 9락이 일곱 군데에 있음)
- ⑬ 전남 장흥군 장동면 만년리 삼정마을 칠성바위(지석묘 7기: 마을에서 장흥읍쪽의 논에 있음)

위 자료에서는 하나 같이 지석묘의 덮개돌을 칠성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두고 북두칠성에 대한 종교적 관념을 토대로 지석묘를 의도적으로 축조한 것인지, 아니면 지석묘 축조가 이루어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칠성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칠성바위에서 행해지는 신앙적인 형태로 보아 후자의 경우가 더욱 설득력 있지 않나 싶다. 즉 본래 무덤으로서 지석묘가 무덤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칠성신앙의 관념이 작용하여 ‘칠성바위’라는 명칭 붙이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석묘는 칠성바위로서의 의미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와 신앙형태가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칠성바위는 주로 아이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한 생명을 점지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²²⁾ 죽음의례에서 망자를 안치하는 받침대를 ‘칠성판’이라 부르기도 하고, 염습을 하면서 시신을 일곱 매듭으로 묶는 것은 모두 칠성신을 표현한다. 이는 인간은 다시 칠성신에게 돌아간다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칠석날에 아이들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 사찰의 칠성각이나 무당을 찾아 칠성신에게 공을 드리는 세시풍속도 칠성신이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한 데서 연유한다. 이처럼 칠성신은 아이가 없는 가정에

22) 표인주, 2010, 『암석의 신앙성과 서사적 의미 확장』, 『용봉인문논총』 제36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60쪽.

아이를 접지해 주는 역할은 물론,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결정시키고, 살만큼 살다가 운명한 망자의 죽음까지도 관장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그래서 칠성신은 인간의 탄생→인간의 길흉화복→인간의 죽음(내세)을 관장하는 별지리신으로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종교적인 신앙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칠성신앙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칠성신의 신체로 무덤과 관련된 지석묘 덮개돌을 자연스럽게 활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거북바위와 거북신앙

거북신앙이란 거북을 신격화한 거북바위를 숭배하는 신앙행태로서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때문에 칠성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고, 벽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서롭고 길한 동물로서 인식되어왔다. 도교에서 거북은 북쪽을 지키는 호위신이었고, 실질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 중에서 현무도(玄武圖)에 거북이 등장한다. 현무는 북쪽 방위 수호신으로 태음신(太陰神)을 가리키는 데, 거북은 지신(地神)이면서 수신(水神)이다.²³⁾ 이러한 거북신앙은 <구지가(龜旨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경에 유행했고, 중국에서는 당송(唐宋) 때에 한창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구지가>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실려 전하는 수로왕 탄생담의 중심부를 차지하며 거북의 머리[龜頭]를 내밀라고 명령하는 주술적인 노래이다. 이와 같은 주술적인 노래는 다름 아닌 거북신앙을 토대로 불리어진 것이다. 현재도 우리 주변에는 땅·산·바위 이름,

23)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42쪽.

24) 주채혁, 1973, 「거북 신앙과 그 분포」, 『한국민속학』 제6호, 한국민속학회, 25~35쪽.

사찰 명칭, 공동체신앙의 제당 명칭, 상량문에 새겨진 글씨, 거북 형상의 비석 등에 거북 구(龜)자가 붙은 곳이 많고, 구지가와 해가사와 같은 고대가요의 작품, 거북놀이, 설화 등에서 거북[龜]이 많이 등장한다.²⁵⁾ 대개 바위인 경우 거북의 모양을 닮은 경우가 많고, 거북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거북신앙은 주로 거북 형상을 한 암석을 신체로 삼았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숭배했는데, 특히 백제계의 산성의 거북바위, 대모산성의 거북바위, 후백제시대에 만든 전주의 거북바위, 강화도의 거북바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거북을 하나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것임을 알게 한다.²⁶⁾ 거북신앙의 신체로서 마을 주변의 고인돌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남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구연마을 거북바위(지석묘 1기: 마을 안에 있고 거북이 모양)
- ②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원사창마을 거북바위(지석묘 2기: 마을 안에 있고 거북이 모양)
- ③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태봉마을 거북바위(지석묘 1기: 마을 앞에 있고 거북이 모양)
- ④ 전남 영광군 범성면 용덕리 구암마을 거북바위(지석묘 2기: 마을 입구에 있고 거북이 모양)
- ⑤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효동마을 거북바위(지석묘 4기: 마을 입구에 있고 거북이 모양)
- 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평금마을 자라바위(지석묘 1기: 마을 앞에 있고 자라 모양)
- ⑦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만년마을 거북바위(지석묘 1기: 마을 뒤에 있고 거북이 모양)
- ⑧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신평마을 거북바위(지석묘 1기: 마을 앞에 있고 거북이 모양)

25) 표인주, 앞의 논문, 361쪽.

26) 오순제, 2004, 「고대의 동굴신앙유적과 거북바위에 대한 연구」, 『명지사론』 14·15합집, 관산 김위현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명지사학회, 9~51쪽.

⑨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거북바위(지석묘 12기: 1기가 거북이 모양의 음각이 새겨져 있음)

거북신앙은 본래 벽사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것보다도 생산을 기원하는 성신앙적(性信仰的) 목적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거북이 뱀과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용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주채혁은 거북이나 뱀 및 용이 모두 지극히 정욕이 강한 동물이라 하면서 귀두(龜頭)와 사두(蛇頭) 그리고 용두(龍頭)를 남근(男根)을 표현한 것이라 했다.²⁷⁾ <구지가>의 노래에서 보여주듯 거북은 생산신으로서 성신앙의 대상으로 출발하여 후대에 장수 및 길상 동물의 상징성을 토대로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앙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북은 두꺼비나 구렁이와 더불어 재복(財福)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숭배되기도 했으므로 업신앙의 대상이기도 했다.²⁸⁾ 즉 거북신앙은 성신앙이요 칠성신앙이면서 업신앙(業信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석묘 덮개돌을 거북바위라고 부르는 것은 성신앙보다도 칠성신앙과 업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주로 거북바위를 아이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고, 가정이나 마을의 재물을 관장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거북바위가 주로 마을 입구나 마을 안에 위치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전승되는 거북바위는 성신앙 및 칠성신앙보다도 도리어 업신앙의 대상으로서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 않는가 한다.

27) 주채혁, 앞의 논문, 27~35쪽.

28) 표인주, 2010, 『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4쪽.

4. 덮개돌 설화의 기능과 구조

청동기시대의 무덤이었던 지석묘 덮개돌은 칠성신앙과 거북신앙의 민속신앙적 관념이 작용되면서 칠성바위 및 거북바위라는 명칭붙이기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덮개돌은 아이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의미화되면서 다양한 신앙적 행위와 구술물들이 덧붙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앙적 행위와 구술물들은 덮개돌의 민속신앙적 관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칠성바위와 관련된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평촌마을 뒷산인 전답등(田畓嶺) 줄기를 이어오는 뒷들과 마을 내에 큰 바위들이 모여 있는데, 이 바위가 있는 곳을 ‘독베기’라 하며 흠어져 있는 모습이 북두칠성 같다 하여 ‘칠성바위’ 한다.<장흥군 대덕읍 평촌마을 칠성바위>²⁹⁾
- ② 샛터라고 부르는 다가 칠성부락인데, 샛터 바로 뒤에 가서 바위가 일곱 개가 조르르니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칠성이라 부르고 있어요. 주로 홍씨들이 살고 독(바위)이 일곱 개가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일곱 개가 눈에 가서 백힌 것도 있고 발에 가서 백힌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광산구 삼도동 칠성마을 칠성바위>³⁰⁾
- ③ 저그 가면 돌맹이 큰데 있지. 눈 가운데 바우 큰거 또 하나 있어. 장군 거시기 허서 장석바우라고 그랬는디. 장군바우라고 그랬는가. 여기서는 장석바우라고 그랬어. 그 밑이 가면 닭장 옆에 거그도 바우가 눈두렁 옆에 우뚝 솟은 놈 있고, 눈 가운데도 있고. 닭장 옆에 거그다 옛날에 어른들이 말여. 싘줄식으로 외약산내끼 파서, 고추·숯·솔잎 끓어다 꽃아가지고 칭칭 점매놓고 그랬어. 애기날라고 공들였는가 몰르지. 어떤 때 보면은 거그다 밥도 놓고. 짚 열십자로 놓고 거그다. 바위 옆이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공들였는가봐. 그 바위를 장석바우라고. 이렇게 엇비땅허게 생겼는디. 요만씩헌 구멍이 빠끔빠끔 그려. 고창가면

29) 『마을유래지』, 장흥군, 1986, 171쪽

30) 『광주의 전설』, 광주직할시, 1990, 298~299쪽.

고인돌 많잖어. 그런 식으로 넓죽헌 바위가 큰 근디 이쪽 앞이 큰 돌 두 개가 고여가지고 있는디. 뒤쪽은 미어져 가지고 몰르지. 지금은 우리가 아까도 저건 틀립없이 고인돌 같으다 그런 얘기를 했어.<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관암마을 장석바우>³¹⁾

위에서 보듯이 칠성바위에 얽힌 설화는 지극히 바위의 유래만을 설명하는 증거물 위주의 단편적인 언술에 불과하다. 그런데 바위 유래의 설명은 물론 바위를 대상으로 일어난 신앙적 행위를 구술로 표현하여 서사적인 내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①과 ②의 설화는 단순히 바위의 유래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바위가 일곱 개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단순히 칠성바위 유래만을 설명하지만, ③의 설화는 장군바위로 알려져 있으나 기자신앙이나 칠성신앙의 종교적 행위들이 수반되었음을 설명하여 서사적인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③의 설화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대문 위에 걸었던 금줄을 둘러놓고 공을 들였다고 하는 것은 기자신앙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고, 짚을 열십자로 놓고 그 위에 밥을 해놓고 공들이는 것은 칠성신앙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자신앙과 칠성신앙이 개별적으로, 혹은 동시에 수행되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칠성바위가 기자신앙의 대상으로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칠성바위는 성수신앙이나 칠성신앙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자신앙의 대상으로서 마지막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석묘 덮개돌은 성수신앙의 잠재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칠성신앙과 기자신앙의 대상으로 활용되었지만, 거북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거북바위와 관계된 설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31) 서해숙 외, 2000, 『전주설화』, 전라문화연구소, 204~205쪽.

① 그것을 언제 누가 맨들어서 갖다 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 짓고 만수탄 건너편에 우두봉이 있고 그 너머에 취암산이 있는디 취암산 골짜기 어디에 절이 하나 있었답니다.

중들이 아침에 어디로 시주를 갈꼬 허고 쳐다보면 꼭 구미박이는 갈데가 없더랍니다. 아, 좀 넉넉허니 사는 디서 시주가 후하게 나오덜 않것어요. 근디 맨날 구미만 시주를 다니다 본께 어찌 저 마을은 잘 사든디 우리 절은 빌어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인가 허는 생각이 들었는 가 봐요.

그러던 차 그 절에 묵었던 적이 있는지 도승이 가만히 본께 아무래도 거북이한테서 먼 조화가 있는 성싶은 거라. 밤중에 중들을 시켜갖고 구미쪽으로 꼬리를 두고 있는 거북이를 획 돌려서 머리가 구미쪽으로 오고 꼬리는 절 쪽으로 가게 히놉부렀대요. 근게 절집 살림도 늘고 불사중창도 허고 좋은 일이 절쪽에서 생기더래요.

마을 사람덜도 눈치를 채갖고는 다시 꼬리가 마을쪽으로 두르게 해는 게 밤에는 중들이 다시 돌려 놓고 낮에는 마을 사람덜이 또 돌려놓고 그것을 차꼬 되풀이 했는개벼요.

그러던 도승이 안돼것다 싶었는지 “요놈이!” 험서 지팽이로 거북이 머리를 치니까 머리가 딱 떨어져 부리더래요. 그 머리를 만수탄 강물에 다 던져 버렸다는디. 우리는 거그를 조쏘라고 허요. 그 뒤 절을 망쳐서 폐사가 되야볼고 구미는 그런 대로 잘 살아나오게 되앗다고들 허대요.<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거북바위>³²⁾

② 북평에서 만경대로 가자면 그 산이 말입니다. 구호산인데. 음 그러니까 북평에서 조금 더 가면 거북이 모양의 돌이 있어요. 그것이 항상 움직입니다. 그 거북이 머리를 북평 송정 쪽으로 가면 송정이 그 큰 하나의 풍년이 온다든가. 아주 재수가 좋고 아주 거 송정쪽이 운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그 거북이 모양이 그 쪽 남쪽으로 하면 지금은 구호, 대구리 그 쪽이 상당히 풍년이 오고 상당히 그 재수가 좋다. 이러고도 하지요. 이러다 보니 다 그대로 옛날부터 송정이 그러니까 하천 북쪽에 청년들 또 그 하천 남쪽의 청년들이 항상 그 남의 것을 밤중에 가 가지고 이 짝에 돌려놓으면 그 이튿날 또 저 쪽이 돌아가고 아주 안장 바위 식이지. 그거를 인제 거북 바위라 얘기하는데. 이조 중엽이래요. 이조 중엽에 이제 그 김진사택 그 분이 강문에 원래 계시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 아주 어려워서 북평으로 오셨단 말이야. 북평으로 오서 가지고 북평에 장가를 들었어. 그 처갓집 부근에 와 가지고 집을 지어 살았는데, 그 터가 그런 터라서 그랬는 것인지 거북바위 곁에다

32) 허선준, 1998, 『순창군의 전설』, 순창문화원, 54~55쪽.

집을 지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삼척읍 남양 2리 거북바위>³³⁾

- ③ 조선조 중엽에 지금의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평금마을에 이감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재산이 넉넉하여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으나 슬하에 일점혈육이 없었다. 그는 자식이 없으므로 외로운 생활로 지냈으나 마음씨가 착하고 도량이 넓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처지였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 자기 일처럼 돌보아 주었고 흉년이 들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것도 서로의 인연이 맺어진 것이니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을이 잘 살고 서로 화합하여 우리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단을 만들어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생각해 보니 그럴싸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 “좋을 대로 하십시오”하고 서로들 호응을 하였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단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이감관은 “우리 마을을 수호하는 신의 제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식은 없으나 이 마을을 위해서 평소 생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평지에 있고 들이 좋으니 후손들이 오래오래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북이형의 제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이 일은 나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이감관이 본래 남다른 데가 있고 술선해서 만든다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감관은 이내 고산아래에서 자라 모양의 바위를 옮겨 제단을 만들고 매년 3월 그믐에 마을 공동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로부터 수년이 지나 마을은 재앙이 없어지고 차츰 부자 마을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 돕고 협조하는 기풍이 일어나 인심 좋은 마을로 변하였다.<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평금마을 가북바위>³⁴⁾

위의 설화에서는 칠성바위 설화에 비하여 서사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증거물을 기반으로 한 덮개돌의

33) 강원도 삼척군 편,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80~281쪽.

34) 영광군, 1998, 『영광군지』 상, 967~969쪽.

유래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선적이거나 서사적 인물과 그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적인 짜임새를 갖춘 서사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①의 설화에서는 구미리 마을사람들과 시주승의 대립을 토대로 거북바위를 쟁취하기 위한 행위들이 서사화되어 있다. ②의 설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송정마을사람들과 남쪽청년들의 대립 속에서 서로 거북바위를 쟁취하려는 행위를 서사화하고 있다. 여기서 거북바위는 재복을 관장하는 업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물을 서로 획득하기 위한 행위가 업신앙의 명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북바위가 재물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인식되면서 마을의 수호와 더불어 마을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한다. ③의 설화는 왜 거북바위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것을 마련하고 나서 그곳에서 어떠한 신앙적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마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①, ②, ③의 설화는 서사성도 확대되었지만, 서사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거북바위의 신앙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북바위는 곧 재물을 관장하는 신체(神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쟁취하려 하거나 거북바위를 새롭게 만들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기도 했던 것이다. 즉 거북바위가 한 인간의 장수를 기원하는 데서 재복을 기원하고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거북바위를 파괴함으로써 마을이 망하기도 하는 설화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옛날 저 위에서 김씨들이 살았는디. 어찌 어찌 도승들이, 밤에 장군에다 이래갖고는 딱 담겨 놓고는 ‘거 한 주먹씩 내가라’고 헐다 그 말이여. 그러니께 모두 쥘 적에 이 뭐 많이 나올 것이여? 그런게로 어찌, 저기 가서 어찌고 허는 그 집 망해버릴라고 거기 가서 거북바위가 있

거든. “저 거북바위를 들면 큰 부자 난다.”고 해갖고, 그 거북바위 뒤편에는 그 집이 망해버려 갖고 큰 파가 돼갖고 시방 이 밭이로 벌어 먹고 살아.<능주읍 백암리 1구 거북바위>³⁵⁾

- ②도둑꼴 앞 깡본에 깨구락지 모양의 바구가 있는데, 옛적에 양씨 그분이 한때 부자였어. 근디 어리숙하고 살짝 덜된 양씨지만 맴으로는 동네사람들한테 적선을 헐라고 맴을 묵었는디 그 방도가 생각이 나야지. 하루는 활엽수를 뜯고 오는 사람들 길모퉁이에다가 탁주허고 밥허고 풀어놔어. 그래가꼬 지내던 사람들이 그 술밥을 묵었겠다. 지나던 도승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화가 나서 양씨한테 갔겠다.(말허자껏 거트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묵는다 이거지.) 그 도승이 양씨 집에 간시름 본깨 깡본에 깨구리 모양을 헐 바구가 있더라. 옳지 저놈의 깨구리바구 따새 당신이 이 정도밖에 못사는 거시니 저놈을 깨블면 더 부자가 될꺼이요 하고는 갖뻐다 이말이시. 그러자마자 양씨는 그 바구를 깨라고 종놈들한테 명을 했겠다. 근디 깨고나자 금새 그 집이 망허드라네. 지금은 집터만 남았어. 바구도 금이 갔는디 옛적 그 자국이라고 그래. 그때부터 그 바구를 부자바구, 북깨구리바구, 깨구리바구라 부르게 되었지.<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부자바위>³⁶⁾
- ③도사가 시주하러 갔는데, 그 인자 독해서 그랬는지 뭐 시주를, 시주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묻 준다 이래 댘던 모양이지요. 묻 준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 인자 그 도, 참 뭐 중이 나가면서 말이지 “좋다. 이 동네를 망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인자, 그래 인자 그 사람들, 그 사람한테 인자 마, 거짓말을 헐 모양이지. 앞에 여어(여기) 바우 이거를 깨가지고 동네 가어로 갖다가, 성을 쌓으면 부자가 된다 카든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 그 질로(길로) 깨가지고 그래 하고 나니까 동네가 망해 버렸어.³⁷⁾

위의 설화는 마을사람들과 시주승의 대립관계에서 거북바위와 부자바위, 칠성바위를 파괴하여 재물을 잃게 되는 이야기이다. 지석묘 덮개돌을 거북바위, 깨구리바위, 칠성바위로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35) 전라남도 화순군 편(2),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0쪽.

36) 『광양시지』 제3권, 광양시지편찬위원회, 2005, 662쪽.

37) 경상남도 의령군 편(1),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42~543쪽.

있지만, 그 기능은 공통적으로 재물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①의 설화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관장하는 거북바위로 인식한다. ②의 설화에서 개구리바위는 거북바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신앙에서 거북, 자라, 개구리(두꺼비) 모두 업신의 신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북바위의 기능과 동일하다. ③의 설화에서 칠성바위를 파괴하여 마을을 망하게 된 것은 이 또한 거북신앙의 친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덮개돌에 얽힌 설화를 토대로 보면 덮개돌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신앙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덮개돌은 기본적으로 성수신앙으로서 칠성신앙과 기자신앙, 업신앙으로서 거북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덮개돌이 위치한 역사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다소 그 기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덮개돌의 일반화된 기능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현재 잔존하는 대표적인 기능은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는 기자신앙과 재물을 관장하는 업신앙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덮개돌에 얽힌 설화는 증거물 중심의 단순 구조와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서사단락들이 긴밀한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일한 덮개돌에 대한 신앙적 관념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에 따른 구비서사적인 언술들이 토대가 되어야 하나, 자료의 빈약 및 설화의 전설적인 성격 때문에 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령 덮개돌의 명칭만 남아 있고 여타의 신앙적이거나 구술적인 흔

적은 확인하기 어렵거나, 덮개돌의 명칭과 신앙적 관념은 존재하나 그에 따른 구술물들이 전해지지 않고, 덮개돌의 명칭이 구술물과는 동떨어지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덮개돌을 특정하여 명칭과 관념 그리고 설화를 동시에 살피는 일은 일률적으로 온전히 수행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석묘의 덮개돌과 관련된 명칭이나 신앙적 관념과 구술문화를 일반화시켜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유추하여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차선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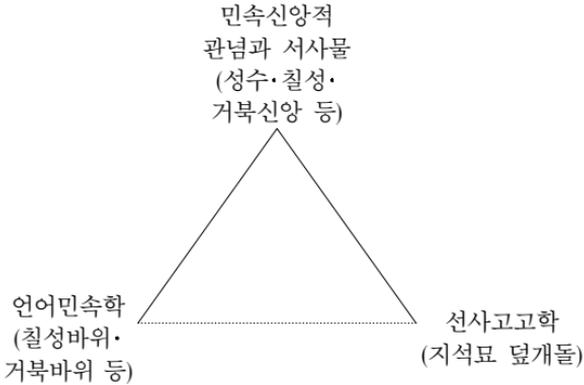
지석묘는 산비탈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고개마루나 산줄기에서 뻗어 내린 구릉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³⁸⁾ 이는 평지와 산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으로 산 속에서 채집생활을 영위해왔던 선조들의 묘지로 풍요로운 채집생활을 조상신들에게 기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무덤은 대규모의 취락이 등장하면서 공동체의식과 더불어 조상숭배가 고조되면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물화되고,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의 장례는 특별한 의식과 함께 엄숙히 거행되었을 것이다.³⁹⁾ 그렇기 때문에 지석묘 덮개돌은 이 시기 공동체의 조상신적 기념물이자 무덤의 상징물이다. 즉 덮개돌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조상신의 신체(神體)이면서 무덤의 표석으로 이해되었다. 여기에는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민속신앙적인 관념이 첨가되어 덮개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수반된 것이다.

덮개돌에 대한 민속신앙적 관념은 다름 아닌 성수신앙, 칠성신앙, 거북신앙, 기자신앙, 성신앙, 업신앙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덮개돌을 무덤의 상징물보다도 신앙적 상징물로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

38) 이영문, 1993,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9) 안재호, 2012, 『묘역식지석묘의 출현과 사회상』, 『호서고고학』 26, 호서고고학회, 41~64쪽.

러면서 뎡개돌의 새로운 명칭붙이기가 이루어져 왔는데, 뎡개돌에 대한 명칭을 보면, 칠성바위와 거북바위의 명칭이 가장 많고, 그 외 복바위, 알바위, 자라바위, 두꺼비바위, 장군바위, 철용바위, 미륵바위 등 민속신앙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지식묘 뎡개돌은 기능적으로 보면 성수신앙을 기본 바탕으로 한 기자신앙과 업신앙의 신앙적 상징물인 경우가 많다. 즉 신앙적 상징물인 뎡개돌을 한 생명의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고, 공동체의 재복을 기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뎡개돌은 무덤의 상징물에서 신앙적 상징물로 변모한 것이고, 이에 따라 뎡개돌의 의미변화도 뒤따랐다. 고대사회에서는 무덤의 표석이었던 것이 민속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한 인간의 탄생을 기원하는 기자의례나, 아이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례,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례 등이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뎡개돌의 신앙적 관념을 강화하고 의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물이 형성되기도 했다. 여기서 신앙적 관념과 서사물은 상보적 관계를 바탕으로 강화·형성된 것으로, 뎡개돌이 개념화되고 의미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

아가서는 덮개돌의 새로운 명칭붙이기를 확정하는 토대가 되었다.

위의 그림처럼 지식묘 덮개돌의 의미는 오그덴&리차즈의 의미 기본 삼각형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고 확정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현세와 내세의 경계에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죽음의례와 매장문화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지식묘는 청동기시대의 매장문화로서 청동기인들이 갈망하는 영생 혹은 부활 등의 내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식묘의 덮개돌은 후대의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더불어 성수신앙과 칠성신앙 그리고 거북신앙이 공통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신앙적 대상이 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지식묘 덮개돌에 대한 내세적 관념을 토대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성수신앙, 칠성신앙, 거북신앙 등의 민속신앙적인 관념이 작용되어 칠성바위, 거북바위, 자라바위, 두꺼비바위, 복바위 등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신앙적 행위가 수반되거나 언어적 구술물들이 덧입혀져 전해지면서 덮개돌의 의미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한 인간의 운명에 관한 신앙적 관념이 청동기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식묘, 성수신앙, 칠성신앙, 거북신앙 등을 통해 전승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민속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문화적 유전자라는 함은 한국인의 현세 및 내세관에 관한 신앙적 지식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언어민속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덮개돌은 우리 민족의 삶과 죽음의 문화를 신앙적 관념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민속학적 원천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덮개돌은 한국인의 운명관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언어민속학적 원천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6.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식묘 덮개돌은 어떠한 신앙적 관념이나 서사적인 언술들이 첨가되었으며, 어떻게 명칭붙이기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였다. 언어민속학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로만 야콥슨의 언어기능과 오그덴&리차즈의 의미의 기본 삼각형 원리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살펴보았다.

덮개돌에 대한 민속신앙적 관념으로 성수신앙, 칠성신앙, 거북신앙 등을 들 수 있다. 성수신앙에서 별자리신은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고, 천신의 변이형태인 산신(山神)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신격이었다. 칠성신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으로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기원하는 대상이 되었다. 칠성신앙은 별을 숭배하는 성수신앙의 발전형태라 할 수 있는데, 거북신앙은 거북을 신격화한 거북바위를 숭배하는 신앙행태로서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때문에 칠성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민속신앙적 관념을 토대로 덮개돌에 다양한 신앙적 행위와 구술물들이 덧붙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칠성바위에 얽힌 설화는 지극히 바위의 유래만을 설명하는 증거물 위주의 단편적인 언술에 불과하지만, 바위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물론 바위를 대상으로 일어난 신앙적 행위를 구술로 표현하여 서사적인 내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거북바위 설화는 칠성바위 설화에 비하여 서사성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증거물을 기반으로 한 덮개돌의 유래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선적이나마 서사적 인물과 그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거북바위의 신앙적 관념을 구체화시키기도 한다. 즉 거북바위는 재물을 관장하는 신체(神體)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그것을 서로 쟁취 혹은 파괴하려 하고, 혹은 거북바위를 새롭게 만들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설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덮개돌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신앙적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화가 증거물 중심의 단순 구조와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한 서사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덮개돌은 무덤의 상징물에서 신앙적 상징물로 변모하고, 이에 따라 덮개돌의 의미도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덮개돌의 신앙적 관념을 강화하고 의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물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신앙적 관념과 서사물은 상보적 관계를 바탕으로 강화·형성된 것으로, 덮개돌의 개념화와 의미화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서는 덮개돌의 새로운 명칭붙이기를 확정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지석묘 덮개돌의 의미와 명칭은 오그텐&리차즈의 의미 기본 삼각형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고 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덮개돌은 한국인의 운명관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언어민속학적 원천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

【참고문헌】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2005, 『광양시지』 제3권.
광주직할시, 1990, 『광주의 전설』.
장흥군, 1986, 『마을유래지』.
영광군, 1998, 『영광군지』 상.
- 강원도 삼척군 편,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상남도 의령군 편(1),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8-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만태, 2012,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제159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김열규, 1966, 「한국민속신앙의 생생상징 연구」, 『아세아연구』 제9권 제2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일권, 2000, 「고구려인들의 별자리 신앙」, 『종교문화연구』 제2호,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 로저키징(전경수 역), 1985, 『현대문화인류학』, 현음사.
박용식, 1985, 『한국설화의 원시종교사상연구』, 일지사.
박창범·이용복·이용조, 2001,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서해숙 외, 2000, 『전주설화』, 전라문화연구소.
송효섭, 2003, 『문화기호학』, 아르케.
안재호, 2012, 「묘역식지석묘의 출현과 사회상」, 『호서고고학』 26, 호서고고학회.
- 오순재, 2004, 「고대의 동굴신앙유적과 거북바위에 대한 연구」, 『명지사론』 14·15합집, 관산 김위현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명지사학회.
우장문, 2008,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의 사유에 관한 연구」, 『선사와 고대』, 한국고대학회.

- 윤평현, 2013,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 이영문, 1993,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지석묘에 얽힌 지명과 신앙』, 『이야기로 풀어낸 화순 지석묘유적』,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전라남도 화순군 편(2),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주채혁, 1973, 「거북 신앙과 그 분포」, 『한국민속학』 제6호, 한국민속학회.
- 최진숙·조숙정, 2011, 「《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 편》(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의 서평」, 『한국문화인류학』 44-3, 한국문화인류학회.
- 표인주, 2010, 「암석의 신앙성과 서사적 의미 확장」, 『용봉인문논총』 제36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_____, 2011, 「지리산 산신의 종교문화사적인 위상과 의미」, 『남도문화연구』 제20집,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남도문화연구소.
- _____, 2010, 『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출판부.
- 표인주·조경만, 1988, 『월출산-바위문화조사-』, 전라남도.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 한상복·이문웅·김광억, 1998, 『문화인류학개론』, 한국문화인류학회.
- 한정섭, 1975, 「불교토착신앙고」, 『불교학보』 제1집, 한국불교학회.
- 허선준, 1998, 『순창군의 전설』, 순창문화원.

Linguistic and Folkloric Meaning of Cap Stone in Dolmen

Pyo, In-Ju

In the perspective of Korean folk religions, cap stone is divided into Seongsu religion, Chilseong religion and Geokbuk religion. Seongsu religion was an important Korean one that organizes the fate of human. Chilseong religion is a type of development of Seongsu religion that worships stars in the sky. Geokbuk religion is closely related to Chilseong religion because it prays for longevity.

Based on folk-religious concept, a variety of religious acts and oral objects had been added into cap stone. Cap stone is equipped with a descriptive aspect in the point that the origin of cap stone, and epic figures and their acts are explained on the basis of evidence. What is able to be identified by tales is that cap stone had served the multi-layered, complicated, and religious functions.

Cap stone had changed from a symbol of a tomb to a religious symbol, and consequently its meaning had changed. To enhance the religious concept of cap stone and justify ritual, a variety of narrative objects had been created. That was based on the way of determining a new name of cap stone. Cap stone is greatly meaningful in the point that it is the linguistic

and folkloric source to identify the cultural gene of Korean people's view of the fate.

key words : Cap Stone in Dolmen, Chilseong religion and Chilseong stone, Geokbuk religion and Geokbuk stone, narrative objects, linguistic and folkloric

휘 보

□ 호남학연구원 조직(2013. 06. 30. 현재)

부 서	이 름	소 속
원 장	김신중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운영위원	김동수 김은정 송정민 양희석 이강래 이 철 천득염 최대우	인문대학 사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인문대학 중문과 인문대학 사학과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 인문대학 철학과
연구부장	조운호	인문대학 철학과
학술기획부장	김병인	인문대학 사학과
교육사업부장	김용의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감성문화자원개발부장	정경운	문화전문대학원
편집출판부장	장일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HK 운영부장	정명중	호남학연구원
행정원	최원중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T.A	김봉국	인문대학 사학과 대학원
	이연숙	인문대학 사학과 대학원
	김혜미	인문대학 국문과 대학원
	오세익	인문대학 철학과 대학원

□ 수행 중인 연구 과제

연번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간	지원금액
1	인문한국 지원사업- 세계적 소통코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계 정립	김신중	학술 연구재단	2008.11.01 ~2018.10.31.	7,990,000,000원
2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김동수	한국 고전번역원	2011.05.01 ~2012.04.30	95,440,000원
3	무등산 주상절리대 종합 학술조사 용역	김신중	화순군	2012.11.29 ~2013.09.28	44,415,000원

전남대학교호남학연구원규정

개정 1973. 3.31. 제 58호	개정 1982. 11.30. 제202호	개정 1988. 6. 15. 제313호
개정 1993. 4.2 제463호	개정 1995. 6.12. 제529호	개정 2008. 8.5. 제1145호
개정 2009. 9.1. 제1211호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호남지방의 문화를 연구함과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 제반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혀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호남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2.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보존
3. 정기간행물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출판
4. 연구발표회, 강연회, 학술대회 등 학술회의의 개최
5.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별도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함)
6.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8. 기타 설치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

제4조(조직)

- ① 연구원에 원장과 연구부, 학술기획부, 교육사업부, 감성문화자원개발부, 편집출판부 및 행정실을 둔다.
- ② 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구원 내 연구사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연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한다.
- ④ 원장의 강의책임시수는 이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 ⑤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 ⑥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부 : 학술연구 업무
 2. 학술기획부 : 연구원 사업 전반의 기획 업무 및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협력 업무
 3. 교육사업부 : 대학원 협동과정 개설 및 운영 업무
 4. 감성문화자원개발부 : 감성문화자원콘텐츠의 개발 및 응용 업무
 5. 편집출판부 : 연구원의 각종 출판에 관한 업무
- ⑦ 행정실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연구원)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인문한국교원(인문한국 정년보장교수, 인문한국교수, 인문한국연구교수를 말한다.)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인문한국교원으로 임용된 자
2. 전임연구원 :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전임'으로

임용된 자

3.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4.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원에 소속된 자
5. 보조연구원 : 연구원에 소속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6.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 위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하고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2. 연구원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결산
 3. 각 부장, 연구원의 임명 및 편집위원, 자문위원, 연구위원 위촉, 인문한국교원 인사
 4. 기타 인문한국사업을 비롯한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연구위원)

- ① 연구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연구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하며 학내외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원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연구윤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원의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 이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간접경비, 각종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3. 3.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6.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5.)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와 호남학연구단의 모든 업무를 호남학연구원에서 승계한다.

부 칙(2009. 9.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남문화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논문집인 『호남문화연구』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호남문화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 ① 논문
- ② 서평
- ③ 자료 소개
- ④ 기타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관련되거나 부합되는 글

제3조 『호남문화연구』에는 국내외 관련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 ①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단, 연구원의 실무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은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원 주최 전국학술대회 등에서 주제 발표했던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호남문화연구』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①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호남학연구원의 원장 및 실무 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호남문화’에 관련된 학문 분

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편집부장이 맡으며,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 ④ 연구논문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 ⑤ 기타 『호남문화연구』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③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판정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④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 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되었을 때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호남학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학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올바른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게재 논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과제 등 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연구원의 연구윤리 실천을 위해 연구원 산하에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7인 이내
 3. 간 사 : 1인

제4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 ①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 ② 위원은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간사는 연구원 행정요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일체의 부정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의 범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

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표절 여부는 학술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을 따름)
- ②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③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 ④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맡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제7조(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

- ①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
- ② 심사의 개시
 1.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사에 착수한다.
- ③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2.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

를 준다. 소명은 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④ 심사 결과의 보고

1. 모든 심사 절차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①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

1. 연구원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투고한 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연구원 주관하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자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표절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4.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② 연구 과제의 수행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

1. 연구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 학술연구재단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환수하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구 과제 참여자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

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제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① 제보자의 보호

1.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한다.

② 피조사자의 보호

1.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제10조(연구윤리의 교육)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연구윤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주지시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호남문화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일반 원칙

- ① 『호남문화연구』는 1년에 두 번 간행하며, 간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자로 정한다. 이 간행 일정에 맞춰 원고 모집 마감일을 5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 ② 『호남문화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호남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부합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 일반에 관한 주제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운영 규정>에서 제시된 사업에 관련된 주제라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학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 ③ 논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 ④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이는 『호남문화연구』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을 전자우편(honamstudy@hanmail.net)을 통해 호남학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 ⑤ 투고하는 논문은 ‘국문제목-저자명-목차-국문초록-국문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주제어’의 체재를 갖춘다(단, 주제어는 네 단어 이상 제시).
- ⑥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상한선을 넘긴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게재될 경우 초과 게재료가 부과될 수 있다.
- ⑦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정해진 게재료를 내야 한다. 심사료는 3만원이며, 게재료는

일반 논문의 경우 10만원, 각종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20만원이다.

- ⑧ 『호남문화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 갖는다. 또한 이의 확인을 위해 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논문 투고시 별첨한 <논문 게재에 따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각주 표기 방식

- ①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을 기입한다.
- ③ 한국어 및 동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 ④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며,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⑤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 ⑥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한다.
(예) 『중국내의 고구려유적』 (이하는 『고구려유적』)
- ⑦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출판연도)-『서명』-출판지: 출판사-권수-면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⑧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서명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번역 서명, 서지사항을 밝힌다.

(예) James T. C. Liu(1959), *Reform in Sung China: Wang An-shih(1021~1086) and His New Policies*, Cambridge, MA: Harvard East Asian Studies; 이범학 역(1991),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p.51.

⑨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발간연도)-「논문제목」-『잡지명』-통권(혹은 권·호)-학회지-면수의 순으로 밝힌다.

3. 인용 방식

- ①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문 속에서 지문과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주 속의 인용문도 겹따옴표로 묶는다.
- ③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 ④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는다.
- ⑤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긴 인용문은, 지문과 앞뒤로 각각 한 줄씩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 ⑥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친절하게 밝혀야 한다.

4. 참고문헌 기재 방식

- ①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 서양어 순으로 하며, 한국어와 동양어는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재하고, 서양어 문헌은 ABC 순으로 기재한다.

② 논문의 경우 수록된 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시작 면수와 마지막 면수를 반드시 밝힌다.

(예) 박준규(1987), 「韓國의 樓亭攷」,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42쪽.

심사경위

『호남문화연구』 제53집에 투고된 총 논문은 11편입니다. 이 11편의 논문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주관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7편이 제53집의 게재 논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투고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의 게재율은 64%(7/11)입니다.

『호남문화연구』 제54집 수록논문 모집 안내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는 학술지 『호남문화연구』 제54집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호남문화’, ‘문화’ 관련 전 학문 분야
2. 자격 : ‘호남문화’, ‘문화’ 관련 국내외 연구자
3.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4. 원고 제출 마감 : 2013. 11. 15. (금)
5. 투고 형식 :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함.
6. 심사 및 게재 결정 : 『호남문화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름.
7. 필자 대우 : 학회지 1부 및 별쇄본 20부를 제공함.
8. 논문 게재료
 - 심사료: 3만원
 - 일반 논문 : 10만원 / 연구비 수혜 논문 : 20만원
 - 지정계좌 : 광주은행 074-107-309110 (예금주 : 전남대호남학연구원)
9. 원고 제출처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아래 연락처 참조)

< 연구원 연락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333) 전남대학교 산학협력3호관 210호 호남학연구원 행정실

☎ (062) 530-2710/5020 Fax : (062) 530-2711

Homepage : <http://www.homun.or.kr>

E-mail : honamstudy@hanmail.net

□ 편집위원 : 장일구 (편집부장)

박수철(서울대)	신해진(전남대)	엄기표(단국대)
이무용(전남대)	이병기(한림대)	이호승(충북대)
정인호(대구대)	정명중(전남대)	차철욱(부산대)

호남문화연구 제53집

가격 15,000원

2012년 6월 24일 인쇄

2012년 6월 30일 발행

편집·발행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제작·판매 : 경인문화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24-3

전화 : 02-718-4831~2

팩스 : 02-703-9711

등록번호 : 제10-18호

등록연월일 : 1973. 11. 8.

호남학연구원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33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전화 : 062) 530-2710

팩스 : 062) 530-2711

* ISSN 1225-3561